



제3편

교육과 청소년 문화

- 제1장 교육의 현실과 미래
- 제2장 교육의 변천과 현황
- 제3장 청소년정책과 지역사회교육
- 제4장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 제5장 청소년인권과 자치활동
- 제6장 청소년과 함께 쓴 청소년 이야기



2009. 9.1
GRAND OPEN

제1장 교육의 현실과 미래

김지수 | 군포시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1. EFA와 한국사회의 교육현실

2000년 4월 세네갈 다커에서 열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세계교육포럼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 Education For All)'이라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나이, 성, 계층, 지역, 개인적인 성격이나 열망 등의 차이를 떠나 모든 국가에서 누구나 평등한 양과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 권고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영유아, 특히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받는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교육의 증진 및 확대
- ②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 특히 여아,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와 소수 민족의 어린이들이 양질의 초등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③ 모든 청소년과 성인들의 학습 욕구를 각각에 알맞은 학습과 생애 기술 습득 프로그램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④ 2015년까지 성인, 특히 여성의 문맹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모든 성인에게 기본적인 지속적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
- ⑤ 2005년까지 초등과 중등학교에서의 성 불평등을 제거하고, 2015년까지 여아들에게 양질의 기본 교육에의 접근

- ⑥ 모든 측면에서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모든 이들이 특히 읽기와 셈하기 등과 같은 모든 기본적인 생애 기술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학습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수월성 보장

EFA의 목적은 모든 측면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학습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수월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의 학습 욕구에 따라 적합한 학습과 기술 습득 프로그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국가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권고는 일 년에 5만~6만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교실붕괴', '교육위기'가 논의되는 오늘날 한국의 교육 상황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왜냐하면,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교육받는 양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려 주고, 교실이 붕괴된다는 것은 한국의 교육이 일정한 수준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한국사회의 교육이 청소년의 학습 욕구에 부적합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경기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경기도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이 혼재된 대표적인 지역이다 보니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학생들이 불공평한 교육환경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경기도 자체적으로 청소년 관련 데이터와 자료가 조사·측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도내 거주 청소년들의 욕구와 문화 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의 청소년정책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정도에 머물 뿐이고, 독자적으로 수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앞서 청소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31개 시군구라는 광범위한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지역 상황이 체계적으로 관찰·정리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실은 경기도를 떠나 군포시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2. 통계로 본 교육과 전출입의 상관성

군포 시민 사이에 이런 말이 종종 회자된다고 한다. “수리산 때문에 군포시로 이주하고, 교육 때문에 군포시를 떠난다.” 도시환경과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잘 표현하였다고 느껴

거주기간별 가구 분포¹⁾(2008년 10월 기준)

지는 말이다. 이 말처럼 실제 상황도 그럴까?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이제부터 교육과 주민의 진출입 문제가 어떠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 관련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제2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군포 시민의 관내 거주기간은 '10~15년 미만'이 응답자의 26.5%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 21.2%, '1~3년 미만'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산본권역과 당정·대야권역은 '10~15년 미만' 거주 인구가 각각 28.1%, 22.9%로 가장 많았던 반면, 당동권역은 '5~10년 미만' 거주 인구가 25.3%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군포시 거주자의 21% 정도만이 3년 미만 거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의 정착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군포라는 곳에 정착한 주민들은 이곳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수리산과 인접한 산본 신도시 8단지에서 5년 이상 생활하고 있는 L씨, 20년 가까이 군포시에서 살아온 K씨, 군포 토박이인 30대의 P씨,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은퇴 이후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다른 데 비해서 집값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네요. 저처럼 하던 일에서 물러나면서 이곳으로 내려와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 교사, 공무원 등 다양한 노인세대들이 제2의 인생에서 만난 제2의 고향이 이곳이지요. <L씨 구술>

수리산은 소각장이다 공원이자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로 몸살을 앓아 온 만큼 군포 시민들에게는 친숙하면서도 가슴 아픈 추억들을 주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도 수리산이 있어 좋은 등산모임들도 만들어지고, 수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포는 작지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K씨 구술>

군포는 정말 교통이 편리해서 좋습니다. 서울도 4호선 전철 한 번이면 1시간 안에 거의 다 가구요. 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고속도로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 빠르고요. 정말 교통은 편리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P씨 구술>

1) 군포시, 2008, 『제2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39쪽.

세 사람의 각기 다른 이야기만큼이나 주민들이 군포시에 거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사회통계조사 결과에서도 그러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제2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구주가 군포시를 거주지로 선택한 주된 이유는 '사업상 또는 직장' 때문이 27.4%,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산본권역에서는 '사업상 또는 직장'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27.6%로 가장 높았고, 당동권역·당정권역·대야권역에서는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 현 거주지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33.3%, 26.7%,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야권역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3%가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 군포시를 거주지로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표 1〉 거주지 선택 이유

(단위 : %)

구분	계	교통의 편리	사업상 또는 직장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	가족·친인척과 가까이 살기 위해	생활 편의 시설	교육 환경	공기, 녹지 등 자연환경	옛날부터 살던 곳	자녀육아·양육	향후 경제적 가치	기타
2007	100.0	10.6	31.7	15.4	9.7	4.2	2.0	16.7	5.3	2.3	-	2.0
2008	100.0	9.5	27.4	26.1	10.7	3.1	1.6	13.6	4.7	1.5	0.9	1.0
권역별	산본권역	100.0	10.5	27.6	22.8	10.6	3.7	15.8	4.0	1.9	0.6	0.7
	당동권역	100.0	7.8	29.3	33.3	11.9	1.9	5.6	7.0	0.0	0.4	1.9
	당정권역	100.0	3.3	23.3	26.7	20.0	0.0	13.3	3.3	0.0	6.7	3.3
	대야권역	100.0	3.3	18.3	48.3	3.3	0.0	13.3	5.0	1.7	5.0	0.0

출처 : 군포시, 2008, 『제2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43쪽.

그런데 직장이나 경제적 능력과 같은 경제적 이유와 자연·혈연 등의 이유를 제외한 결과를 보면, '공기·녹지 등 자연환경'이 전체의 13.6%, '교통의 편리'가 9.5%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군포시의 장점으로 꼽히는 요소들이다. 반면, '생활편의시설' (3.1%), '교육환경' (1.6%), '자녀 육아·양육' (1.5%), '향후 경제적 가치 상승 예상' (0.9%) 등이라는 응답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그중 교육환경이나 육아·양육 문제는 거주지 이동 촉진 혹은 이동 억제 요인들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거주 동기를 '교육환경'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경기도의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의 군포시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기간 청소년교육에 대한 군포시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전입에 교육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매우 미미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출의 이유에서 교육환경이 차지하는 의미는 어느 정도일까? 교육환경과 주택시장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2009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전국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학력 수준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에 따른 교육서열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실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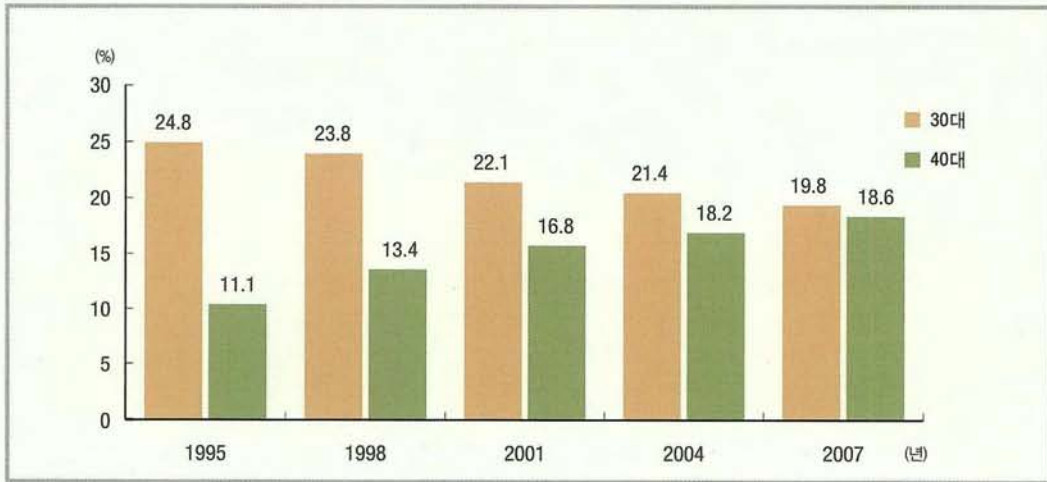
한국에서 교육 중심지역의 역사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함께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1970년대에 개발된 서울시 강남구의 대치동이다. 택지개발을 통해 탄생한 쾌적한 거주지에 중산층이 모여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에 명문학교의 강남 이전 등 정부의 지원도 교육특구 강남을 있게 한 큰 힘이었다.

또한 대치동과 함께 교육 중심지역의 트라이앵글이라 할 수 있는 노원구 중계동과 양천구 목동도 대치동의 경우처럼 1980년대에 서울시의 신시가지 개발로 탄생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이곳에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중산층이 이주하면서 교육인프라가 형성되었고, 이후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인천, 부산 등 6대 광역시 등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즉,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후 중산층이 유입되면서 교육인프라가 구축되고, 그에 따라 교육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교육, 특히 사교육 시장도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군포 지역, 그중에서도 산본 신도시의 경우는 분당, 일산, 평촌 등 다른 신도시 지역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산본 신도시는 다른 곳과 달리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위주로 건설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중산층보다는 서민층의 이주가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40대의 젊은 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군포시 전체로 보아도 30~40대 연령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 산본 신도시가 완공된 1995년 기준으로 군포시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층은 30대로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10세 미만이 19.5%의 높은 비율이었는데, 이는 30대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점과 관련 있다고 보인다. 이에 비해서 40대는 11.13%에 불과하여 20대는 물론이고 10대의 비율보다도 낮았다. 그러나 이후 40대 연령층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30대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30~40대 연령층의 비율이 40% 가까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연간 평균 전출입 인구를 5만 명 수준이라고 볼 때, 인구의 18.5%가 유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전입자는 총 27만 4,099명, 전출자는 총 27만 9,708명으로, 5년간 군포시 전체 인구만큼의 인구 이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1999년 이후로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을 논외로 한다면, 향후 전입 대비 전출의 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증가율이 낮아지면서 도시인구가 줄어들 확률도 높아 보인다.

경기도의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기준으로 이주계획가구 비율은 감소하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 증가하였고, 다시 2007년과 2008년에는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주하려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거주 동기, 즉 전입 이유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주하



전체 인구 중 30~40대 연령층 비율²⁾

〈표 2〉 연도별 전출입 인구 현황

(단위 : 명)

연도	전입	전출	순이동(전입-전출)
1997	64,598	60,392	4,206
1998	57,155	52,365	4,790
1999	59,890	63,684	△ 3,794
2000	55,428	58,949	△ 3,521
2001	57,200	61,248	△ 4,048
2002	61,110	64,103	△ 2,993
2003	60,783	58,319	2,464
2004	49,762	50,172	△ 410
2005	54,018	54,173	△ 155
2006	59,480	64,987	△ 5,507
2007	50,056	52,057	△ 2,001

출처 :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려는 이유에서는 주택문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나머지 이유들은 그 비율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자녀교육문제라는 응답률의 상승으로도 연결되며, 이 이유는 응답률이 20%에 달한 2008년 외에는 대체로 10% 내외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자연환경 때문에 이사한다는 이유는 거주 동기에서와 달리 상당히 낮아졌다. 거주 동기와 이주하려는 이유에서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의 비율이 뒤바뀐 양상이다. 이주계획지역은 '같은 시군 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군포시 외에 타 지역이라는 응답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²⁾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표 3〉 이주계획가구의 이주 이유와 이주 지역

(단위: %)

구분 연도	이주계획 가구 비율	이주하려는 주된 이유							이주계획지역			
		경제적인 문제	주택 문제	직장 (일자리)	자녀 교육	생활 편익시설	자연 환경	기타	시군 내	도내 타 시군	서울	기타
2000	39.9	13.1	43.2	16.2	9.6	6.6	6.1	5.2	39.3	39.7	15.7	5.2
2001	23.7	12.0	40.8	19.7	8.5	9.2	4.2	5.6	43.7	43.0	12.0	1.4
2002	17.2	11.7	50.5	6.8	11.7	11.7	1.9	5.8	35.0	44.7	14.6	5.8
2003	16.0	15.6	53.1	10.4	8.3	10.4	1.0	1.0	44.8	42.7	8.3	4.2
2005	19.7	14.4	37.3	11.0	13.6	10.2	1.7	11.9	39.8	39.0	14.4	6.8
2006	22.7	9.6	28.7	13.2	10.3	16.9	4.4	16.9	47.8	32.8	14.2	5.2
2007	22.0	10.3	48.5	14.4	9.3	9.3	3.1	5.2	53.6	28.9	11.3	6.2
2008	13.6	16.7	43.3	10.0	20.0	5.0	1.7	3.3	30.0	51.7	15.0	3.3
평균	21.9	12.9	43.2	12.7	11.4	9.9	3.0	6.9	41.8	40.3	13.2	4.8

출처: 경기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각 연도.

비고: 2004년의 경우 조사항목의 변화로 인해 '이주계획'에 대한 조사가 제외되었다.

1998년 10월에 조사된 산본 신도시 주거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³⁾ 중요도가 높은 변수로는 주변 자연환경, 대중교통 이용 등 입지 관련 항목들이었다.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변수로는 하자보수, 매매 용이성, 쓰레기처리상태, 방법방화 신뢰, 집회시설(노인정 등) 이용편의성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은 15가지 지표 중에서 9위권에 속해 중하위권으로 나타나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실제 학생들의 전출입 상황은 어떠한가? 1999년부터 10년간 군포시 학생의 전출 및 전입 실태를 살펴보면, 연평균 초·중·고교생의 수는 4만 7,500여 명 정도이고, 전출입 학생의 수는 6,300여 명 정도이다. 그중 전출 학생만 보면 3,500여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매년 전입보다는 전출이 더 많았으며 그 차이는 한 해 평균 711명에 달했다. 특히 고교입시평준화가 시행된 2002년과 다음해인 2003년에는 2년 연속 그 차이가 1,000명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후 전출과 전입 학생수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전출 학생의 수가 훨씬 더 많은 실정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전학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전출 학생이 평균 500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지 않은 인원이 타 지역의 학교로 전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고학년에서 학교 진학을 위해 전학 가는 인원이 저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교육문제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전체 전출 가구의 10%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군포시의 인구 이동에서 교육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3) 이준호, 2000, 「산본 신도시 주거만족도 분석」,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35호, 10쪽.

〈표 4〉 학생 전출입 현황

(각 연도 4월 1일 기준, 단위: 명)

구분 연도	전입					전출					증감
	계	중등	일반고	전문고	초등	계	중등	일반고	전문고	초등	
1999	2,964	315	74	9	2,566	3,592	414	120	51	3,007	△ 628
2000	2,879	264	90	21	2,504	3,966	404	101	38	3,423	△ 1,087
2001	2,741	298	51	29	2,363	3,610	416	65	40	3,089	△ 869
2002	3,219	317	77	14	2,811	4,450	528	143	39	3,740	△ 1,231
2003	2,848	287	110	35	2,416	3,954	426	148	62	3,318	△ 1,106
2004	3,212	317	100	28	2,767	3,528	413	101	29	2,985	△ 316
2005	2,616	319	101	39	2,157	3,030	322	100	90	2,518	△ 414
2006	2,696	287	96	25	2,288	3,046	377	82	83	2,504	△ 350
2007	2,667	336	92	18	2,221	3,463	416	91	45	2,911	△ 796
2008	2,098	307	82	25	1,684	2,411	354	60	47	1,950	△ 313
평균	2,794.0	304.7	87.3	24.3	2,377.7	3,505.0	407.0	101.1	52.4	2,944.5	△ 711

출처: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통계』 각 연도.

3. 평준화 전후 교육에 대한 경험과 인식

경기도에는 평준화지역(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과 비평준화지역(의정부, 광명, 안산, 남양주, 구리, 용인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조건의 차이는 교육환경과 교육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열반’, ‘0교시’, ‘야간자율학습’, ‘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 등이 발생하는가 하면, 2008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 마감 결과, 비평준화 적용지역 학교 가운데 54%가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비평준화지역에서는 관내 타 학교로 전학이 자유롭지 못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군포시는 2002년에 평준화지역이 되었다. 그런데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의 차이처럼, 평준화 전과 후의 교육 상황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험이나 인식에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비평준화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그때 청소년시설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행사도 제 기억으로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학생일 따름이었죠. (P씨 구술)

비평준화 시절엔 학원도 별로 없고, 주로는 단과학원이나 속셈학원이 전부였는데,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비평준화라 그랬는지 주로는 중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녔고, 고등학생 겨우는 정말 돈 많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과천이나 인근 명문고라고 하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끼리 소수 그룹으로 꼭집게 과외라는 것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죠. <씨 구술>



신본 신도시 학원가

이러한 이야기로 보면, 비평준화 시절의 학생들은 요즘처럼 학원에 쫓기듯 살지는 않았던 듯하다. 이에 비해서 평준화 이후 중 고등학교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이전 시기와 차이가 있었다. 학원에 대한 기억이 많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내신에 대한 기억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다 보니 학원을 찾아서 타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유리한 내신 성적을 얻기 위해 군포 시로 이주해 오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중학교 때부터 학원 정말 많이 다녀요. 그래서 그런지 학원들도 많이 생기고요, 경쟁도 심화된 것 같아요. 야간까지 하는 학원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이성교재의 공간으로 학원이 활용되기도 했지요. <씨 구술>

지금도 학원 많이 다녀요. 11시 넘으면 불법이니까 11시까지 운영하고는 있는데, 시험기간엔 연장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주로는 국·영·수 위주로 단과를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데, 돈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강남에 있는 학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평촌에 있는 학원 다니는 아이들도 많아요. 돈 없는 아이들이나 군포에 있는 학원 다니죠. 다른 지역에서 내신 관리 차원에서 이사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반에도 그런 친구 있거든요. 군포가 대학 입학정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교육환경이 좋아서 이사 오기보다는 내신 잘 받아 대학 가려고 전학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많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학교에도 몇 있는 것 같아요. <학생(고등학교 재학 중) 구술>

제 기억으로는 평촌, 안양, 과천 등으로 중학교 때 이사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쪽에 학원도 많고 그러니까 이사가 간다고요. 그런데 실은 내신 관리 때문에 학교는 군포에서 다니고 학원은 평촌, 좀 돈 많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은 강남에 있는 학원 아니면 과외해요. 괜히 공부 잘하는 학교나 지역 가봤자 내신점수 관리가 힘들니까. 그냥 여기서 내신 관리차 편하게 사는 거죠. <학생 구술>

학생들 스스로는 학군이나 공부 때문에 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는 듯하다. 이런 문제로 전학이나 이사를 할 경우, 대부분은 부모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는데, 학생들은 이사보다는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졸업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4. 교육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과제

현재 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된 군포시에서는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시설 개선,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현재 추진되는 사업들은 긍정적 역할을 하고 향후 적지 않은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교육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 발전이나 환경 개선이라는 과제는 몇몇 시설을 건립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어떤 특정 분야, 특정 주체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학교와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의 각 부문이 함께 노력할 때 이뤄질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들은 종종 청소년의 죽음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러한 경험은 청소년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기 어려운 아픔으로 남기도 한다. 평준화 이후인 2002년 이후 군포시에서 청소년시절을 보낸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주민들이 학창시절을 회상하는 과정에서도 아픈 경험이 드러났다.

중학교 때 소방서사거리 도장초 앞 차도에서 화물차에 치어 현장에서 숨진 친구가 생각이 나요. 제가 건너고 바로 었을 거예요, 저는 못 봤는데, 제 친구가 현장을 목격했는데 정말 처참했었어요, 그 친구도 너무 힘들어 했어요, 얼마나 그날 울었는지 ……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지기는커녕 현재도 위험한 사거리에 속하고 있어 속상해요. <씨구술>

자살도 많았어요, 죽음에 대한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학생주임 선생님한테 매를 맞아서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선생님이거든요, 사람 무지하게 무시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게 말하거든요, 재수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학교에 멀쩡하게 다니고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씨구술>

정신지체 청소년을 동급생이 때려서 죽은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아빠와 싸워서 목매달아 죽은 청소년도 있구요, 이성친구와 헤어져 술 먹고 집에 들어갔다가 부모님에게 혼나서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친구도 있어요. <씨구술>

이들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를 다니는 많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재미있고 아름다운 기억보다는 슬프고 안타까운 우리의 교육현실을 드러내는 기억이 더 많은 듯하다. 이런 기억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학교를 감옥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실제로 청소년들 주변에서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일까? 그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성적과 결과, 금전만능, 획일성과 동질성을 추구해 왔기 때문은 아닐까?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없지 않지만, 아직도 우리의 청소년들은 성적과 돈이 동일시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환경에 대한 개선은 너무 더디고, 청소년들은 그러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이기기 위한 것을 배운다. 배움의 즐거움보다는, 다양하고 소소한 삶의 즐거움보다는, 즐겁게 뛰어 놀고 열심히 땀 흘리는 것보다는 어른들의 손에 떠밀려 기계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장땡”이라는 어른들의 ‘행복론’에 길들여진 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숫자놀음을 하며 살아가는 청소년이 적지 않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소박한 꿈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고, 오로지 일등만이 존재할 뿐 나머지 숫자는 들러리에 불과할 것이다.

일등 아닌 나머지 아이들의 삶을 ‘낙오자’ 내지는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행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게 하는 데 현재의 교육시스템이 어떤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군포시뿐만 아니라 어떠한 도시도 실제적인 행복 도시로 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과 인권을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내포된 교육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한 변화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전제는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청소년이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기성세대의 태도와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 백

제2장 교육의 변천과 현황

이상열 | 군포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1. 숫자로 요약해 본 군포 지역 교육사

2009년 4월 1일 기준으로 군포시에는 초등학교 23개소, 중학교 11개소, 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7개소, 그리고 대학교와 대학원 각 1개소가 있다. 그중 초·중·고등학교 41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는 4만 3,917명이다. 이는 시 승격 직전인 1988년 5개 학교에 1만 3,388명이 재학한 것과 비교할 때, 학교수는 8.2배, 학생수는 3.3배 증가한 것으로, 그간 군포시 교육의 양적 성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산본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전 시기를 포함하여 군포 지역의 교육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을까? 이에 대해서는 2009년 기준으로 '100', '90', '50' 그리고 '27' 이라는 숫자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100은 신학문을 교육한 지 100년이 지났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 지역에서 최초로 근대식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신학문을 교육한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1900년대 말 당시 안산군 북방면 속달리에 좌동학교라는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 학교에서 일정 정도 신학문을 교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909년 『대한매일신보』에는 「안산좌동학교」라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경기도 안산군 북방면 속달리 이장 정규대 □통경 고진□ 양씨가 초동야학교를 설립하여 그 근처 초동을 모집하여 교수하는데 학생이 사십여 명이라더라¹⁾

이 기사에 나타나는 안산군 북방면 속달리는 현재의 속달동을 말한다. 기사의 날짜로 미루어 이 학교는 1909년 이전에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가 어떠한 형태로 학생들을 교육하였는지, 그리고 그곳의 체계가 어떠한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일종의 강습소였다고 추정된다.

또한 좌동학교 외에 좀 더 체계를 갖춘 교육기관이 과천군 남면 산본리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과남학교(果南學校)라는 이름의 학교인데, 1910년 『매일신보』에는 「과남교황(果南校況)」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果南校況

果川郡 南面 果□學校는 該面 山本洞에 移設한□十個月에 校長 姜寅奎, 副校長 □大應, 教師 金恩純, 財務長 李秀□, 學監 李鍾薰, 事務長 鄭敦澤 諸□가 熱心 教育함으로서 學徒가 五□名에 達하였다더라²⁾

과천군 남면 산본리, 즉 지금의 산본동에 설립되었던 과남학교는 교장, 부교장, 교사, 재무장, 학감, 사무장 등이 있던 점으로 미루어 좌동학교에 비해서 좀 더 체계를 갖추었다고 하겠다. 과남이라는 이름은 과천군 남면 혹은 과천의 남쪽이라는 뜻으로 판단된다. 몇몇 글자를 판독하기 어렵고 내용도 자세하지 않으나, 이 기사에서 “산본동에 이설한 지 10개월”이라고 소개한 점으로 미루어 늦어도 1909년부터는 교육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좌동학교와 과남학교가 정확히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어떠한 과목을 가르쳤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그 시기에 현 과천시 지역에서 운영되던 광명학교나 명륜학교가 신구(新舊)학문을 절충하여 가르쳤던 점을 고려하면, 두 학교 모두 기존의 서당과는 달리 신구학문을 절충하여 학생들을 교육하였다고 추정된다. 서당이 생긴 것에 대해서 신문에서 기사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추정은 힘을 얻는다.

그렇다면 9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군포 지역 최초의 초등학교인 군포초등학교가 설립 인가된 지 90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학교는 2010년으로 개교 90주년을 맞는다. 군포초등학교는 군포공립보통학교라는 이름으로 조선총독부고시 제153호에 의해 1919년 6월 11일자로 설립 인가되었는데,³⁾ 이 학교의 설립에는 당시 지역 유지이던 조중완 씨의 기여가 컸다고 알

1) 「잡보」, 『한글판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1일.

2) 「잡보」, 『매일신보』 1910년 9월 24일.

3) 「고시」, 『조선총독부관보』 1919년 6월 13일.

려져 있다. 1919년 설립 인가되었으나 군포초등학교가 개교한 것은 1920년 4월 1일이었다. 그리고 개교식은 개교일로부터 약간의 시간이 흐른 1920년 4월 27일에 거행되었으며, 이 날짜 『동아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始興郡 軍浦公立普通學校는 四月 二十七日 午後 一時 同校 落成 兼 開校式을 舉行하는데, 同郡 郡守 徐廷岳, 南面長 李奎應, 學校長 武田龍馬 諸氏의 名義로 各 方面의 謝鑒을 發하였더라.⁴⁾

다음으로 50이라는 숫자는 군포초등학교 개교부터 그 다음 학교가 개교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1920년 군포초등학교가 개교하고 50년이 흐른 1970년에야 둔대초등학교가 개교하였다. 그 사이에 군포 지역의 교육기관은 군포초등학교 한 곳에 불과했던 것이다. 둔대초등학교는 1964년 3월 3일에 반월국민학교(현 반월초등학교) 둔대분실로 출발하여 1969년 3월 1일에 둔대분교로 승격하였고, 1970년 3월 1일자로 둔대국민학교로 인가되어 그달 13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둔대초등학교 전신인 둔대분실의 설립에는 둔대동에서 세거해 온 청송 심씨 문중 심진억 씨의 공로가 컸다. 둔대초등학교 교정에 세워진 개교 유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다.

고개 넘고 징검다리 내를 건너 먼 길(반월) 걷는 어린이들 애처로워 청송 심씨 찰방공 손 심진억 님 학교 터 주시고
둔대, 속달, 대야미 온 마을 주민들 배움 터 닦아 세운 학교, 고사리 손 돌 줍고 나무 심어 인재배출 이어질 둔대 동
산 열었네.

죽암마을 청송 심씨 문중의 종손인 심규일 씨에 따르면, 처음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원두막 모양의 건물 두 동을 건축하여 둔대분실을 열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길조차 제대로 없어서 주민들에게 추렴하고 이곳에 선대 묘를 이장한 외부 인사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길을 넓혔다고 한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군포초등학교 개교로부터 90여 년 세월이 흘렀으니 군포 지역에서 정규 초등교육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교육에 비해서 중등교육의 역사는 상당히 짧은 편이다.

1950년에 시흥군이 펴낸 『금천지』에는 “남면에는 단기 4252년 고 조중완 씨의 노력으로 설립된 현 군포국민학교가 있을 뿐이다. 해방 전까지는 동면 산본리와 부곡리에 사설강습소가 있었으나 해방 후 양 강습소 아동을 동교에 편입시키어 현재 10학급 편성으로 총 아동수는 903명이다. …… 금년도에 20명이 미취학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학비 부담이 곤란한 극빈아동이다.”라고 하였다.⁵⁾

4) 『軍浦公普 開校式』, 『동아일보』 1920년 4월 27일.

5) 시흥군, 1950, 『금천지』, 193쪽.



1970년대 군포초등학교 전경⁶⁾

이는 1949년경의 상황을 기술한 것인데, 학비 부담으로 초등학교에도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음을 알려 준다. 초등교육마저 이러한 실정이었으니 중등과정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따라서 먼 단위에 불과하던 당시 군포 지역에 중등학교가 생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러한 상황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2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 숫자는 바로 군포 지역 정규 중등교육의 역사를 의미한다. 군포 지역 최초의 중학교는 시흥군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하고 3년이 지난 1982년에 개교한 군포중학교다. 즉, 2009년은 이 학교가 개교한 해로부터 27년이 되는 해이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군포읍이 시로 승격한 1989년 개교한 군포고등학교가 최초다. 이렇다 보니 그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안양이나 수원, 멀리서 서울까지 가야만 했다.

군포 지역처럼 읍이 되고서도 수년이 지나서야 중학교가 생기고 시로 승격할 때까지 고등학교가 없던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군포 지역과 같은 시기에 읍으로, 그리고 시로 승격한 의왕 지역에서는 이미 1984년에 고등학교가 개교한 것과도 비교되는 현상이다.

6) 군포시·군포문화원, 2005, 『군포 옛모습 사진집』, 116~117쪽.

2. 중등교육의 간극을 메워 준 야학과 고등공민학교

군포 지역에서 정규 중등교육의 역사는 짧다. 그렇다고 최초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생기기 이전에 이 지역에서 중등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비록 정규학교는 아닐지라도 이를 대신하여 중등교육을 담당했던 곳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한 곳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야학의 형태였고, 다른 하나는 군포고등공민학교라는 교육기관이었다. 정규 중등교육기관이 없던 군포 지역에서 전자는 1960년대, 후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그 간극을 메워 주었다.

먼저 야학에 대해서 살펴보자.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시설이 전무하던 1960년대에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개설한 야학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그러한 야학들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후 형편상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중학교 과정을 공부했으며, 그들을 가르치던 대학생들은 현재 지역의 원로로서 활동하고 있다. 1960년대 초반에 1년 정도 야학에 다닌 권원혁 씨는 다음처럼 당시를 기억하기도 한다.

군포우체국(현 당동우체국) 넘어 우측으로 조그만 야산이었어요. 공동묘지 있고, 거기 일(-)자 집이 조금 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중학교 못 간 사람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야학을 해 주셨어요. 교액 과외를 받는 것이지. 꿈도 못 꿀 일인데, 거기서 중학교 과정 1년 공부를 했어요. 초등학교 5~6년 선배들이 섞여서 같이 공부했어요. 교사하시던 분들도 많았고, 군포시에서 다 아시는 서정선 씨, 송요태 씨, 유정남 씨, 유창만 씨, 조합장 하는 심재극 씨. 거기서도 무대 연극도 하고 그랬어요. 그전엔 군포가 시골이래서 조그맸어요. 그래도 그걸 한다면 볼거리가 없으니까 동네 어르신네들이 보러 오셨어요. 길 따라 조그만 동네들이었으니까. 저녁에 와서 보구, 거기서 공부 배워서 그 다음 해 중학교에 갔어요.⁷⁾

그 시절의 야학에는 오늘날의 공부방과 유사한 형태도 있었고, 통신을 이용하여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후자의 경우, 군포 지역에는 ‘중앙통신학교 남면분교’라는 이름의 야학이 있었다. 1960년대 초반 당리(현 당동)에 개설되었던 이 야학에서는 당시 재건국민운동본부 시흥군축진회 상임 간사이던 이준기 씨 등이 중앙통신중학교의 통신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다음으로 고등공민학교에 대해 살펴보자. 고등공민학교란 초등교육을 마쳤으나 형편상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령 초과 청소년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교육하던 기관으로, 수업연한은 1~3년이다. 본래는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하기 위해 1946년 「공민학교설치요령」에 의해 설치된 공민학교 내에 보수과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다가 1948년 「고등공민학교 규정」에 의해 고등공민학교로 개

7) 군포시사편찬위원회, 2008, 『도시화 경험 구술자료 조사보고서』, 160쪽.



중앙통신학교 남면분교 1학년 수료식 기념

중앙통신학교 남면분교의 1학년 수료식(1960년대 초반)

편되었다. 고등공민학교에서는 해당 교육과정과 더불어 직업교육을 병행하였다.

군포 지역에서도 1970년대에 군포고등공민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 학교는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역임한 서원섭⁸⁾ 씨가 설립한 군포중학원으로 출발하였다. 군포중학원은 1970년 3월 16일 당시 군포국민학교(현 군포초등학교) 강당을 빌어 제1회 입학식을 거행하였고, 그 일주일 뒤인 23일에 임시교사를 얻어서 교육하다가 6월 22일에 신축 교사로 이전하였다.

군포중학원은 1973년 12월 13일자로 경기도교육위원회로부터 군포고등공민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고등공민학교로 개편하였다. 수업연한은 3년, 학년당 1학급씩 전 3학급, 학급당 50명 전 150명으로 인가되었다. 설립 당시 군포고등공민학교는 인근 소재 5개 초등학교(군포, 안양남, 부곡, 고천, 둔대) 졸업자 중 정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교육 대상으로 설정하였다.⁹⁾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던 군포고등공민학교는 1980년대 중반에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군포사회고등학교로 개편되었다. 군포사회고등학교는 1985년 12월 4일에 설립 인가되었고, 1986년 1월 22일에 문교부 지정 학력인정 교육시설로 인가되었다. 이렇게 개편한 까닭은 1982년에 군포중

8) 서원섭은 대구 출신으로 1936년 일본 와세다대학 고등사업부 영어과를 졸업하고,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중등학교(현 중종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1950년부터 문교부에서 근무하던 중 1963년 미국에 유학하여 네브라스카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 1961년부터 1968년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후 1970년 당시 시흥군 남면 당리에 군포중학원을 설립하고 교장으로 재직하였다(군포사회고등학교, 1987, 『오두물』 제7호).

9) 군포사회고등학교, 1987, 『오두물』 제7호; 경기도교육청, 1973, 『군포고등공민학교 설립인가절』.



군포중학원(이후 군포고등공민학교)의 신축교사 준공식(좌, 1970년 7월 17일)과 체육대회(우, 1974년 10월 3일)¹⁰⁾

학교가, 1985년 산본중학교가 개교하여 고등공민학교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관내 고등학교수의 증가, 전반적인 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진학생수 감소 등의 원인으로 군포사회고등학교는 폐교하였다. 현재 당동 소재 무지개마을베이아파트 옆 공터(당동체육공원)에는 옛 교문 기둥이 하나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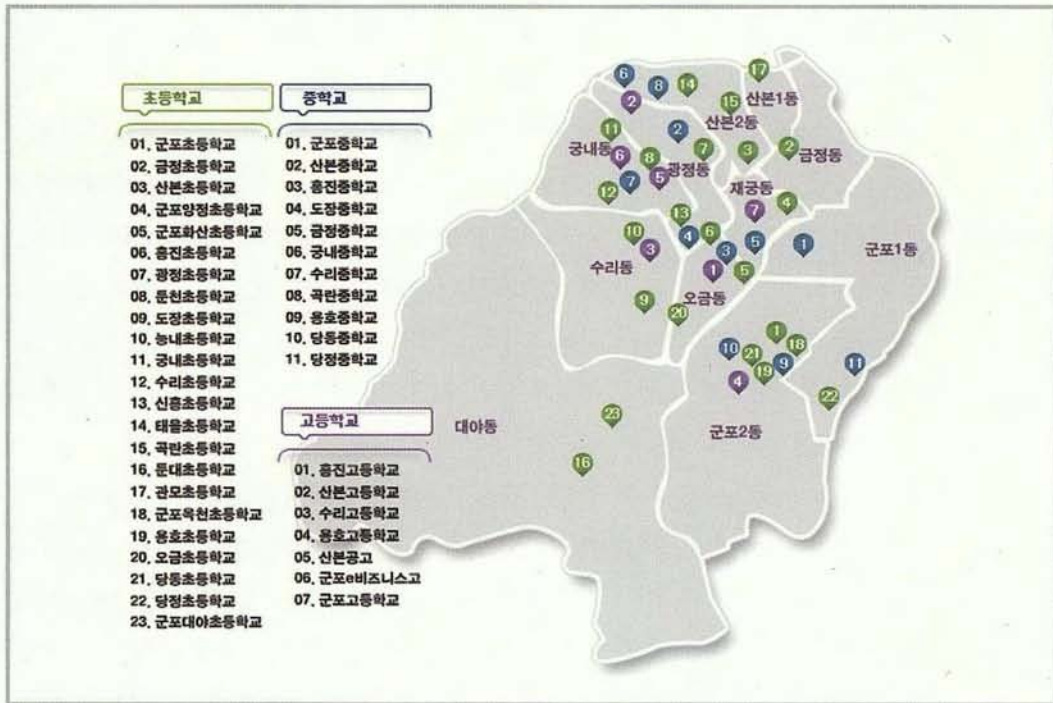
3. 공공교육의 성장과 현황

1) 공공교육의 성장과 주요 사건

군포 지역은 197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군포시 출범 직전인 1989년까지도 학교는 총 7곳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이때까지도 초등학교는 군포초등학교(1920년 개교), 둔대초등학교(1970년 개교), 금정초등학교(1981년 개교), 산본초등학교(1985년 개교), 중학교는 군포중학교(1982년 개교)와 산본중학교(1985년 개교), 고등학교는 군포고등학교(1989년 개교)만 있었다. 이 외에 대학학력 인정교인 순복음신학대학(현 한세대학교)이 있었다.

그러나 산본 신도시 건설로 군포시의 교육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산본 신도시 건설기 군포시의 인구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1989년 말일 기준으로 2만 9,489세대에 10만 4,595명이던 인구는 1995년 말일 기준 7만 8,036세대에 24만 5,190명으로 증가하였다. 6년간 세대수는 약 2.6배, 인구

10) 오두물(<http://cafe.daum.net/gp8888>).



초·중·고등학교 분포도¹¹⁾

는 약 2.3배 증가한 것이다. 그에 따라 늘어난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교도 다수 신설되었다. 1989년과 1995년 사이의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학교수는 3개소에서 16개소로, 학급수는 193학급에서 557학급으로, 학생수는 1만 386명에서 2만 5,254명으로, 교원수는 208명에서 685명으로 증가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수는 2개소에서 8개소로, 학급수는 54학급에서 196학급으로, 학생수는 3,002명에서 1만 214명으로, 교원수는 87명에서 339명으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수는 1개소에서 5개소로, 학급수는 6학급에서 115학급으로, 학생수는 324명에서 4,869명으로, 교원수는 13명에서 224명으로 증가하였다.¹²⁾

산본 신도시 건설로 학령기 아동을 둔 젊은 층이 다수 이주해 오면서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크게 증가하였다. 1989년 군포시 관내 유치원은 공립 3개소, 사립 14개소 등 총 17개소에 35학급이었고, 원아수는 1,075명, 교원수는 39명이었다. 1995년에는 공립 4개소, 사립 34개소 등 총 38개소에 119학급으로 증가하였고, 원아수는 3,808명, 교원수는 128명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현재는 공립 16개소, 사립 25개소 등 총 41개소에 131학급이고, 원아수는 3,071명, 교원수는 207명이다.¹³⁾

11) 군포의왕교육청(<http://www.kengug.go.kr>) '교육청 소개'.

12)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경기도교육위원회, 1989, 『경기교육통계연보』.

13)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경기도교육위원회, 1989, 『경기교육통계연보』.

산본 신도시 건설 외에 군포시 공공교육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교육청의 신설이다. 시 승격 이전까지 시흥군에 속하던 군포 지역의 교육행정은 안양시교육청, 광명시교육청이 담당했으나 1989년 1월 1일 시 승격과 더불어 군포시교육청이 개청하고 제1대 교육장으로 권광옥이 취임하였다. 군포시교육청은 광역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1991년 3월 26일에 경기도 군포교육청으로 개칭하였고, 1992년 5월 20일에 현재의 청사를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2006년 3월 1일에는 다시 군포의왕교육청으로 개칭하였다. 군포의왕교육청 관내에는 2009년 현재 유치원 62개소(공립 25개소, 사립 37개소), 초등학교 34개소, 중학교 17개소, 고등학교 11개소 등 총 교육기관 124개소가 있으며, 그 외에 각종 학원과 교습소 등의 사설교육시설이 있다. 이와 같은 군포시와 의왕시의 교육행정 전반은 2009년 현재 제9대 전세훈 교육장이 총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교육에서 또 하나 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은 고교평준화의 실시이다. 군포시는 시 승격 이후로도 한동안 비평준화 지역에 속하였다. 군포시가 고교평준화 지역이 된 것은 2002년부터이다. 1998년 군포 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고교입시평준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고, 이듬해 2월에 각계를 아우르는 새교육공동체 군포시민연대가 발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운동에는 군포시를 비롯해서 비평준화 지역이던 의왕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등 7개 지역의 연대가 이루어졌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집회를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2000년에 고교입시평준화가 확정되었으나 학생 배정 방식, 특수지 선정과 구역 설정 방안 등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 측이 대립하고 학부모와 시민단체도 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진통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2) 각급 학교 현황

(1) 초등학교

군포시 관내의 초등학교 현황 변화를 시 승격 직전인 1988년부터 3년 단위로 살펴보면, 학교수는 1988년 3개소, 1991년 3개소, 1994년 12개소, 1997년 17개소, 2000년 20개소, 2003년 21개소, 2006년 22개소, 2009년 23개소이다. 2009년 초등학교의 학교수는 1988년 대비 7.7배 증가하였다. 학급수의 경우도 1988년 154학급에서 2009년 650학급으로 4.2배 증가하였다. 학생수는 1988년 9,053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2만 7,897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감소세를 보여 2009년 현재 2만 1,002명이 재학 중이다. 이를 학교수와 비교하면, 1988년 1개 학교당 3,017.7명이던 학생수는 2009년 913.1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교원수는 1988년 168명에서 2009년 908명으로 5.4배 증가하였다.

〈표 1〉 초등학교 현황 변화 추이

(각 연도 4월 1일 현재, 단위 : 개소, 학급, 명)

연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1988	3	154	9,053	168
1991	3	228	11,986	251
1994	12	438	20,707	534
1997	17	597	26,205	736
2000	20	646	27,897	785
2003	21	627	25,823	776
2006	22	643	24,392	855
2009	23	650	21,002	908

출처 :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2009년 현재 군포시 관내에는 1920년 개교한 군포초등학교부터 2009년 개교한 군포대야초등학교까지 총 23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모두 공립이다. 그중 13개 학교가 1990년과 1994년 사이에 개교하였는데, 모두 산본동과 금정동 일부에 건설된 산본 신도시에 위치한다. 법정동별로는 당동에 4개소, 당정동 1개소, 산본동 12개소, 금정동 4개소, 둔대동 1개소, 대야미동 1개소이다. 인구가 적은 부곡동, 속달동, 도마교동에는 학교가 전무하다. 산본동에 많은 초등학교가 밀집한 것은 산본 신도시 개발로 군포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산본동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차로 인하여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학교수에 대한 만족도는 권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08년 군포시의 사회통계조사에서 학교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52.9%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지만, 권역별로는 산본권역이 60.3%, 당동권역이 42.9%인 데 비해서 당정 및 대야권역은 13.3%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이 속한 대야권역이 군포시 전체 면적의 42%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라고는 둔대초등학교가 유일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권역별 차이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수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2009년 군포대야초등학교가 개교하였고,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송정지구에도 학교가 건립될 계획이므로 향후 대야권역 주민의 학교수에 대한 만족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3개 초등학교에는 총 650개 학급에 2만 1,00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908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1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2.3명이다. 학교별로는 총 8학급에 9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둔대초등학교가 11.9명으로 가장 적다. 총 56학급에 1,955명이 재학 중인 군포초등학교는 34.9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둔대초등학교의 2.9배에 달한다. 다음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평균 23.1명이다. 학교별로는 총 95명의 학생에 14명의 교원이 근무하는 둔대초등학교가 6.8명으로 가장 적다. 총 1,061명의 학생에 42명의 교원이 근무하는 광정초등학교가 25.3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둔대초등학교의 3.7배에 달한다.

〈표 2〉 초등학교 현황

(2009년 4월 1일 현재, 단위: 명, 학급)

동	학교명	유형	개교연도	학생수	학급수(특수학급수)	1학급당 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계	23개	공립	-	21,002	650(12)	32.3	908	23.1
당 동	당동	공립	2003	1,306	40	32.7	56	23.3
당 동	군포옥천	공립	1997	608	20	30.4	26	23.4
당 동	군포	공립	1920	1,955	56(1)	34.9	81	24.1
당 동	용호	공립	1997	637	20	31.9	27	23.6
당정동	당정	공립	2003	1,135	35(1)	32.4	47	24.1
산본동	궁내	공립	1994	883	26	34.0	36	24.5
산본동	광정	공립	1993	1,061	31	34.2	42	25.3
산본동	능내	공립	1993	968	29	33.4	40	24.2
산본동	곡란	공립	1994	669	22	30.4	33	20.3
산본동	둔전	공립	1993	1,184	36(1)	32.9	47	25.2
산본동	산본	공립	1985	485	16	30.3	24	20.2
산본동	수리	공립	1994	570	18(1)	31.7	28	20.4
산본동	신흥	공립	1994	877	27	32.5	36	24.4
산본동	태을	공립	1994	941	28	33.6	38	24.8
산본동	관모	공립	1994	721	24(2)	30.0	35	20.6
산본동	오금	공립	1997	837	25	33.5	38	22.0
산본동	도장	공립	1993	611	21(1)	29.1	31	19.7
금정동	군포양정	공립	1990	1,827	54(1)	33.8	74	24.7
금정동	흥진	공립	1991	1,224	36	34.0	50	24.5
금정동	금정	공립	1982	1,248	40(2)	31.2	52	24.0
금정동	군포화산	공립	1991	624	20(1)	31.2	30	20.8
둔대동	둔대	공립	1970	95	8(1)	11.9	14	6.8
대야미	군포대야	공립	2009	536	18	29.8	23	23.3

출처: 경기도교육청, 2009, 『경기교육통계연보』.

(2) 중학교

군포시 관내의 중학교 현황 변화를 3년 단위로 살펴보면, 학교수는 시 승격 직전인 1988년 2개소, 1991년 2개소, 1994년 6개소, 1997년 8개소, 2000년 9개소, 2003년 9개소, 2006년 11개소, 2009년 11개소이다. 2009년 학교수는 1988년 대비 5.5배 증가하였다. 학급수는 1988년 49학급에서 2009년 308학급으로 6.3배 증가하였다. 학급수는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7년 322학급으로 정점에 달한 후 감소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학생수는 1988년 2,842명에서 2009년 1만 1,646명으로 4.1배 증가하였고, 2006년 1만 2,356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학급당 학생수는 1988년 1,421명에서 2009년 1,058.7명으로 감소하였다. 교원수는 1988년 78명에서 2009년 612명으로 약 7.8배로 증가하였다.

〈표 3〉 중학교 현황 변화 추이

(각 연도 4월 1일 현재, 단위: 개소, 학급, 명)

연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1988	2	49	2,842	78
1991	2	68	3,503	133
1994	6	159	7,806	275
1997	8	231	11,501	410
2000	9	259	11,734	458
2003	9	300	11,504	532
2006	11	319	12,356	588
2009	11	308	11,646	612

출처: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1988년 통계는 12월 31일 현재 기준이며, 나머지 연도는 4월 1일 현재 기준이다.

〈표 4〉 중학교 현황

(2009년 4월 1일 현재, 단위: 명, 학급)

동	학교명	유형	개교연도	학생수	학급수(특수학급수)	1학급당 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계	11개	-	-	11,646	308(8)	37.8	612	19.0
당 동	용호	공립 공학	1997	1,351	34	39.7	61	22.1
당 동	군포	공립 공학	1982	573	19(4)	30.2	42	13.6
당 동	당동	공립 공학	2005	935	24	39.0	47	19.9
당정동	당정	공립 공학	2006	493	15(1)	32.9	34	14.5
산본동	도장	공립 공학	1993	1,204	33(2)	36.5	61	19.7
산본동	산본	공립 공학	1985	1,501	38	39.5	75	20.0
산본동	수리	공립 공학	1994	876	24(1)	36.5	48	18.3
산본동	곡란	공립 공학	1994	1,045	27	38.7	54	19.4
산본동	궁내	공립 공학	1994	1,283	33	38.9	70	18.3
금정동	흥진	공립 공학	1991	995	26	38.3	55	18.1
금정동	금정	공립 공학	1993	1,390	35	39.7	65	21.4

출처: 경기도교육청, 2009, 『경기교육통계연보』.

2009년 현재 군포시 관내에는 1982년 개교한 군포중학교부터 2006년 개교한 당정중학교까지 총 11개의 중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는 모두 공립이며 남녀공학이다. 법정동별로는 당동 3개소, 당정동 1개소, 산본동 5개소, 금정동 2개소로 전체 9개 법정동 중 4개 동에만 위치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산본동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데, 1985년 개교한 산본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학교는 모두 산본 신도시 건설기에 신설되었다.

11개 중학교에는 총 308개 학급에 1만 1,64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612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비교하면 학급수는 47.4%, 학생수는 55.5%에 불과하지만, 교원수는 67.4%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1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7.8명으로 초등학교보다 많은 데 비해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0명으로 초등학교보다 적은 데 따른 것이다. 1학급당 학생수를 학교별로 보면, 용

호중학교와 금정중학교가 3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포중학교가 30.2명으로 가장 적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35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61명의 교원이 근무하는 용호중학교가 22.1명으로 가장 많았고, 573명의 학생에 42명의 교원이 근무하는 군포중학교가 13.6명으로 가장 적었다. 용호중학교가 군포중학교에 비해서 1.6배나 많았다.

(3) 고등학교

군포시 관내의 고등학교는 시 승격 이전까지는 전무하였고, 1989년 일반계 사립으로 개교한 군포고등학교가 최초의 학교이다. 고등학교의 현황 변화를 3년 단위로 살펴보면, 학교수는 1988년 0개소, 1991년 1개소, 1994년 4개소, 1997년 7개소였고, 이후로는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9년 현재 학교수는 1988년 대비 7배 증가하였다. 학급수는 1988년 0학급, 1991년 26학급이었고,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6년 306학급으로 정점에 달한 후 최근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감소세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급수 감소에 따른 것이다. 2009년 현재 학급수는 302개 학급이다. 학생수는 1988년 0명, 1991년 1,313명이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수가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고등학교 학생수가 증가한 것은 고교평준화 이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과 중학생수 감소가 고등학생수 감소에 반영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원수는 1988년 0명, 1991년 48명이었고, 2009년 69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표 5〉 고등학교 현황 변화 추이

(각 연도 4월 1일 현재, 단위 : 개소, 학급, 명)

연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1988	0	0	0	0
1991	1	26	1,313	48
1994	4	63	2,799	141
1997	7	181	8,998	387
2000	7	236	10,786	502
2003	7	296	10,016	638
2006	7	306	10,600	673
2009	7	302	11,269	695

출처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 1988년 통계는 12월 31일 현재 기준이며, 나머지 연도는 4월 1일 현재 기준이다.

2009년 현재 군포시 관내에는 1988년 12월에 설립 인가되고 이듬해 3월 개교한 군포고등학교부터 수리고등학교와 용호고등학교까지 총 7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는 모두 주간 남녀공학이며, 그중 일반계가 5개소, 전문계가 2개소이다. 사립학교는 일반계의 군포고등학교가 유일하다.

법정동별로는 당동 1개소, 산본동 4개소, 금정동 2개소로, 입지에 편중이 심한 편이다.

7개 고등학교에는 총 302학급에 1만 1,26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695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다. 1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7.3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6.2명이다. 그중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총 215학급에 8,55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1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9.8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많다. 학생수의 경우, 가장 많은 학교가 40.4명, 가장 적은 학교가 39.2명으로 그 차이는 1.2명에 불과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서 차이가 적다. 교원수는 총 493명이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7.4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많은데, 흥진고등학교가 16.4명으로 가장 적고, 군포고등학교가 19.6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전문계의 경우, 총 87학급에 2,71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1학급당 학생수는 31.2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8.6명이 적다. 교원은 총 202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3.4명으로 일반계의 17.4명에 비해서 4명이 적다.

〈표 6〉 고등학교 현황

(2009년 4월 1일 현재, 단위: 명, 학급)

구분	동	학교명	유형	개교연도	학생수	학급수	1학급당 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합계		7개	-	-	11,269	302	37.3	695	16.2
일반계	소 계	5개	-	-	8,556	215	39.8	493	17.4
	당 동	용호	공립 주간 공학	1997	1,842	47	39.2	110	16.7
	산본동	산본	공립 주간 공학	1994	1,781	45	39.6	101	17.6
	산본동	수리	공립 주간 공학	1997	1,820	45	40.4	106	17.2
	금정동	흥진	공립 주간 공학	1992	1,743	44	39.6	106	16.4
	금정동	군포	사립 주간 공학	1988	1,370	34	40.3	70	19.6
전문계	소 계	2개	-	-	2,713	87	31.2	202	13.4
	산본동	군포e비즈니스	공립 주간 공학	1995	1,587	50	31.7	115	13.8
	산본동	산본공업	공립 주간 공학	1994	1,126	37	30.4	87	12.9

출처: 경기도교육청, 2009, 『경기도교육통계연보』.

군포시 관내 2개의 전문계 고등학교에는 총 10개 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중 1994년 개교한 산본공업고등학교에는 ‘폴리모터스’, ‘e-제어시스템’, ‘응용화학’과, ‘금형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가 설치되어 있다. 1995년 개교한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에는 ‘전자상거래’과, ‘e-비즈니스’과, ‘물류유통’과, ‘인터넷정보’과, ‘시각디자인’과가 설치되어 있다. 이 학교는 2008학년도까지는 군포정보산업고등학교를 교명으로 사용하였으나 2009학년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4) 대학교 및 대학원

군포시 관내의 대학교로는 군포시 당정동 604-5번에 위치한 한세대학교가 있다.¹⁴⁾ 한세대학교

14) 한세대학교 및 한세대학교대학원에 관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http://www.hansei.ac.kr/index.asp>)를 주로 참조하였다.

는 1953년 5월에 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조동에 설립되었던 순복음신학교가 모태이다. 1979년 2월 시흥군 군포읍 당정리 604-1외 2필지를 부지로 하여 이전하였고, 1981년 12월 26일에 학교법인 순복음학원의 설립인가 및 각종학교인 4년제 신학교 인가를 받았다. 1985년 1월 8일에 4년제 대학 학력 인정교로 승인을 받았다. 1990년 11월 28일 정규대학으로 승격하면서 교명을 순복음신학대학으로 변경하였다. 1991년 11월 2일 신학대학원(신학 전공) 개설이 인가되었고, 1993년 3월 1일 순신대학교로 승격하여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다. 1997년 9월 4일에는 현재의 교명인 한세대학교로 개칭하였고, 2003년 2월에는 학교법인의 명칭을 기존의 순복음학원에서 한세대학교로 변경하였다. 2009년 4월 1일 현재 신학부, 미디어영상학부, 경영학부, 인문사회학부, IT학부, 음악학부, 디자인학부 등 7개 학부에 2,56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외에 교양학부가 있다. 총장은 2006년 6월부터 김성혜가 맡고 있다. 자매결연 혹은 교류협정을 맺은 학교는 국내의 31개 대학이다.

군포시 관내의 대학원으로는 한세대학교대학원이 있다. 한세대학교대학원은 본래 1991년 11월 2일 순복음신학대학대학원으로 인가되어 신학 전공이 설치되었다. 그 후 교명 변경에 따라 1993년 3월 1일 순신대학교대학원으로 변경되었고, 1994년 10월 21일 일반대학원의 신설이 인가되면서 일반대학원이 설치되고 신학대학원에 종교음악과가 신설되었다. 1997년 9월 4일 교명 변경에 따라 한세대학교대학원으로 개명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1999년 11월 2일에는 신학 전공과 음악과에 박사과정이 인가되었고 사회복지대학원 신설이 인가되었으며, 11월 19일에는 교육대학원의 신설이 인가되었다. 2000년 7월 18일에는 공학과 박사과정과 목회전문대학원·피아노페다고지대학원 신설이 인가되었다. 2002년 10월 30일에는 경찰법무대학원의 신설도 인가되었다.

2009년 4월 1일 현재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과 8개의 특수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대학원의 개설학과는 신학과, 음악학과, IT학과, 경찰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시티IT산업정책학과 등 6개 학과이며, 모든 과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석사과정인 특수대학원에는 영산신학대학원(신학과), 교육대학원(교육학과),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과), 피아노페다고지대학원(피아노교수학과), 경찰법무대학원(경찰학과, 법무학과), 친환경디자인대학원(시각정보디자인학과, 공간환경디자인학과), 경영대학원(경영학과), 상담대학원(상담학과) 등 8개 대학원이 운영 중이다. 대학원장은 2006년 11월부터 조동업이 맡고 있으며, 11명의 전공주임교수가 있다.

한세대학교와 한세대학교대학원에는 2009년 4월 1일 현재 3,44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103명의 교원과 58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그중 대학원 재학생은 일반대학원 208명, 특수대학원 673명 등 총 881명이다. 부속기관으로는 도서관, 평생교육원, 생활관, 한세글로벌교육원, 한세국제교류원, 한세한국어학당 등과 군포시의 위탁을 받은 창업보육센터가 있다. 부설기관으로는 영상신학연구소, 음악치료센터, GEMI센터, 학교기업이 있고, 기타 기관으로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다.

4. 사설교육과 대안교육의 현황

공공교육과 함께 사설교육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2009년 7월 31일 현재 군포시 관내에는 총 442개의 학원과 237개의 교습소가 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학원의 유형에는 보습이 205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악 93개소, 외국어 52개소, 미술 28개소 등의 순이다. 교습소의 유형에는 피아노가 67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술 46개소, 수학 44개소, 영어 38개소 등의 순이다.

〈표 7〉 학원 및 교습소 현황

(2009년 7월 31일 현재, 단위 : 개소)

학원						교습소			
유형	학원수	유형	학원수	유형	학원수	유형	교습소수	유형	교습소수
계	442	미술	28	웅변	3	계	237	사회	1
간호	2	미용	3	음악	93	과학	1	서예	14
건축	1	바둑	4	입시	15	국악	1	수학	44
고시	3	보습	205	전자	1	국어	12	영어	38
공예	2	속셈	4	종합	10	글쓰기	3	컴퓨터	3
국악	1	식음료	1	직업기술	1	미술	46	피아노	67
만화	1	연기	1	컴퓨터	5	바둑	4	바이올린	3
무용	6	외국어	52						

출처 : 「군포시·의왕시 학원 교습소 현황(2009.7.31 현황)」, 군포의왕교육청(<http://www.kengu.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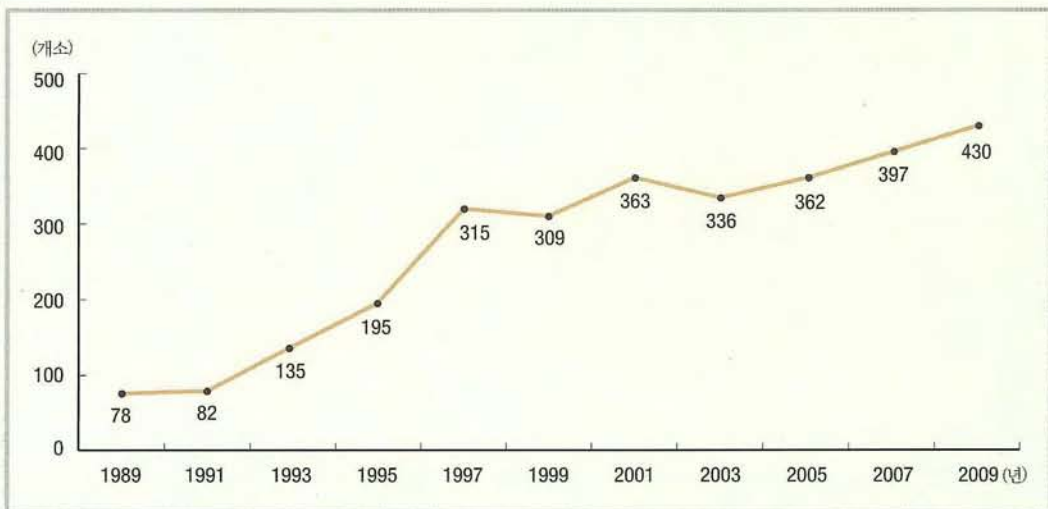
비고 : 원 자료에는 독서실이 학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학원과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이처럼 그 수나 유형에서 크게 성장한 군포시의 사설교육이지만, 1980년대 초반에는 학원이라고 해야 불과 몇 곳에 불과하였다. 1983년경에는 학원 두 곳만이 존재했는데,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산경리학원이었다고 한다.

83년도쯤 성광주산학원과 군포주산학원, 두 개가 군포 최초의 학원이었죠. 고등학생 대상 경리학원이었어요.

당시는 시흥군이 교육청이 광명시에 속해 있어서 학원연합회도 함께 만들었어요. 연합회는 과천·의왕까지 함께 포함돼 있었구요. 90년대는 주로 초등학생 대상이었는데, 법으로 과외금지가 돼 있어서 학과목은 지도를 못했어요. 주산, 부기, 타자나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만 가르칠 수 있었어요. <김갑철(군포시학원연합회 초대회장) 제보>

1987년 정부가 기존의 과외금지조치를 완화하여 재학생의 학원 수강을 허용하고 군포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차 학원 등 사설강습소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9년에는 총 78개의 학원이 개설되었다. 이후 그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91년 82개소, 1993년 135개소, 1995년 195

학원수의 변화 추이¹⁵⁾

개소, 1997년 315개소로 늘어났다. 특히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다른 기간에 비해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1995년 5월에 정부가 대학생의 개인과외금지를 해제하는 것과 함께 보습학원을 허용한 것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전에는 기술학원이나 전문학원 등 평생교육 관련 학원의 비중이 컸던 데 비해서 이후로는 점차 입시나 학교 수업을 보완하는 보습학원 등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한편, 군포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안교육의 성장이 미약한 편이다. 공동육아 등을 통해서 축적된 역량은 대안학교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아이들을 공동으로 키운다’는 의미의 공동육아에서는 부모들이 교사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거나 시설 운영의 주체로 참여한다.¹⁶⁾ 그런 만큼 교육 과정이 기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연장선상에 대안학교가 자리하게 된다.

2009년 현재 군포시 소재 대안학교로는 산울어린이학교가 있다.¹⁷⁾ ‘산울’이란 ‘살아 있는 교육 울타리’라는 의미다. 이 학교는 ‘공동체성을 살리는 학교’, ‘자율이 문화가 되는 학교’, ‘온전한 인성을 지향하는 학교’, ‘교사, 학생, 부모가 함께 자라가는 학교’를 교육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 과정은 언어·철학·논리교육 등이 중심인 ‘기초교과’, 생태·역사문화체험 중심의 ‘탐구교과’, 각종 놀이교육 중심의 ‘표현교과’, 공동체생활과 자치활동 등으로 이루어진 ‘생활교과’, 품성·감성교육 중심의 ‘인성교과’로 이루어져 있다.

15) 군포시, 『통계연보』 각 연도.

16) 군포시에서 공동육아는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다. 2001년 개원한 김나무어린이집을 시발로 온유솔레, 초록빛바다어린이집, 꾸러기유아학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17) 산울어린이학교 관련 주요 내용과 사진은 산울어린이학교의 인터넷카페(<http://cafe.naver.com/kidshope>)를 참조하였다.



산울어린이학교의 야외수업(좌)과 표현교과수업(우)

산울어린이학교는 꾸러기유아학교에서 공동육아를 경험한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하였다. 꾸러기유아학교는 군포시 산본동의 남서울산본교회 신자들 중 공동육아에 관심을 가진 부모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육아 및 교육’, ‘교육의 1차적 책임자로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역할 회복’,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교육’ 등을 목표로 2003년 4월 설립하였다. 그 후 이 공동육아에 참여한 부모들이 2005년부터 초등대안학교 설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그해 11월에 설립 계획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스터디와 자녀들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2006년 6월에는 학교설립을 위한 학부모회의를 개최하여 부모교사를 중심으로 방과후 학교로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명칭을 ‘산울초등학교’로 정하였다. 그리고 2007년 8월에는 속달동에 학교시설을 마련하였고, 9월 3일에 개교 후 9월 15일에 산울어린이학교 입학식을 가졌다. 이후 교사로 사용할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9년 8월에 입주하였으며, 25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제3장 청소년정책과 지역사회교육

이영희 | (사)탁틴내일 공동대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에 관한 모든 공공정책을 이야기한다. 궁극적으로 청소년을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현재의 권리와 행복이 유보되는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조성하며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¹⁾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평생교육과 청소년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사회교육이란 학교에서 행하는 정규학습을 제외하고, 학교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기초교육, 보충교육, 추가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통하여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의도적 및 체계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 글에서는 청소년정책과 교육의 문제를 사회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지역사회교육으로 내용을 제한하였다. 이 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만 9세 이상에서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만 19세 미만, 즉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연령층을 의미한다.

1)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75쪽.

2) 김남선, 2006(34세), 『지역사회교육론』, 형설출판사, 37쪽.

1. 청소년정책과 지역사회교육의 변화

1) 지역사회교육의 태동

(1) 청소년 관련 위원회 설치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는 토대인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사회생활이 전개되는 무대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육적 작용을 하고, 그들에게 직접 교육을 행하는 장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문화적·인간적 자원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미래의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청소년운동의 기본 단위로, 지역적 유대감이나 소속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곳이다.³⁾ 한편, 시민사회에서의 사회교육은 행정전달체계를 통해 체계화되기 이전에 단체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문제로부터 출발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운동과 함께 전문화되어 왔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은 민간단체와 주민, 학부모가 함께 청소년의 욕구에 기초하여 지원운동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러한 지원운동은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기본 바탕이 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교육은 1993년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추진으로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는데, 그 단초는 1983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3년 4월 대구시 향촌동에서 일어난 디스코홀 화재사건에 이어 1984년 2월 서울시 석관동 맥주홀 화재사건으로 다수의 청소년이 사망했다. 이들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대통령비서실에 청소년종합대책반이 설치되었다. 이로써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위기청소년 관리에 있었다.

청소년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관심과 정책 추진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시작되었다. “국가
는 ……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4조 4항에 의거하여 1987년 12월에 ‘청소년 육성’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표현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 6월에는 체육부 청소년국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어 1990년 1월 대통령이 체육부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에 관한 장기 10년 계획의 수립의견’을 표명하면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는 기존의 문제청소년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전체 청소년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장기적·조장적·종합적 정책 모색으로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청소년육성의 내용도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복지·환경·비행·상담 등 일곱 가지 분야로 세분화되었다.⁴⁾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청소년육성법」을 폐지하고 1991년 12월에

3) 박종화, 2007,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교육특구 운영 모형 : 경기도 군포시 사례」,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쪽.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993년 「청소년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1993~1997)이 시행되었다.

(2) 임시적·산발적 지원과 지역사회교육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정책 추진에 발맞춰 군포시도 시 출범 직후인 1989년 2월에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의 위원으로 72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⁴⁾ 그러나 1990년대 중반까지도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교육 시스템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드물게 교육행사나 청소년 행사가 열리는 정도였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군포 시립도서관에서 1995년부터 도서관장실을 청소년상담실로 활용하다가, 1996년 2월 1일 전국의 공공도서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상담실을 개소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 일이다.⁶⁾

관장실을 ‘청소년상담실’로 대치했다. 자존심 때문에 학교나 경찰서의 상담실의 이용을 꺼리는 학생들의 접근이 자연스러운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의 교육과 진학 상담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성문제, 폭력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청소년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⁷⁾

이 시기에는 복지 분야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과 시스템이 조금씩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엘림복지원에서 비진학 청소년을 위해 자동차정비·가구·지수·니트·헤어디자인교육 등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으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 직업학교는 서울시민의 입학울 우선하는 문제점이 있었다.⁸⁾ 이에 비해서 1995년 5월 11일 개관한 가야종합사회복지관은 그해 6월 5일부터 관할 지역 중·고생에게 건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개별 학습지도를 하는 청소년독서실(현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함과 동시에 심리적성검사 등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가야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라서 워낙 집이 좁아, 실 평수 6평 정도로, 청소년들은 자기 공부방이 없었고, 시립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야 하는데, 당시 5단지 교통이 불편해서 아이들에게 단지 내 복지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학습지도도 하고 대학생들이 아이들이 모르는 것 질문도 받고 가르치기도 하고, …… 공부방만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2009년 3월 28일, 김기태 가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제보>

4)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196~210쪽.

5) 군포문화원, 2000, 『연표로 보는 군포 역사』, 112쪽.

6) 군포문화원, 2000, 『연표로 보는 군포 역사』, 333쪽.

7) 김인수, 「김인수가 만난 군포사람들(24)-현경호 자치행정국장」, 『군포신문』, 2008년 7월 7일.

8) 「비진학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교육 필요」, 『군포문화신문』, 1995년 7월 24일.

군포시는 2001년에 ‘평생학습도시 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계획에서는 2003년의 계획목표로 ‘청소년 문화육성’을 설정하고, 그 중점과제로 ‘청소년 문화사업 활성화’, ‘다양한 학습 내용·방법 개발’, ‘지역 사랑하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2009년 4월부터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군포시의 평생교육 추진의 역사는 이보다 시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군포시에서는 「사회교육법」(현 「평생교육법」)에 의거, 1997년 10월 11일에 「군포시 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당시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의 지역사회교육을 위한 공공조직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군포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가야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공부방 활동⁹⁾

〈표 1〉 지역사회교육 태동기의 주요 성과

시기	내용
1990. 12. 8.	12월 27일까지 군포시 관내 중고생·군포청소년대상 순회성교육 실시
1990. 12. 15.	청소년선도대행반 발대식 개최(장소: 군포시의회 사무실)
1991. 5. 11.	제19회 성년의날 기념식 및 청소년어울마당 개최(장소: 군포국민학교 실내체육관)
1991. 11. 29.	청소년어울마당 개최(장소: 엘림복지타운)
1992. 1. 19.	2월 1일부터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게 위탁기술교육 실시(장소: 관내 직업훈련원)
1992. 1. 29.	군포시 새마을부녀회 주최 겨울방학 축제 청소년어울마당 개최(장소: 시청 앞 허리우드극장)
1995. 1. 13.	2월 7일까지 청소년윤리교실 설치 운영
1995. 3. 29.	4월 17일까지 청소년 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전문학생 모집
1995. 4. 12.	구 산본유아원(산본동 80-8)에 청소년 무료공부방 개설
1995. 9. 30.	군포시립도서관에서 청소년예절교실 개강
1995. 10. 17.	제1회 군포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장소: 시청 대회의실)
1995. 12. 22.	군포문화원 주최로 관내 초·중생 및 관계자 176명이 강화도 보문사 일대 문화유적지 답사 실시
1996. 1. 8.	군포시립도서관에서 1월 31일까지 국민학생 겨울독서실 운영
1996. 2. 1.	군포시립도서관에서 청소년상담실 설치 운영, 군포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1997. 10. 11.	「군포시 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 조례」(조례 제491호) 제정·공포
1997. 10. 14.	모자가정 수련회 개최
1998. 1. 5.	군포시립도서관에서 1월 10일까지 관내 17개 초등학교 5학년 대상 겨울독서실 운영
1998. 3. 2.	7월 8일까지 청소년무료사회교육 실시 컴퓨터·바둑 등 10개 과목 ¹⁰⁾

출처: 군포문화원, 2000, 『연표로 보는 군포 역사』, 172~405쪽.

9) 「포토갤러리」, 가야종합사회복지관(<http://www.gayawel.or.kr>).

10) 「청소년 무료 사회교육 실시」, 『군포문화신문』 1998년 2월 12일. 이 기사에서는 “초등 4년생 이상 350명을 대상으로 한문, 미술, 컴퓨터, 바둑, 문학, 영어 등 10개 과목을 20주간 실시하며 무료이다. 199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고 하였다.

이 조례는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97년 12월 지역에서 공공조직에서 사회교육 제공은 거의 전무였죠. 확실히 하자면 학원이 대행해 줬죠. 그래서 그 당시 사회교육법안에 학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체능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기회가 공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주창했었던 거예요. <2009년 3월 10일, 최진학 경기도의회 의원(1997년 당시 군포시의회 의원) 제보>

2) 지역사회교육의 전개

(1) 청소년 보호와 문화공간의 필요성 제기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교육은 '제2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1998~2002)' 기간을 거치면서 활성화된다. 이 시기의 청소년정책은 사회구성원인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청소년 참여 등에 관심을 두면서, 예방적 관점에서 다수의 건강한 청소년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였고, 동시에 청소년 보호업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PC통신의 발달로 음란물 유통과 음주·흡연·약물·유해업소 등의 유해 환경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97년 7월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같은 달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구성된다.¹¹⁾

한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고 초대 민선시장(조원국, 1995년 7월 1일~1998년 6월 30일)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시에서도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며, 청소년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¹²⁾ 특히 1997년 11월에는 군포시에서도 1998년부터 관내 유해업소마다 미성년자 옐로카드제 실시 방침을 발표하였다.¹³⁾ 또한 1997년 11월에 시민단체인 군포시민의모임이 '청소년의식 조사'와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청회를 열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놀이공간의 확보와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산본 중심상가에 늦은 시간에 다니는 많은 청소년을 붙잡고 여학생들에게 "뭐 해요?" 하니깐 "노래방 가서 놀아요, 재밌어요. 술도 먹을 수 있고". 남학생들에게 "왜 중심상가 나오느냐?"고 하니깐 "학교에 있기는 싫고, 여자애들 꼬일 수가 있어요. 사랑(연애)해요."라고 하고, "어디 가요?" 하니깐 "갈 데가 어딴데요. 거리에서 방황하고 카페에 들어가고 뭐." 하는 식이었죠. 발표할 때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반응이

11)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212쪽.

12) "시청에서 함께 나왔던 과장하고 조원국 시장이 당시 청소년분야 담당계장에게 '청소년 대책이 뭐가 있냐?' 했는데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고 거기에 저희도 놀랐죠.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공연기획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고, 락페스티벌 형태로 했는데 네 팀 정도 참여했지만 아이들은 아주 좋아했어요."(1997년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 당시 신명철 군포시민의모임 기획팀장과의 인터뷰).

13) 군포문화원, 2000, 『연표로 보는 군포 역사』, 385쪽.

있었어요. '지역에 진짜 문화시설이 없구나.' 하는 거였어요. <2009년 3월 7일, 신명철 1997년 당시 군포시민의모임 기획팀장 제보>

당시 군포시는 비평준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입시는 매우 중요하였다. 이에 1997년 '고교입시 평준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서명운동을 벌이고 경기도교육청 앞 집회와 농성 등을 벌였다.¹⁴⁾ 그 결과, 2000년 고교입시 평준화가 확정되고 2002년부터 실시되었다. 이로써 군포 지역 중학생들은 그나마 고교 입시의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12월부터 2000년까지는 국가적으로 IMF 금융위기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고 가정이 파괴되거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혼란을 겪는 시기이기도 했다. 청소년의 음란물 유통 문제도 심각했고, 일명 '원조교제'¹⁵⁾라는 말이 TV 뉴스에도 자주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우성' 운동이 확산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성문화대책위원회와 여성단체 등이 '10대 매매춘 상대자 신상공개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2000년 2월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군포에서도 군포시민의모임이 1998년 12월에 '청소년 성문화실태 조사'를 발표하면서 부모의 성교육과 청소년 쉼터·상담소 개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을위한안양내일여성센터'에서 활동하던 군포 지역 회원들은 1998년 10월에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자녀성교육'을 주제로 '아우성' 특강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는데, 당시 1,300여 명이 모일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 이는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도움받고자 하는 부모들의 욕구가 분출된 것이다. 그 이후 군포시에서는 민방위교육에서 아버지 대상 자녀성교육을 하게 되고, 성보호법 제정 서명운동에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 특강을 통해 학부모들의 참여 열기를 확인한 군포 지역 회원들은 1999년 1월 14일 '청소년을위한군포내일여성센터'를 창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군포시와 지역청소년단체들의 협력으로 1999년 5월 22일에 지역 최초의 대규모 청소년문화축제인 '청소년뮤직페스티벌-아·우·성'이 개최되었고, 11월에는 '학생의날'



군포아우성상담소 개소기념 아우성 특강(1999년 10월)

14) 김영미 군포시민의모임 공동대표 제보(2009년 3월 29일).

15) 원조교제란 일본에서 들어온 말로,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돈이나 편의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에는 '서로 사귀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사회의식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기념 제1회 군포시 청소년 한마당-1318 파이팅' 행사가 열려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교류와 교육의 장이 되었다.

한편, 2002년 5월에는 산본역사 내에 위치한 경륜장 장외매장(산본스피드존)에 대해 '사행심 조장 및 주변 지역 슬럼화, 청소년교육에 악영향'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소년이 접할 수 없는 부도심지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청소년단체가 주축이 된 시민단체협의회에서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였고, 문화관광부로부터 계약만료 시 이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산본역사의 임대보증금 지급의 어려움 등으로 그 실행이 어려워, 경륜장 장외매장의 이전 여부는 여전히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¹⁶⁾

(2) 시민단체의 창립과 지역사회교육

제2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1998~2002) 시기에는 지역의 청소년단체 외에도 여러 시민단체가 설립되면서 관련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은 쓰레기소각장(현 군포환경관리소) 이전 운동이 그 바탕이 되기도 하였으며, 회원의 청소년 자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작하기도 하였다. 또 안양·군포·의왕을 포괄해서 활동하던 단체들도 군포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느끼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러한 활동에 참여한 이들은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기도 한다.

'97년에 시작할 때 생태가 뭔지 처음 시작이니까 미약하고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게 참 힘들었죠. 그 당시는 이런 자연학교라는 게 없었고 교육단체가 없었으니까. 어른들(안내자) 교육하면서 아이들 교육도 같이 했어요. <2009년 2월 9일, 이금순 수리산자연학교 대표(1997년 당시 환경자치시민회 공동대표) 제보>

안양YMCA는 유아·어린이·청소년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안양 바운더리가 안양·군포·의왕으로 너무 넓었어요. 1992년 금정동에 안양YMCA 군포프로그램센터를 개원하고 아기사포츄단, 어린이 지도자클럽, 고학년 영어클럽, 역사기행 등 신체발달이나 전통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하는 계절방학캠프 등을 하게 되었죠. <2009년 3월 28일, 박은호 군포YMCA 사무총장 제보>

본래 안양에서 군포의왕교육청이 분리되고 전교조도 합법화되면서 커지니까 지회 분할을 강력히 주장했지요. 다른 지회에 비해 지역사회활동도 같이, 평준화운동부터 학생의날 행사 등 처음부터 시민단체와 학부모와 함께 한다는 기조로 <2009년 3월 28일, 조성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군포의왕지회장 제보>

16) '산본 경륜장외매장 이전 촉구', 『군포시민신문』 2003년 7월 2일; 「피해만 주는 경륜장, 빨리 떠나라」, 『군포신문』 2008년 9월 29일.

(3)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시의 청소년 육성 정책

군포시는 민선자치 1기부터 청소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민선 자치 2기(김윤주, 1998년 7월 1일~2002년 6월 30일)가 출범하면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제반 정책을 시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이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1999년 3월에는 시청 앞 도로를 '차없는거리'로 만들어 군포시 축제한마당을 열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공간, 축제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¹⁷⁾

또한 2000년에는 두 개의 청소년시설인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과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하였다. 이는 교육받고 여가를 즐기고 정보를 교류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활동하고 스스로 배워 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습의 공간이자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 시설의 건립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 시설에서는 2005년부터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 운영이나 프로그램 기획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시설운영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토론회 등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로써 지역 내에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축제, 캠프 등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지역 사회교육의 장이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시가 이 두 시설을 지역의 청소년단체들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은 모범수련 시설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은 전국 160여 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을 대상으로 한 운영평가에서 16위, 경기도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2002년 10월에는 경기도 최초로 시청에 청소년과가 신설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펼쳐 나갔다. 그해 11월에는 온누리복지재단이 운영하던 쉽터가 지역의 공공 청소년 일시보호 쉽터인 '하나로 군포시청소년쉽터'로 개소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양·수원 등 타 지역 쉽터에 보호를 의뢰하던 청소년들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¹⁸⁾ 이러한 정책 추진의 결과, 12월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관한 '청소년 업무 지방행정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당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청소년 전담 '청소년과'를 신설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위한 시의 노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되었다.¹⁹⁾

17) 군포문화원, 2000, 「연표로 보는 군포 역사」, 437쪽; 「신도시 리포트- 산본 신도시 차없는거리」, 『동아일보』 1999년 5월 3일.

18) 「가출·학교 부적응 청소년 위한 쉽터 제공」, 『군포시민신문』, 2002년 11월 21일.

19) 「군포시, 전국 제1의 청소년도시」, 『인양군포의왕과천 내일신문』 2003년 1월 3일.

3) 지역사회교육의 확산

(1) 시설 확충 및 청소년 위기지원 강화

지역사회교육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 기간이다. 군포시는 2001년 평생학습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사업의 목표를 청소년문화육성으로 설정하였고, 2004년 6월에는 시청 앞에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을, 8월에는 충청남도 청양군에 군포시청소년수련원을 개관하였다. 이로써 청소년 성장지원을 담당할 기본적인 공공시설을 갖추었으며,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과 강좌가 더욱 확장되었다.



군포시의 대표적 청소년시설인 청소년수련관(좌)과 청소년수련원(우)

이처럼 청소년 분야를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군포시는 2004년에 대한민국 청소년육성대상 기초자치단체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청소년 시책이 가장 앞선 도시로 평가되었다.²⁰⁾ 또한 2004년에는 관내 전체 동사무소(현 주민센터)의 생활과학교실 운영, 초·중·고등학교의 '청소년과학탐구반(YSC)' 운영, 청소년수련관의 항공과학프로그램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와 아울러 2005년 군포시의 '21세기 우수인재양성 100대 프로젝트' 수립 및 '청소년교육특구' 지정은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교육의 확장된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한편, 2004년 2월에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고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청소년 관련 부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으로 이원화되어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여론수렴을 거쳐 청소년 보호와 육성으로 이원화되었던 업무를 통합하여 2005년 4월 27일 '청소년위원회'를

20) 군포시, 2008, 『시정백서』, 370쪽.

발족하였다. 이때 청소년 ‘푸른 성장’을 정책비전으로 세우고 위기청소년의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게 된다. 청소년위원회는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7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내의 아동청소년정책실에 흡수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군포시에서는 2006년부터 청소년수련관과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청소년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인 ‘CYS-net’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하나로 군포시청소년쉼터’가 중장기 쉼터로 전환되어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가출한 청소년들에 대한 한층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2)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과 청소년 지원운동

군포 지역에서는 2006년 2월, 오래 전에 논의된 후 진전되지 않았던 ‘군포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을 위해 청소년을위한군포내일여성센터(현 군포탁틴내일), 군포시민의모임, 군포YMCA, 전교조 군포의왕지회가 중심이 되어 준비회의를 열고 준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민선 4기(노재영, 2006년 7월 1일~2010년 6월 30일)가 시작하면서 청소년과를 폐지하여 사회과로 흡수하는 행정기구 개편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군포 지역 청소년단체들은 그해 9월에 시장과 면담하고, 이어서 ‘청소년과 폐지 반대’ 및 ‘군포시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였다. 시는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아동청소년과’로 개편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최종 제출하여 통과되었다.

한편, 2007년 8월에 광역자치단체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6년 9월 22일) 시행(2007년 9월 23일)에 맞춰 심야학습시간(심야 학원수업 가능 시간 등)을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거나 시도의회의 의결절차만 남겨 둔 상태였다. 군포 지역 청소년단체들은 11월 11일 학생독립운동기념 군포시청소년한마당 기념식 후에 ‘군포청소년단체협의회 출범식’과 더불어 ‘청소년심야학습 제한’ 토론회를 열어 밤 10시까지로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그 후 경기도교육청 앞 캠페인과 군포시에서 시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군포청소년단체협의회는 2007년에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하여, 수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받는 시설관리공단이 예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적법하지도 않음을 제기하며 반대운동을 진행하였다.²¹⁾ 그 결과, 해당 조례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으나 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운영하는 중이다. 또한 2008년 2월 임기 만료인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선임에 대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법적 자격요건²²⁾을 지닌 책임자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도록 제안하고 이사

21) 「시민합의 없는 시설관리공단 전면 유보해야」, 『군포시민신문』 2007년 11월 28일

2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와 제16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으로 청소년 육성업무 경력을 포함하여 7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회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그해 2월 공개모집을 이끌어 내었다.

2. 지역사회교육의 주체와 내용

군포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교육의 주제는 주로 문화예술, 생태환경, 봉사과 협력, 성(性), 과학, 진로, 교류, 건강, 안전 등의 분야이다. 여기서는 청소년 대상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른 조직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련 단체와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청소년사업 중심의 기관·단체

청소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는 주로 시립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문화예술단체가 포함되며, 관련 청소년단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이용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군포시청소년수련원,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당동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여기에 속하는 시설들이다.



청소년의 진로 선택을 위한 '멘토와의 만남과 직장체험'

〈표 2〉 청소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현황

유형	명칭	설립시기	운영현황
청소년 시설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2000. 1. 19.	• 축제(연극, 마술, 합합), 동아리활동과 축제, 자치활동, 체험활동, 청소년기자단, 자원봉사학교, 방과후아카데미 • 운영주체 : 청소년을위한군포내일여성센터 (2000. 9.5.~2007), 좋은친구들(2008~현재) 운영
	당동청소년문화의집	2000. 9. 5.	• 축제(만화, 락), 동아리활동과 축제, 자치활동, 청소년기자단, 문화예술봉사단 • 운영주체 : 교육자치를위한군포시민의모임
	군포시청소년수련관	2004. 6. 1.	• 교육·문화·체육 등 강좌, 청소년동아리, 장애아동·청소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수상안전 응급처치, 성문화센터, 전통문화교육관, 문화광장 '기씨', 항공우주과학체험, 경기과학축제, 청소년어울마당, 자치활동, 청소년기자단, 도농청소년캠프, 해외뮤지컬영어캠프, 말레이시아청소년 국제교류, 방과후아카데미
	군포시청소년수련원	2004. 8. 16.	• 생태체험, 학생수련활동, 청양문화체험캠프, 리더십 청소년 임원 수련, 영어캠프, 과학캠프
청소년 단체	교육자치를위한군포시민의모임	1992. 11. 7.	• 역사기행 및 박물관 답사, 문화봉사단, 락축제
	청소년을위한군포내일여성센터 (현 군포탁틴내일)	1999. 1. 14.	• 성문화, 학교폭력 예방, 동아리, 연극·합합 축제, 진로상담 및 탐색,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유해환경모니터링, 민주시민교육, 청소년인권 등)
청소년 문화예술 단체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챔버오케스트라	1996. 2. 1.	•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한국합창제, 청소년열린음악회, 정기연주회(연 2회) 등 • 연혁 : 1993년 군포소년소녀합창단으로 창단, 1996년 시립으로 전환, 2001년에 합창단 내에 챔버오케스트라 구성
	군포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	2003. 5. 29.	• 전문 관악 연주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군포시, 1999, 『군포시사』; 각 기관·단체의 사업보고서 및 홈페이지.

2)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 기관·단체

위기청소년(At-risk Youth)이란 사회적 안전망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탈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이 처하는 위기상황은 가족적·교육적·개인적·사회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가족적 위기상황은 빈곤·폭력·가족해체 등에 의해, 교육적 위기상황은 학업부진과 학업중단 등에 의해, 개인적 위기상황은 가출·범죄·약물·폭력 등에 의해, 사회적 위기상황은 실업이나 범죄 등에 의해 발생한다. 군포시에는 WE Start 마을을 비롯하여 위기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표 3〉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 기관·단체 현황

명칭		설립시기	운영현황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994. 7. 15.	• 상담, 위기청소년 지원, 또래상담자 훈련, 셀프 리더십, 리더십 체험, 아이디어학습, 통합예술치료, 진로(학업중단청소년 포함), 학교폭력 및 부적응치료 • 운영주체 : 1995년 군포시립도서관 내 '군포청소년상담실'로 개소(군포시 직영), 2004년 6월 30일부터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 운영 • 특징 :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 후 상담중심기관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인 CYS-net 운영주체로서 위기지원사업과 상담사업을 결합
한무리 사랑나눔회		1996. 2.(2003. 10. 8. 등록)	• 저소득층 공부방 및 지원
가야청소년공부방		1995. 6. 5.	•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지원 • 운영주체 : 가야종합사회복지관
하나로 군포시청소년쉼터		2002. 11. 20.	• 중장기 보호, 상담, 학교등교 지원, 청소년 수능반, 검정고시반, 체육활동, 도예목공 활동, 미술치료, 직업 탐방, 문화 탐방, 중국문화기행, 멘토(Mentor) 결연, 영상체험캠프 • 운영주체 : 온누리복지재단
청소년 그룹 홈	성요한의집	2006. 6. 13.	• 운영주체 :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성야고보의집	2007. 11. 30.	
	다솜 등지	2006. 12. 26.	• 운영주체 : 개인
새싹들의집		2006. 1. 16.	• 미혼모 산전·출산·산후 보호 및 교육 지원 • 운영주체 : 성안드레아수녀회
방과후아카데미		2005년부터 운영 중	•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학습 지원, 다양한 문화활동 및 체험 지원, 생활 지원 • 개설 현황 : 청소년수련관 -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 중학교(1·2학년) 대상
WE Start 마을	산본마을	2004. 7. 23. (경기도 1차 선정)	• 초등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 및 생활 지원 • 운영주체 : WE Start 산본마을 - 매화종합사회복지관·관모초등학교, WE Start 당동마을 - 주몽종합사회복지관·군포초등학교
	당동마을	2006. 7. 13. (경기도 3차 선정)	
지역아동 센터	영은늘푸른	2001. 1. 5.	•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 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
	가야	2002. 1. 1.	
	갈릴리	2002. 1. 5.	
	사랑이있는	2002. 3. 2.	
	행복한흙스쿨	2004. 12. 20.	
	기쁨	2005. 1. 28.	
	매화	2005. 3. 7.	
	주몽	2005. 4. 4.	
	꿈의집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군포시, 1999, 『군포시사』; 각 기관·단체의 사업보고서 및 홈페이지.

3) 청소년사업을 부분으로 하는 기관·단체

앞서 살펴본 청소년사업 중심의 기관·단체나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 기관·단체 외에도 많은 기관·단체가 크고 작은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기관·단체, 장애청소년복지기관·단체, 종합복지관, 도서관, 기타로 나누어 관련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표 4>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4〉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현황

유형	명칭	설립시기	운영현황
시민사회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7. 9. 27.	• 경제교육,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운동
	수리산자연학교	1997. 11. 27.	• 생태·환경교육, 지역 역사문화 탐구 및 답사, 중국 답사기행, 수리산 자연생태조사, 환경모니터링, 생태동아리 • 연혁 : 환경자치시민회의 팀으로 창립, 2006년 4월 5일 수리산자연학교로 독립
	군포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1999. 8. 30.	• 성폭력상담 및 성평등·성교육
	군포YMCA	2000. 6. 17.	• 대안에너지, 동아리, 생태지킴이, 신용교육, 일하는청소년인권센터, 농촌봉사활동, 영상미디어운동 및 교육, 지하철로 떠나는 여행
문화예술	군포문화원	1993. 11. 12.	• 문화유적답사, 성년례, 예절교육, 민속예술축제
	한국국악협회 군포시지부	1997. 6. 16.	• 국악, 민요, 풍물 등
	군포문화예술회관	1998. 5. 7.	•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군포문화센터	2001. 3.	• 문화예술 공연, 과학교실, 미술교실, 댄스 등
장애청소년	군포시장애인복지관	1999. 11. 8.	• 장애 청소년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음악치료, 미술치료, 장애아동·청소년 연극프로그램, 장애청소년의 직업·진로 탐색을 위한 전환교육,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사회체험 등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향상, 특수체육 • 운영주체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한국장애인부모회 군포시지부	2000. 12.	• 가족캠프, 주말학교
	뇌성마비재활원 양지의집	2003. 10. 27.	• 상담 원예교실, 사회적응훈련, 특수학급 및 군포중학교 재택학급 운영 등
	장애인 주간보호 솔복지센터	2006. 10.	• 상담 및 평가, 재활치료, 직업적응 훈련, 문화활동 등
	유스웨이브 ²³⁾	2001. 6. 2.	• 환경봉사, 불우이웃 도배 및 청소, 장애우 사회적응훈련 봉사 등
	원2002	2002. 1.	• 또래학교(원예치료, 등산학교, 자기결정권 프로그램 등), 장애우 지원 봉사
종합복지관	가야종합사회복지관	1995. 5. 11.	• 복학청소년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일탈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공부방 • 특징 : 경기도 교육청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2006) • 운영주체 : 한국YMCA 위탁 운영

23) 이춘도 군포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담과장 제보: 「군포 청소년 전문 자원봉사단 '유스웨이브', 세계자원봉사대회서 한국대표로 사례 발표」, 「군포시민신문」, 2002년 11월 13일.

유형	명칭	설립시기	운영현황
종합복지관	주몽종합사회복지관	1997. 10. 22.	• 군포 WE Start 당동마을 운영 • 운영주체 : 한기장복지재단
	매화종합사회복지관	1997. 10. 29.	• 학교징계청소년 집단지도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교육, 군포 WE Start 산본마을 운영 • 특징 : 경기도 교육청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2006) • 운영주체 : 연꽃마을
도서관	당동도서관	1993. 12. 29.	• 방학 중 독서교실, 자기주도학습, 독서문화 · 도서, 영상과학체험관(방송) • 시립도서관 분관으로 개관
	산본도서관	1994. 7. 15.	• 방학 중 독서교실, 자기주도학습, 독서문화 · 도서 • 시립도서관 분관으로 개관
	대야도서관	2003. 12. 17.	• 방학 중 독서교실, 자기주도학습, 독서문화 · 도서 • 특징 : 누리천문대(2004년 10월 4일 개관) - 천문우주체험관 (대형 천체망원경, 플라네타리움), 태양체중계, 달 위상변화체험기, 3차원 PC 입체 체험존, 천체망원경 영상전송 체험존, 4차원입체영화
	어린이도서관	2006. 5. 4.	• 어린이 및 영유아, 학부모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중앙도서관	2008. 4. 29.	• 이동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기타	군포시보건소	1990. 3. 9.	• 흡연예방, 금연교육, 금연시범학교, 비만캠프
	군포시수도사업소	1992. 10. 21.	• 물테마체험관(2007년 7월)
	성민원	1998. 3. 5.	• 청소년복지학교, 방과 후 비전교실
	군포시자원봉사센터	1998. 8. 24.	• 재난재해 대비교육(시민안전체험관), 깨끗한 산본만들기, 장애체험 및 인권다가서기, 기아체험, 노인시설 체험 봉사, 청소년 주말농장, 어린이집 봉사활동, 선거 자원봉사활동, 추억의 교련시간(통일 · 안보), 평화교육, 심폐소생훈련, 평화티벳캠프, 인터넷중독 예방, 양성평등, 태안반도복구캠페인, 청소년 자원봉사박람회 및 페스티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군포의왕지회	2000. 4. 7.	• 동학기행, 자전기행, 청소년 문화답사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2000. 12. 7.	• 청소년 인권, 환경학교, 생태교육
	동 주민센터		• 생활과학교실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군포시, 1999, 『군포시사』; 각 기관 · 단체의 사업보고서 및 홈페이지.

3. 지역사회교육의 특징과 과제

청소년 제1의 도시를 목표로 군포시와 지역사회는 지역사회교육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행 학교교육 시스템은 창의성을 누르고 청소년의 행복한 삶이 유보되며 점수 따는 기계를 만든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많은 청소년과 부모가 진로에 대해 고민하지만, 아직도 점수와 대학으로 결정하는 진로가 전부이다. 따라서 청소년들과 부모들을

중심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모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인생설계를 하며 공부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지역사회교육은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점을 가지고 여기서는 그간 군포시에서 진행된 청소년 대상 지역 사회교육의 특징을 정리하고, 그 한계와 과제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한다.

1) 체험과 모둠토론을 통한 교육

지역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스스로 경험하고 활동하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모둠별 나눔 작업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발표하면서 다른 모둠의 생각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에 이끌려 수리산자연학교에서 들꽃교실, 곤충교실에 참여하고, 중학교 때 잠깐씩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고등학교 때는 보조교사로 중국역사답사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중국철학이나 역사를 배웠어요. 길 가다가도 자연에 대한 친근감도 느끼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 주게 되어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어요. (2009년 4월 25일, 유선주²⁴⁾ 제보)

1999년부터 매번 방학 때마다 '봉사하며 배우며'를 실시하다가 이제는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학기 중에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들과 함께해요. 프로그램 주제에 따라 교육을 받은 후 조사나 조별로 토론을 하고 서로 발표를 하며, 캠페인 구호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직접 만들거나 해요, 또 다른 청소년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지요, 지루해 할 때도 있고 짜뻑거릴 때도 있지만, 남들 앞에 나서보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요. (2009년 6월 15일, 이선민 군포탁틴내일 대표 제보)

그러나 체험활동 같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는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와 학원에서의 학습을 제외하면 대체로 컴퓨터나 TV 시청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07년에 1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군포시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군포시 관내 15~19세 연령층 청소년들이 주말·휴일에 여가활용을 하는 방법(중복응답)은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 검색' 42.6%, 'TV 및 비디오 시청' 32.3%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자기계발'은

24) 유선주 학생은 현재 청심국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초등학교 때부터 수리산자연학교의 생태환경프로그램 참여하였다. 고등학교 때 중국역사문화 답사프로그램 참여 후 「군포시민신문」에 기고하는 등 지역사회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활동하고 있다.

〈표 5〉 15~19세 연령층의 여가활용방법

(단위: %)

연령 \ 여가활용방법	TV·비디오 시청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자기 계발	스포츠 활동	가사	여행	가족과 함께 하는 일	문화 예술 관람	사교 관련 일	휴식	종교 활동	기타 (봉사활동, 창작적 취미 등)
전체 평균	32.4	12.7	7.3	13.6	17.5	9.7	29.1	5.8	12.9	21.5	15.6	5.7
15~19세	32.3	42.6	29.4	11.7	2.8	1.8	8.9	6.4	19.9	17.7	8.5	6.7

출처: 군포시, 2008, 『제1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79쪽.

29.4%에 불과하였다. 이 연령층 청소년들의 여가활용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분석 결과는 2.93점으로 나타나 30~39세 연령층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²⁵⁾ 이 결과로써 청소년들의 여가활용방법이 제한적이며, 그에 대한 만족도도 낮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이 TV 시청이나 컴퓨터 이용에 집중되는 경향은 2006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여가활동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 37%, 시간부족 29% 등으로 높게 나타났고, 문화시설 부족은 1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²⁶⁾ 즉, 청소년들이 다양한 지역사회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에 경제적 부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 기관과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일시적이고 산발적이 아닌 보다 체계적인 체험활동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동아리활동의 결합

청소년수련시설들이 개관하기 전까지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교에는 동아리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했고, 그러한 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2000년 이후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 등의 수련시설이 건립되면서 동아리활동을 위한 공간이 확충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이 활발해지면서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졌다.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재정지원 또는 전문분야 지도자를 연계하며 그들이 쌓은 지식과 재능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감으로써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온 것이다. 이에 관련 단체나 시설 등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청소년 동아리들이 늘어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부심도 커졌다.

25) 군포시, 2008, 『제1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79~80쪽.

26) 군포시, 2006, 『군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141~142쪽.



당동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 워크숍²⁷⁾

동아리 자부심을 느끼는데, 자체행사를 많이 만들어 냈다는 거도, …… 미술계에서도, 미술학과 교수님들도 어디 가서 ‘미라클’ 이라면 다들 알아주시더라고요. 그게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한 것들이라서 그걸로 미술하는 데 편하게 올 수 있었던 거 같구요. …… 조금 조금씩 예산지원도 큰 도움이 됐어요. <2009년 4월 12일, 강성일²⁸⁾ 제보>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자발적 · 자기주도적 학습도 가능해진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교육은 가르침을 받는 형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고 기획하고 활동하며 배울 때 그 내용과 질도 달라진다.

정말 자원봉사를 계속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도 실제로 느끼고, 건강하게 남아주신 거 부모님께 진짜 감사함을 느꼈구. …… 사람들의 관계가 힘든 가운데서 더 친하게 되는 거도 있고 장애인들과도 친밀해지면서 대학 가서도 낯선 환경에서도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할까요. <2009년 4월 12일, 심세희²⁹⁾ 제보>

사실 많이 조심해서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데 …… 예전보다 누군가의 앞에 나서는 자리에 완벽하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인이 되기 전에 먼저 느끼고 그런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흔치 않은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 동아리활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 때문에 동아리

27) 『활동사진, 당동청소년문화의집(http://www.doyouth.org).』

28) 강성일 학생은 현재 한국방송아카데미 공연예술이벤트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미술동아리 ‘미라클’에서 활동하며 동아리 회장과 군포시 청소년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29) 심세희 학생은 수원여자대학 사회복지과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청소년 장애인전문봉사단인 ‘왕2002’에서 활동하고 있다.

활동에 흥미를 가졌다가도 금방 지쳐 빠져나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2009년 3월 17일, 황아름³⁰⁾ 제보>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긍정적 측면과 청소년들의 참여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제도와 고등학교의 강제 자율학습은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을 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다. 아직도 군포시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율학습을 해야 하는 분위기인데, 이는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확장된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하고 창조해 내는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는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대학입시의 입학사정관 제도에서는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그에 필요한 인프라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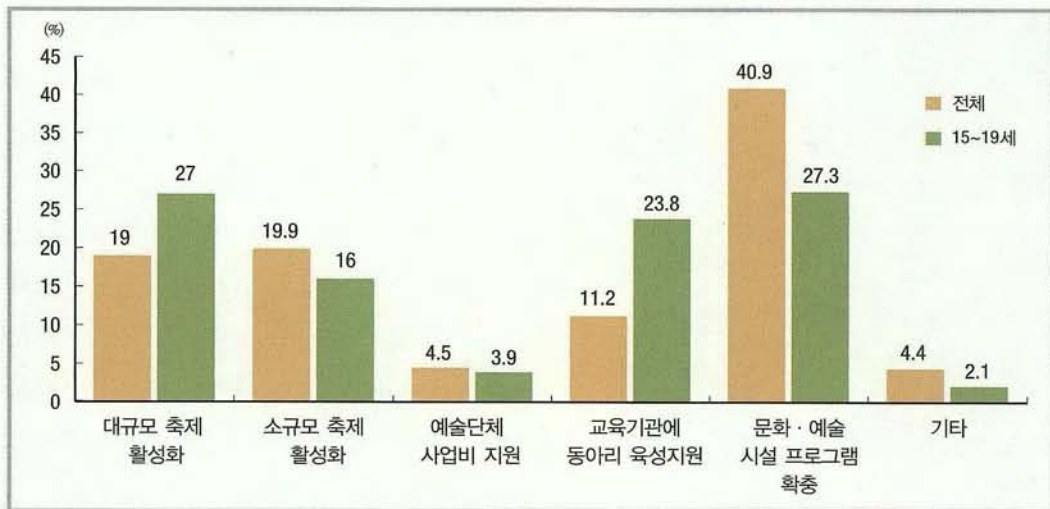
3) 특성화된 축제를 통한 경험과 교육

군포시에서는 특성화된, 규모를 갖춘 청소년 축제가 오랫동안 개최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연극축제, 만화축제를 들 수 있다. 2002년부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연극동아리들이 함께한 '군포 청소년 연극축제'와 2002년부터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이 개최한 만화콘테스트의 창작만화경진대회에 참여한 만화동아리들이 2005년부터 함께 열어 온 '군포시 청소년 만화축제'가 그것이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가 청소년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이들 축제와 행사는 청소년 동아리들이 1년 동안 직접 준비하여 개최하며, 대회 형태를 띠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자체적으로 '축제 기획단'을 꾸려 축제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며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

'놀이의 장'이자 '문화의 장'으로서 청소년 축제의 기획과 개최에는 교육적 과정이 녹아 있다. 즉, 해당 분야 문화강좌·문화체험 등의 교육과 동아리활동을 통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이나 타인과의 의사소통·회의 방법, 미디어 매체를 다루는 방법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찾고, 문화감수성을 함양하고, 축제의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제의식까지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서로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배우고, 사회자와 진행요원, 평가자, 홍보자의 역할 등을 폭넓게 경험하면서 사회성을 신장하게 된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경험을 많이 하고 기획력을 배웠어요. 그렇게 해 봐서 아마 작년 세계미술대회에서 무대감독을 했었지 않았나 (싶어요). 학교에서도 공부만 했다면 평범한 애들이 됐을 텐데, 특이한 경험을 하고 사회생활을

30) 황아름 학생은 흥진중학교와 수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2003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청소년기자단 '다보미'의 편집위원 및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1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

미리 경험하고, …… 인간관계에 대한 책도 보고 공부하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것 배우고 …… 문화의집에서 배우는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나에게 맞게 소화해 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강성일 제보>

2007년 실시된 제1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에서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문화·예술시설 프로그램 확충’을 꼽은 시민이 40.9%로 매우 많았고, ‘소규모 축제 활성화’ 19.9%, ‘대규모 축제 활성화’ 19%, ‘교육기관에 동아리 육성 지원’ 11.2%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이를 청소년 연령층과 나머지 연령층으로 나누어 보면, 그 결과는 사뭇 달라진다. 나머지 연령층은 전체 평균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반면, 15~19세의 청소년층은 ‘문화·예술시설 프로그램 확충’ 27.3%, ‘대규모 축제 활성화’ 27%, ‘교육기관에 동아리 육성지원’이 23.8%로 비슷한 비율이었다.³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에게서 축제와 동아리활동이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려 준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지역사회와 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청소년들은 지역사회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찾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도 한다. 기존의 경우를 예로 들면, 낯설었던 힙합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힙합페스티벌과

30) 군포시, 2008, 『제1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84쪽.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합합페스티벌

연극축제기획단에 참여하며 세계적인 비보이 배우로 성장하거나,³²⁾ 댄스동아리와 락페스티벌 등에 참여하며 실용음악을 전공하게 된 청소년들도 있다. 마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여 진학한 청소년들도 있다. 또한 수련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의 지역사회교육을 계기로 자신의 활동경험을 심화시키면서 목적의식을 갖고 청소년 관련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를 선택하고, 자신의 기존 진로와 결합하여 더욱 깊이 있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 심리 쪽으로 가고 싶었고, 사회복지 안 할려고 했었는데, 스스로 자기에게 봉사하는 게 최고의 봉사라는 선생님이나 주변 분들이 많았었는데도, 봉사활동베이스가 깔려 있어서 수원여대 사회복지과를 가게 됐어요. <심세희 제보>

고등학교 와서 동아리를 환경동아리 활동으로 친환경상품을 제작 판매한 후원금을 지역문화나 환경이 파괴된 곳에 기부하는 활동, 비무장지대 생태탐사 등의 활동을 지속하게 되고, 거기서 세계적인 학자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2008년 랍사르총회 때 「청소년선언문」을 작성 발표하고, …… 준비되어 있으니 좋은 기회들도 자주 생기게 되고, 진로에서 정치외교를 전공하고자 하는데, 세부영역으로 들어가면 환경을 다루고 싶고 그렇게 될 거 같아요. <유선주 제보>

2006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학업 및 진로 프로그램 상담’이라는 응답이 88%로 압도적이었다.³³⁾ 진로 선택은 부모나 청소년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재처럼 각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탐색과 더불어 지역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일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32) 「영국 소풍간 비보이 공연 '피크닉' 성료」, 『YTN』 2007년 4월 22일.

33) 군포시, 2006, 『군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144쪽.

5) 지역특성의 반영

지역사회교육은 지역사회 생활의 발전과 필요에서 그 목적을 찾는다. 이 때문에 지역의 생활이나 문화·활동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들이 그러한 교육에 반영된다. 군포시에서 행해지는 지역사회교육에도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환경 티셔츠 제작

그중 대표적인 것이 수리산이라는 자연환경과 관련된다. 군포시에서는 수리산에 둘러싸여 있다는 자연환경적 장점과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운동의 역사 속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시와 민간단체의 활동에서 환경생태프로그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리산자연학교는 청소년 생태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지역 양서류지도를 작성하거나 반딧불이축제(반딧불이 키우기) 개최 등 심화된 교육과 지역생태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시와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환경학교, 그리고 하천수모니터링 등도 전문성을 지니고 진행되어 왔다.

또한 군포시는 경기도의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청소년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청소년 관련 시설과 단체에서의 자원봉사프로그램도 활성화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타 지역의 경우, 청소년 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일반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다. 그러나 군포시의 경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과 당동청소년문화의집이 행사지원 같은 활동을 넘어 보다 체계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군포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도 청소년 봉사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축제 등에 청소년의 참여가 활발하다.

군포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2002년 정식으로 설립되었는데, 그때부터 청소년 분야를 담당하였거나 총괄하는 것은 내가 손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죠. 담당하거나 총괄하는 사람이 쪽 있다는 건 큰 차이죠. 다른 지역은 청소년 담당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교사 간담회, 기관 간담회도 잘되었어요, 지역의 단체나 청소년축제 연계도 잘되고, 시의 지원이 잘되었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도 시가 잘 도와주었어요. 자원봉사축제도 다른 지역은 어른하고 하면서도 내용도 빈약한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의 기발하고 다양하고, 아이디어도 많아 군포는 풍성한 축제가 되었

어요,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가는데 그래도 실제 사업으로 반영하는 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2009년 3월 20일, 이
춘도 군포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담과장 제보)

청소년의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지원 없이는 좋은 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군포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환경이 잘 갖춰진 것이다. 다만, 청소년들이 흥미롭고 보람 있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하나 타 지역과 군포시를 비교할 때 특징적인 점은 청소년지원정책에 대한 시의 적극성이다. 군포시의 정책적 집중은 '청소년 교육특구'라는 결실로 나타난 바 있다. 청소년 교육특구는 시설건립이라는 외형적인 부분이나 영어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교육과 청소년 복지라는 측면에서도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특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군포시 관내에는 열악한 가정적·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많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군포시 관내 학교에서 2000년 이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총 2,230명이다. 최근에는 퇴학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그 수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6〉 학업 중단 및 유예청소년의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2,230	366	362	414	372	222	268	226	329
중학생	737	77	131	151	131	97	62	88	123
일반계고	483	104	60	87	98	56	47	31	57
전문계고	1,010	185	171	176	143	69	159	107	149

출처: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사망 청소년수는 제외하였고, 2003년까지는 중·고생 모두 제적·중퇴·휴학자로 나타나며, 2004년부터는 중학생은 유예 및 면제자, 고등학교는 학업중단자로 명칭을 달리한다.

2006년 대안교육특성화 프로그램을 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주는 거보다 '여기는 좀 와야겠다.'는 의지를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딱히 갈 데가 없으니까 오긴 오는데, 정말 필요로 한 건 보호감찰 명령 떨어진 애들도 되게 많고, 거길 안 가서 2년까지 연장된 애들도 있는데, 제대로 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성적으로도 대단히 개방되어있고, 성폭력인데 자랑스럽게 얘기하구, 대화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죠. 아 이들이 생활에 리듬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나가고, 8시 30분부터 계속 전화하면 겨우 10시에 반 정도 오거든요. 차츰 단계를 나누어 가야 한다고 봐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방과후 프로그램, 쉼터 정도인데, 쉼터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문이 닫혀 있기도 하구. 아이들이 잠잘 데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화나서 나왔

가 돈도 없고 갈 데가 없어 길거리에 나와서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2009년 8월 28일, 김지수 당동청소년문화의
집 관장(2006년 당시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수련팀장) 제보>

그간 방과후 프로그램, 쉼터, 청소년지원센터, WE Start 마을 등을 운영하며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지만, 반복적인 가출이나 범죄·폭력에 노출된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대안 마련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군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대안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사전에 학교와 연계하여 대안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검토·진행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또한 복지 관련 기관의 현장 실무자 의견으로, 청소년복지센터(보호·치료·직업) 설치, 가출아동 청소년 DROP-IN센터 운영, 학교부적응 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프로그램강화(대안학교)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³⁴⁾ 향후 좀 더 적극적으로 위기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에 지역사회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4) 군포시, 2006, 『군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146~147쪽.

제4장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김동권 | 군포고등학교 교사

1. 21세기 교육환경과 지역특화발전

21세기 들어 IT(Information Technology)의 획기적인 발달만큼이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존의 ‘닫힌 교육’에서 ‘열린 교육(open education)’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되었다. 교육의 대상·방법·내용·평가·제도·체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앞으로도 교육의 모든 국면과 요소에서 폐쇄적이고 경직된 획일화 모형이 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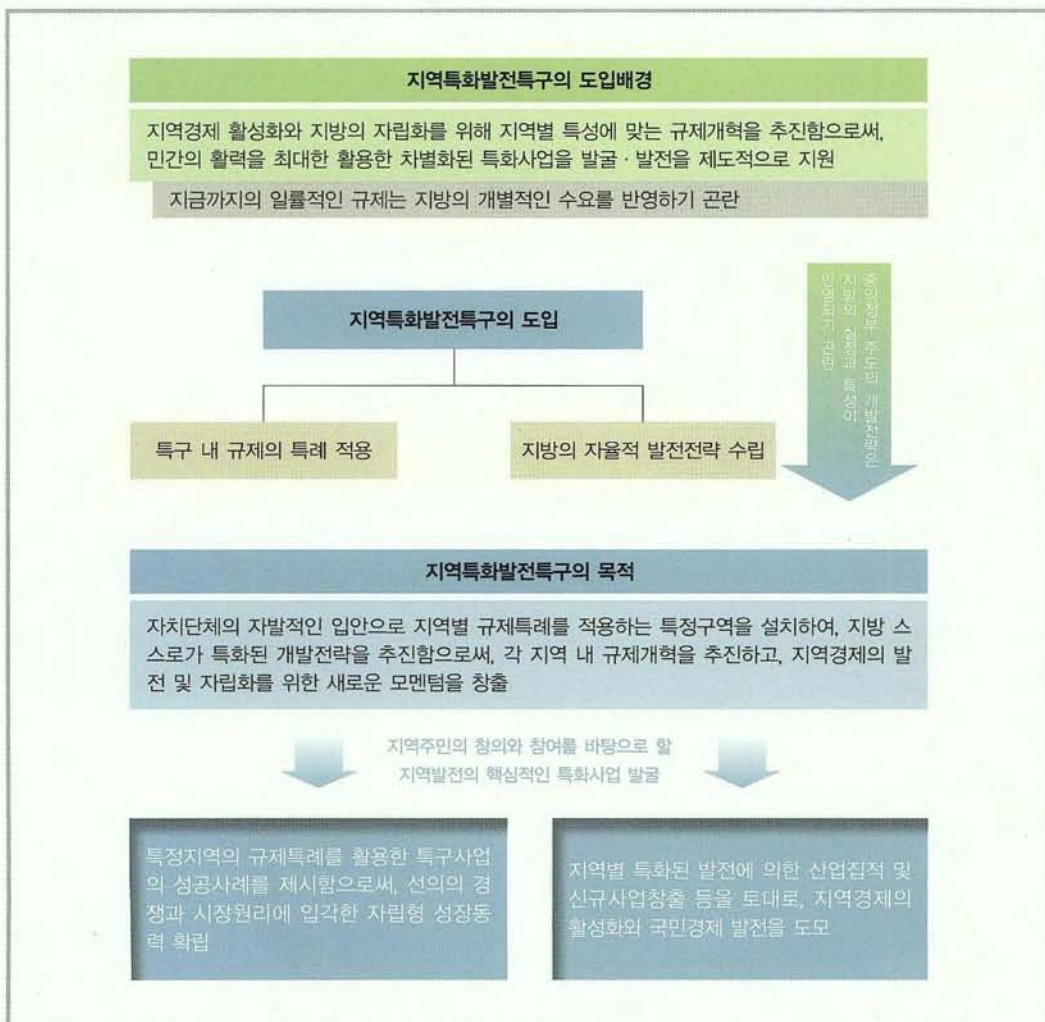
〈표 1〉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변화된 패러다임
성격	폐쇄적 → 개방적
개념	학교교육 → 평생교육
대상	학생 → 전국민
장소	학교 → 지역사회 전체(whole community)
방법	획일적 집단수업 → 개별화 수업(individual education), 원격교육(long distance education)
내용	전통적 교과내용 → 다원적 교육내용(pluralistic contents)
운영주체	교육생산자 중심 → 교육소비자 중심
통제	획일적, 위계적 통제 → 수평적, 자율적 통제

지고 경계를 넘나드는 공조적 열림의 교육모형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OECD는 ‘미래학교 시나리오’에서 학교는 기존의 관료제적 현상 유지형(status quo)에서 ‘① 지역사회 학습센터 및 학습 조직형(re-schooling)’으로, 그리고 ‘② 네트워크형 및 탈학교형(de-schooling)’으로 발전하는 모델을 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가 지역사회 학습공동체’의 본령이어야 함과 아울러 학교의 지역학습공동체화가 요구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때마침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그해 6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대구구상’이라는 것을 통해 지식기반시대(knowledge based society)의 도래로 여러 분야에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배경과 목적²⁾

1) OECD, 2001, *What Schools for The Future*, pp.77~98.

2)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http://www.mke.go.kr/sezone>)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란?'

변화하면서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만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모아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는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다. 정부는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의 3대 목표를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쾌적한 지역공동체',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로 설정한 뒤, 그 추진과제로 지역사회와 주민들 주도의 '의료, 교육 등의 생활 서비스 확충', '품격 있는 건축문화 확산', '도·농 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2004년 3월 제정되고, 그해 9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지방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하는 1~2개 핵심규제의 개혁을 목표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강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청소년교육특구 지정과 내용

1) 청소년교육특구 지정

군포시는 행정적·재정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전담 부서를 확대·개편하고 2003년 7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0명으로 구성된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이후 청소년교육특구 지정을 위하여 2005년 9월 21일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군포 청소년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주제발표에서는 다음처럼 특구 선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³⁾

●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 발전 기여

관내 모든 학교에 한국 영어교사를 보조하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및 공교육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유능한 인재 양성 등 교육 발전에 기여

3) 허봉운, 「군포청소년교육특구계획(안)」,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자료집」(2005년 9월 21일), 군포시, 18~19쪽.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시민 공청회(2005년 9월 21일)

● 생활 속 영어 체험학습 기회 확충

방학기간 중에 영어캠프 · 영어페스티벌 · 영어박람회 · 영어퀴즈대회 · 영어카페 운영 등 생활 속 영어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생활체험교육 기회 제공

● 세계화 · 국제화 교육환경 구축

국제적 감각을 갖춘 영어체험마을, 원어민 숙소, 영어 전용 광장 등 영어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국제적 교육환경 구축

● 청소년 교육지원 제도 확립

특화사업을 통한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지정' 과 '군포시 청소년 100대 청소년 시책' 등 교육도시 위상 제고 및 교육발전 100억 원 기금 조성 등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사업 전개를 위한 지원제도 확립

아울러 주제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청소년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하였다. 즉, 사회적 효과로서 '군포시 주재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인구유출 억제 및 인구유입 증대' 및 '공교육의 보완' 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경제적 효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 군포시의 세원 확대' 및 '초 · 중 · 고등학생의 해외교육으로 인한 외화유출 및 자녀의 교육을 위해 떠나는 고급인력의 유출을 줄일 수 있는 모델로서의 사회적 · 경제적 함의' 등을 들었다.

2004년 제1차 선정에서 전북 순창의 '장류산업특구' 를 포함해 6개 특구가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2005년 9월 제5차 선정까지 전국에서 32개의 특구가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6일 부총리 겸



군포 청소년교육특구의 목표와 사업흐름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제6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등 10개 지역특구가 신규로 지정되었다. 이후 2008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9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18개의 특구(서울 4, 부산 3, 대구 3, 인천 3, 울산 2, 경기 7, 강원 8, 충북 13, 충남 12, 전북 12, 전남 16, 경북 23, 경남 11, 제주 1)를 운영하고 있다.⁴⁾ 이를 유형별로 보면 산업&연구 13곳, 의료 4곳, 관광레포츠 28곳, 향토자원진흥 47곳, 유통·물류 9곳이고, 군포시와 같은 교육특구는 17곳이다. 특히 군포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한 교육특구이며, '청소년교육'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 되었다.

4) 「2008년 12월말 현재 특구지정 및 공고현황」,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http://www.mke.go.kr/sezone>).

〈표 2〉 전국 교육 관련 특구 현황

지역	유형
전남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경남 창원	외국어교육특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경기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경남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경남 김해	평생교육특구
전남 곡성	21세기 농촌교육선진화특구
전남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전남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경북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충남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서울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전남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충남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경북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2) 청소년교육특구 지정 내용

당시 선정위원회는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지정 사유에 대해 “군포시는 1989년부터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 정책’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 교육지원제도의 확립, 외국어 교육의 질적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교육도시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교육 및 평생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청소년교육특구는 사업자로 ‘경기도 군포시장 외 7개 고등학교장’, 위치로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산본동·당동 일원(3만 2,019평)’이 지정되었고, 지정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교육지원 제도 확립 사업

- 특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 및 학부모 교육지원단 운영 등
- 교육프로그램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 사업 추진
- 교육 특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향을 모색

●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 관내 전 고등학교에 외국인 교원 및 강사를 임용하여 외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영어체험마을, 영어전용 광장, 사이버영어 학습장 운영 등으로 외국어 교육환경 개선 등

●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사업

- 저소득·맞벌이가정 자녀의 방과 후 교육 및 문화혜택 지원
- 명문고 육성을 위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공모 지원
- 과학기술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과학문화 이해증진 등

청소년교육특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총 382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문은 외국어교육 강화사업으로 전체의 약 71%에 달하는 271억 2,000만 원이었다.

〈표 3〉 청소년교육특구 지정 당시 사업 예산안

(단위 : 억원)

사업명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청소년 교육지원 제도 확립 사업	100.8	70.8	29.5	0.3	0.1	0.1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271.2	84.1	98.6	29.5	29.5	29.5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사업	10.8	2.1	2.1	2.2	2.2	2.2
계	382.8	157.0	130.2	32.0	31.8	31.8

비고 : 2006~2007년에 원어인 강사 숙소 및 영어체험마을 건립비를 포함하며, 전액 시비로 추진토록 계획되었다.

당시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한 규제특례는 크게 4건이었다. 첫째 ‘관내 전 고교(7개)에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을 허용’, 둘째 ‘외국인 교원의 체류기간 연장(2년→3년) 및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 셋째 ‘영어페스티벌 등 행사시 도로 통행제한 허용’, 넷째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규정’이었다. 이들 규제특례는 각각 협의기관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되고 있다.

3) 교육특구 운영을 위한 자원조달

기초자치단체들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및 기타 시장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군포시는 2005년 기준으로 74억 3,500만 원을 교육 관련 경비로 보조하는 등 특구 지정 이전에도 경기도의 다른 기초 자치단체보다 지원 실적이 많았다. 이해에 학교 지원 실적은 69억 9,200만 원이었다.

〈표 4〉 2005년 기초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경비보조 실적

(단위 : 백만원, %)

지역	재원	보조금 지원 실적	재정자립도
군포	목표액 100억 원	7,435	71.2
안양	시세의 4% 내	5,226	83.5
안산	시세의 5% 내	4,997	73.4
평택	시세의 2% 내	6,366	47.7
광명	시세의 5% 내	2,395	66.3
포천	시세의 3% 내	1,543	37.5
의왕	보통세액의 5% 내	957	55.3
구리	목표액 100억 원	685	65.9
과천	목표액 300억 원	1,294	95.8

출처 : 군포시, 2006,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연구용역』, 72~73쪽.

그런데 아무리 청소년 육성이 시의 핵심 사업이고 그 취지가 교육적이라 하더라도, 이들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원조달(투자)이 관건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재원 확보에서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예산도 주로 배분형태로 단위 학교까지 전달되므로 지역교육청에 재원확보를 요구하기는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이미 2005년 진행된 특구사업 관련 시민 공청회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당시 주제발표를 맡은 하봉운 박사(경기개발연구원)는 ‘군포시 교육경비지원 조례’ 제정 및 이와 관련한 군포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한편, 토론자였던 김성기 교수(협성대학교)는 “군포시가 ‘21세기형 우수인재 양성 100대 프로젝트’ 추진과 아울러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위원회’, ‘청소년자치위원회’, ‘학부모교육지원단’, ‘군포시청소년대상시상’,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조성’ 등 청소년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였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재정소요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기금은 강제적인 수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없으면 확보되기 어려우므로, 연차별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에 의해 누구를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⁵⁾고 역설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시는 다음과 같이 ‘청소년 교육 프로젝트 20’을 기획하여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마련했다.

5) 군포시,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자료집』(2005년 9월 21일), 52쪽.

〈표 5〉 2005년 공청회 기준 '청소년 교육 프로젝트 20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프로젝트 20 내용	총계	연도별 투자계획				
		2006	2007	2008	2009	2010
1.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	1,890	525	525	280	280	280
2. 초·중등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및 영어동아리 활성화 지원	12,480	3,168	3,168	2,048	2,048	2,048
3.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	—	—	—	—	—
4. 학교 내 영어전용학습장 및 어학실험실 시설 지원	600	120	120	120	120	120
5. 방학 중 열린 영어학교 운영	75	15	15	15	15	15
6. 겨울방학 비합숙 영어캠프 운영	95	19	19	19	19	19
7. 체험 습득을 위한 여름방학 합숙 영어캠프 운영	270	54	54	54	54	54
8. 청소년 영어페스티벌 개최	100	20	20	20	20	20
9. 영어박람회 개최	230	46	46	46	46	46
10. 영어퀴즈대회를 통한 세계화 감각 증진	70	14	14	14	14	14
11. 저소득층 자녀 영어회화반 운영	50	10	10	10	10	10
12. 청소년 국외 교류사업을 통한 군포 이미지 제고	110	22	22	22	22	22
13. 청소년 국외 방문을 통한 국제이해 증진	110	22	22	22	22	22
14. 영어체험 마을 건립 및 운영	4,122	3,162	—	320	320	320
15. 원어민 영어강사 숙소 건립	2,954	2,954	—	—	—	—
16. 영어 전용 광장 운영	120	24	24	24	24	24
17. 영어 전용 카페 운영	90	18	18	18	18	18
18. 교육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	10,000	7,000	3,000	—	—	—
19.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영어 육성	250	50	50	50	50	50
20. 학부모 교육지원단 운영	10	2	2	2	2	2
합계	33,626	17,245	7,129	3,084	3,084	3,084

출처 : 군포시,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자료집」(2005년 9월 21일), 28~29쪽.

3. 청소년교육특구 추진 현황

1) 추진 방향과 과제

군포시는 '희망찬 인재양성의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통한 '튼튼한 도시, 활기찬 시민의 도시 건설'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 청소년교육특구사업이다. 이 사업의 비전은 '국제화시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인재 양성'이며,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과 과제를 선정하였다.

군포 청소년교육특구사업은 크게 ‘청소년교육특구 지정도시 위상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교육 인프라 구축’, ‘군포와 세계를 빛낼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 ‘교육예산 지원확대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우수학교 평가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율경쟁 유도를 통한 교육의 질 획기적 개선’, ‘학생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 ‘학생이 공부하기 좋은 주변여건 만들기’, ‘교육협력사업 확대 운영’이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 청소년 교육특구 지정도시 위상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교육인프라 구축
 - 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 및 운영을 통한 외국어교육 확대
 - 어학실(English Only Zone) 설치 지원을 통해 외국어 교육환경 조성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확대(40개 교, 47명)
 -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확대 지원
- 군포와 세계를 빛낼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
 - 군포사랑장학사업 확대운영을 통한 우수인재 발굴
 - 영재교육, 교과특기학교, 교과특성화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우수인재 육성 체계 확립
 - 교사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교사 발굴 지원(표창 및 해외연수 등)
- 교육예산 지원확대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확대로 질 높은 교육여건 조성 및 학습여건 개선
 - 군포시와 교육청, 각급 학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경비지원시스템 운영으로 신뢰 구축
- 우수학교 평가 인센티브 제공 및 자율경쟁 유도를 통한 교육의 질 획기적 개선
 - 관내 고등학교 진학 우수 중학교 평가 지원
 - 우수 고등학교(대학 진학, 대외 수상실적 등) 평가 지원
 - 고등학교 프로그램 공모 평가지원
- 학생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
 - 군포시와 교육청, 각급 학교, 학부모와 연계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및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 강화
 - 저소득층 자녀 지원확대로 공정한 교육출발선 만들기
 -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 아동 양육시설 지원 확대
 - 건전한 청소년육성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 학생이 공부하기 좋은 주변여건 만들기

- 도서관 시설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청소년수련관 당동·광정동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컴퓨터의 내실운영
- 고등학교 프로그램 공모 평가지원
- 동 주민자치센터의 청소년 생활체험 공간 제공

● 교육협력사업 확대 운영

- 지역교육청과의 협약체결 및 유대강화
- 한세대학교와 영어교육 협약 체결 및 열린사이버대학과 평생교육협약 체결

군포 청소년교육특구사업은 위와 같은 추진 방향에서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발전', '생활체험 학습기회 확충', '세계화·국제화 교육환경 구축', '청소년 교육 지원제도 확립'이라는 4대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총 160개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책목표별로는 '공교육 내

〈표 6〉 군포 청소년교육특구의 목표와 과제

비전	4대 정책목표	과제
국제화시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발전	•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학교)배치 • 명품고 육성 프로그램 공모지원 • 교과특기자 학교 육성지원 •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 • 이외 43개 과제
	생활체험 학습기회 확충	• 방과 후 영어특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우수 동아리활동 지원 • 수험생을 위한 해피엔드 • 생!생! 영어캠프 운영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 이외 58개 과제
	세계화·국제화 교육환경 구축	• 군포 영어체험시설 건립 및 운영 • 우수 체육꿈나무 육성 • 청소년 국제 문화 교류 • 잉글리쉬존(어학실습실) 설치 • 안전한 학교 만들기 폐쇄회로TV 설치 지원 • 이외 17개 과제
	청소년 교육 지원제도 확립	• 군포사랑 장학회 운영(기금출연 및 모금) • 아동 인지력향상 서비스 • 학교 사회복지(무지개교실) 운영 • WE Start 방과 후 공부방 운영 • WE Start 특기적성 교육(햇빛모듬) • 이외 22개 과제

출처 : 군포시, 2008, 『군포 청소년교육특구사업 추진계획(2006~2010)』, 28쪽.

실화 및 교육발전'에 48개 과제, '생활체험 학습기회 확충'에 63개 과제, '세계화·국제화 교육환경 구축'에 22개 과제, '청소년 교육 지원제도 확립'에 27개 과제가 있다.⁶⁾

2) 추진 실적과 성과

군포시는 2005년 12월에 청소년교육특구가 지정되기 이전에도 직·간접적으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2008년까지 연도별 지원실적을 보면, 2004년 100억 2,300만 원, 2005년 143억 9,600만 원이 투입되었고, 특구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는 2006년 539억 1,800만 원, 2007년 449억 4,000만 원, 2008년 423억 8,900만 원으로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청소년교육특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간접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교육센터 등 교육시설에 투자되는 예산 때문이다.

〈표 7〉 군포시의 청소년육성 예산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학교 직접 지원	소계	2,547	5,455	6,166	6,445	6,184	26,797
	학교급식	559	540	933	421	550	3,003
	영어교육	764	1,710	1,557	2,454	2,215	8,700
	도서관 운영	310	402	224	260	150	1,346
	교과학습프로그램 운영	168	496	861	853	1,093	3,471
	예·체능 활동	400	1,550	612	165	310	3,037
	학교 숲 가꾸기	50	520	357	143	129	1,199
	노후시설 개선	296	177	1,562	2,082	1,589	5,706
	유치원 학습지원	—	60	60	67	148	335
간접 지원	소계	7,476	8,941	47,752	38,495	36,205	138,869
	교육시설사업	1,500	2,500	37,065	22,158	19,309	82,532
	보육사업	5,976	6,441	10,687	16,337	16,896	56,337
총계		10,023	14,396	53,918	44,940	42,389	165,666

출처 : 군포시, 2008, 『군포 청소년교육특구사업 추진계획(2006~2010)』, 13쪽.

비고 : 간접지원사업은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교육시설(국제교육센터, 장학기금, 영어 캠프·카페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과학·문화 축제, 장학기금 등) 및 보육사업을 말한다.

청소년교육특구 사업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업에는 총 2,554억 1,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정책목표별로 보면,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발전' 사업에 총

6) 군포시, 2008, 『군포 청소년교육특구사업 추진계획(2006~2010)』, 33~39쪽.

1,271억 5,700만 원, '생활체험학습 기회확충' 사업에 총 307억 7,200만 원, '세계화·국제화 교육환경 구축' 사업에 620억 5,100만 원, '청소년교육 지원 제도 확립' 사업에 354억 3,300만 원의 예산이 투여된다.

〈표 8〉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연차별 투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소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255,412	53,918	44,940	42,389	59,933	54,231

출처 : 군포시, 2008, 『군포 청소년교육특구사업 추진계획(2006~2010)』, 33쪽.

한편, 그간 군포시는 청소년교육특구사업 추진을 전후로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2004년에 청소년단체협의회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육성대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육성·보호, 교육)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2007년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지원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 또한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청소년정책(육성·보호, 교육)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고, 청소년 참여활동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분석 결과, 예산 규모 대비 교육예산 전국 1위, 학교별 지원액 기준 전국 2위로 평가되었다. 또한 경인일보사의 경인 히트상품전에서 군포 WE Start 마을이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08년에도 지식경제부가 6개 분야(교육, 산업·연구, 의료, 관광레포츠, 향토자원진흥, 유통·물류)로 나누어 전국 102개 특구를 평가하여 12개 특구를 선정한 중에서 '2008 모범교육특구'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3) 군포국제교육센터 건립 사업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사업은 특히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애하고 있다. 그 핵심사업은 '군포국제교육센터(Gunpo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의 건립과 운영이다. 이 시설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7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의거하여 건립되었다.

군포국제교육센터 건립은 군포시가 앞으로 전개될 국제화된 공간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 내기에 부족하지 않은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노력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2005년 9월 개최된 시민 공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있었다. 당시 성열관 교수(경희대학교)는

“국제적 인재는 언어 능력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 인재란 환경, 평화, 인권, 국제협력, 국제 이해 등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의식(awareness)에 있고, 이러한 문제를 공동체적인 노력으로 협의할 수 있는 능력과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여 기능적인 영어습득보다는 국제화된 인재를 길러 내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이영희 교수(서울교육대학교)도 “오늘날 외국어 교육은 인간 대 인간의 필요 충족을 위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 및 사회언어학적 양상에 대한 지식이 언어학적 지식과 결합되었을 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그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⁷⁾

이후 군포시는 2006년에 산본동 1151-10번지와 1151-11번지 소재 구 선교원 부지를 매입하였고, 여기에 군포국제교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23일에 기공식을 가졌다. 군포시장은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영어와 관련된 사교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어디다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센터를 만들어 사교육비도 경감시키고 영어에 대한 한을 풀어주고 싶다.”고 한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해결도 중요하다. 아울러 “고품질의 영어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단기캠프 형식의 기존 영어마을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며, 타 지역에 비해 학생들의 참여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수준 높은 원어민 교사와 내국인 영어전문강사와의 연속수업 등으로 세밀한 지도와 효율적인 교육을 한다.”고 그 운영 방향과 특징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군포국제교육센터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으로 건립되었으며, 2009년 9



군포국제교육센터

7) 군포시,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자료집』(2006년 9월 21일), 37~50쪽.

월 29일에 준공식을 하였다. 위탁사업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토지비용을 제외한 사업비 179억 원 중 101억 원을 부담하고 군포시가 78억 원을 부담하였다. 이 시설은 대지면적 2만 2,000여 m²에 3개 건물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7,220m² 규모의 체험교육시설동에는 강의실, 미디어랩실, 가상체험실, 방송체험실, 드라마체험실, 대강당 및 소강당, 기타 시설이 들어서 있다. 1,233m²의 원어민속소동에는 2개 동 총 30실이 설치되어 있다. 1,989m² 규모의 주민편익시설동에는 상가시설이 입주하여 있다. 그 외에 14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군포국제교육센터에서는 초등부, 중등부, 대학생·일반, 특별과정으로 나뉘어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체험 수업 :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활용
- 수준별 수업 : 레벨 평가와 자격 인증제 도입
-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 초·중·고 대상 통학형 프로그램
- 사이버 가정 학습 및 듣기 실력 강화를 위한 랩실 운영
- 해외 유학 프로그램 (선별)제공
- 일반인을 위한 야간강좌
- 저소득층 자녀 대상 무상 교육

4. 청소년교육특구 발전을 위한 제언

군포시는 교육예산이 전체 예산규모 대비 전국 1위이며, 학교지원액 또한 학교별 지원액 기준 대비 전국 2위로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지원 우수단체로 지정될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투자 1번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명성을 이어가고, 청소년교육특구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중복지원 및 불요항목 예산 지원', '평생교육지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다문화 교육의 확충', '국제교육센터의 다기능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현재 추진되는 과제들을 보면, 직·간접적으로 같은 분야에 중복하여 지원되거나 불요항목에 지원된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는 처음부터 사업내역을 지나치게 세분화시켰고, 그럼에도 모든 항목별로 지원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인 일개를 재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강화시키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축소하는 등의 검토를 통해 예산의 적절한 배정과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일부 성인교육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식격차(knowledge gap)와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강화하여 교육접근성 및 형평성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평생교육이 청소년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특정사회계층에 대한 교육 소외가 우려되는 것처럼 특정 연령층에 대한 교육의 단절현상이 야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군·구들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와 같은 사업지원은 물론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설립 및 유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용인시의 경우, 2003년 11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기공식을 갖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특수목적고 설립에 착공하여 2005년에 개교하였으며, 용인시 거주 학생 30%를 입학정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지역할당제)을 둬으로써 우수인재를 지역인재로 양성하고 있다. 이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부지를 제공하고, 용인시와 경기도가 사업비 전액(198억 원)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것이다. 또한 동두천 외고는 시측이 부지를 마련하고, 사업비 160억 원 가운데 동두천시와 경기도가 각각 40억 원, 도교육청이 80억 원을 부담하여 설립하였고, 전체 8학급 240명 입학생 중 정원 외 5%를 지역학생에 배정하도록 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기도 내 특수목적고의 난립 등으로 군포시가 특수목적고를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고교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지원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될 이슈를 꼽는다면 단연 ‘다문화’다.” 이것은 2009년 1월 19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어윤대 초대 위원장의 말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명과는 별도로, 국내에는 결혼 이민 국적취득자 4만 명과 이들 자녀 6만여 명이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들 중 약 2만 5,000명은 이미 초·중·고 학령기를 맞고 있다. 군포시에도 2009년 5월 1일 현재 한국국적 취득자와 미취득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포함하여 총 6,702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출신국가도 중국, 대만, 일본 등 동북아시아를 비롯하여 베트남·태국·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아메리카와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다. 그만큼 다문화 교육이 시급하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는 어린 학생 때부터 다문화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사는 글로벌 시민 교육을 학습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포국제교육센터가 다문화 교류에 대한 대한민국의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졌으면 한다. 당장 관내 중·고등학교는 여러 외국학교와 국제 공동화상수업을 실시(관내 초등학교 3개 교 및 중학교 4개 교)하거나 자매결연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고,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태여 유럽이나 미주 국가와만 교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1세기는 아시아 국가가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먼저 가까운 나라와의 문화적 교류, 인적 교류부터 시작했으

면 한다. 40여 년 전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으며, 21세기 지구촌 평화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은 가능한 한 인류애를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야 한다. 이들과 수시로 관계를 맺기 위한 소위 'global city'로서의 군포시, 그리고 이를 위한 'global village' 공간으로서의 국제교육센터를 생각해 본다.

끝으로 지속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군포청소년교육특구' 사업은 주민의 뜻을 모아 공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지역내 특정 소수나 특정 사회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혜택을 보는 사업이다. 그러나 특구로 지정된 이후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직도 이 사업이 군포시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공감대 형성(consensus building)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봉사하고자 하는 동기(motive)가 부여될 것이다.

여 백

제5장 청소년인권과 자치활동

김지수 | 군포시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1. 들어가는 글

경진대회는 대학가는 데 필요하니까 있으면 좋지만, 다 짜고 상 줘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주고, 항상 타는 애들만 타고 시에서 하는 청소년행사에 청소년들은 동원용일 뿐이에요. 봉사점수로 꼬시고, 상으로 꼬시고 정작 청소년을 위한 건 없어요.

요즘 들어 나오는 10대들의 푸념이다. 새마을 세대도 아닌데, 아직도 행사 동원용으로 불러 다니는 현실이 바로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청소년활동이다. 한국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는 아마도 1991년 뉴키즈언더블럭 사건이 아닐까 싶다. 그 이후 막가파사건, 인천호프집사건 등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대형사건’에 맞춰진 ‘청소년문제’에 초점이 맞춰졌고, “뭐 저런 괴물 같은 애들이 다 있어 쫓쫓”에 머물러 있다.

반면, 1990년대 들어 이런 10대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신문지상에서 자주 접했던 용어 중 먼저 떠오르는 것은 N세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대표적으로 썼던 X세대다. 그리고 Y세대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Z세대라는 단어까지 등장했고, 지금은 R세대, P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론이 출현하고 있다. 물론 이런 분석들은 대부분 10대를 겨냥한 마케팅을 위해

기업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나타난 세대론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들이 붓물 터지듯 쏟아진 데는 아마도 세대구별 방식이 단순했던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화사회를 맞으면서 인간의 생활과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젊은이로 나누던 지금까지의 양분법만으로는 이들 두 세대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변화의 소용돌이가 거센 요즘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는 반증일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세상은 변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풍경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의 인권적 삶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권을 사람이라는 이름 하나 만으로도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할 가치로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원에게 다양한 의무를 요구하는 국가나 사회, 기관에 대해서는 갈등관계를 갖는 구조적 특색을 가진다고 본다. 인권이 인간 삶의 문제와 관련해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아니지만, 인권의 개념적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는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리 규정되는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아이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 반란은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고, 그러한 반란은 결코 적지 않았으며, 지금 여기에서 크고 작은 반란은 청소년자치활동의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1995년 이후 인터넷 발달은 청소년자치활동을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변화시켰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자치활동이 청소년인권 신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청소년자치활동이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그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청소년자치활동의 모습은 그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여건도 그다지 좋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소위 '청소년'이라는 시기를 지나면 그 시기가 추억으로 기억되는 특수한 상황이 청소년자치활동의 한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든다. 즉, 나이에 따라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면서 역할과 환경, 조건이 변화되어 청소년운동의 단절을 가져오고 있으며, 3~4년을 주기로 청소년자치활동의 내용도 반복된다.



아동·청소년 권리규정을 주제로 한 모토리 포럼

2. 청소년인권과 자치활동의 개념

1) 청소년인권의 개념¹⁾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길어지고, 아동기 역시 길어졌다.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아동과 어른의 생활권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아동의 범주 속에 있던 10대가 주목 받기 시작했다. ‘미성년’으로 범주화된 10대들은 자신들이 기성세대의 엄격한 보호와 통제, 관찰과 선도의 대상인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불만들은 자신들만의 또래집단을 형성하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반란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18세기 프랑스는 젊은 시민 혁명가들에 의해 전지구적 근대화의 기틀을 만들었고, 20세기 청년 문화혁명에 의해 또 한 차례의 변신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youth’는 사춘기적 방황과 갈등, 이상 사회에 대한 열망과 실험정신, 대안문화 등과 같은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의 끝자락에 ‘youth’는 대량 실업과 세기말적 혼란 속에서 또 한 번의 거대한 불안 세력이자 가능성의 세대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업문제를 풀기 위해 유럽공동체는 ‘youth’의 범주를 30세까지로 확대하면서 청소년의 일과 삶 전반에 걸친 취업학습 대안을 마련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1999년 파리 시위에 적극 가담한 고등학생들에 대한 기사는 ‘youth power’의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 줬고, 영국의 홀리건 또는 독일의 폭력적 청소년 관련 기사는 ‘youth’가 21세기의 사회 불안정 세력임을 드러낸다. 반면, 미국에서는 여전히 부모의 돈을 쓰면서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진 10대가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 소비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²⁾

사회적 변동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역사적으로 변해 왔다. ‘청소년’이라는 독자적인 인생 단계를 일반화시켰고, 청소년을 삶의 주인이자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자는 주장들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청소년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인권의 개념은 어떠한 변화를 통해 형성되어 왔을까? 제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청소년인권의 형성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인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인권’만을 따로 규정한 협약은 아직 없으며, 청소년인권문제는 아동인권에 대한 역사적 논쟁과 맥을 같이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선언」(1922), 「제네바선언」(1924), 「세계인권선언」(1948), 「UN아동권리선언」(1959), 「UN아동권리협약」(1989) 등

1) 김지수, 2003,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한 청소년자치활동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18쪽.

2) 조한해정, 2000,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또 하나의 문화, 173~174쪽.

국제사회의 노력은 청소년인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실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권리사상의 최초의 성문화라고 할 수 있는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은 5개 조로 “아동의 신체적, 도덕적, 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아동은 그의 재능을 동포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는 자각 속에서 양육되어야만 한다.”라고 끝맺는다. 이를 바탕으로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는 아동 복리를 위한 5대 원칙을 포함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제네바선언’을 채택했고, 이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UN)에 의해 재검토되어 1959년 10개 항목으로 된 「UN아동권리선언」으로 재탄생됐다. 이는 제네바선언의 내용을 더욱 확장한 것으로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적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1985년 유네스코 후원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청소년회의에서 채택된 ‘바르셀로나선언’은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해 언급했으며, 오랜 준비 끝에 UN은 ‘세계아동의해’ 10주년을 맞은 1989년 11월 20일에 「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을 채택했다. 이 조약은 2008년 말 현재 국제연합이 채택한 여러 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192개 비준국을 보유한 영향력 높은 국제조약이 되었으며, 한국정부도 1991년 11월 20일 비준에 동의했다.

이 조약은 전문과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의 국제조약에 비해 진일보한 특성을 가진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향유 주체인 ‘child’를 18세 미만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child’의 범위를 청소년으로까지 확장했다는 점과 인권에서 일부로 간주되던 시민권·정치권·경제권·문화권을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으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른 조약과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명권, 국적권, 신분보존권, 의사표시권, 사상·양심·종교·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등 시민적 권리는 물론, 가족동거권, 양육 받을 권리, 건강과 의료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 교육권, 장애아동의 보호, 놀이권 등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를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마약, 인신매매, 무력분쟁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특징으로 기존의 각국 법률이 통상적으로 성인의 시각에서 아동을 단순한 수혜자로 취급하는 데 비하여 아동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권의 적극적 향유주체로 상정한다. 또한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항상 아동·청소년의 최선 이익이 제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발전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포르투갈 브라가에서 열린 제3회 ‘세계청소년포럼’은 청소년 실천 계획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인류 발전에의 참여 권한을 부여해야 함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또한 같은 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1회 세계청소년관계장관회의(World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에서 채택된 「리스본선언」은 사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청소년 참여(youth participation)를 핵심 기조로 하였으며, 청소년은 상상력과 이상과 무한한 에너지와 비전을 가진 존

재로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 경제, 기술적 발전을 지속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규정했다.³⁾

따라서 오늘날 청소년인권의 개념의 핵심은 청소년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소년자치활동의 개념⁴⁾

‘청소년자치활동’을 말할 때 동일어로 ‘학생자치활동’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생은 한국사회에서 특수한 지위와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고 있다는 의미에만 국한되기 쉬우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같은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에게는 자치활동의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학생자치’라고 하면 학교에서의 특별활동 다시 말해 학생회활동, 동아리활동, 학급회의 등으로만 생각해 활동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현재 자치활동에 대한 정의는 학생자치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학생자치활동이란,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가 자율과 참여의 입장에서 자신의 조직을 구성하여 학급활동, 학생회활동을 전개해 학생의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을 키워 나가며, 고유한 자기 문화를 표현하는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체득해 나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⁵⁾

또한 여러 가지 의사기구나 표현을 통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학교현장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활동도 넓은 의미에서의 학생자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⁶⁾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자치활동은 이러한 개념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자치활동이 다양한 형태와 방식, 그리고 지역사회를 넘어 국제적 연대까지로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자치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겠다.

청소년자치활동이라는 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자치(自治)’라는 말인데, 이는 ‘스스로 다스린다’를 의미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청소년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청소년자치활동은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참여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조직을 구성해 자치의 경험을 체득하고, 권리 실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⁷⁾

3)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한국청소년연구』 제10권 제2호, 87~88쪽.

4) 김지수, 2003,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한 청소년자치활동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24쪽.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사업국, 1990, 『학생자치활동 1』, 푸른나무.

6) 김지선, 1999,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자치실현』,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쪽.

7) 시민자치정책센터, 2002, 『물뿌리는 느리게 질주한다』, 갈무리, 13~26쪽.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청소년자치활동은 <표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그중 동아리활동, 클럽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은 소극적 형태의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학생회활동, 학급회의, 청소년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미래유권자연대 등은 청소년자치기구로 볼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 복지회, 중고등학생연합 등은 적극적인 청소년자치활동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표 1> 청소년자치활동의 분류

영역		내용
학교	학급활동	학급회의, 학급부서활동, 학급출판활동, 학급행사
	학생회활동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언론·출판활동
	동아리활동	동아리회의, 동아리축제, 기타 활동
	자원봉사활동	환경미화, 기타 봉사활동
지역 (학교 외)	청소년위원회	회의, 사업 관련 활동
	동아리활동	동아리회의, 동아리발표회, 기타 행사 및 활동
	자원봉사활동	독거노인돕기, 환경보호 등 기타 봉사활동
	인터넷동우회활동	게임·카메라·학습활동 등
	청소년시설·단체활동	운영위원회, 동아리, 축제, 언론·출판, 조사, 토론회, 포럼, 교육, 워크숍, 캠페인활동 등
	시민단체활동	환경·정치·인권활동 등
	연대·교류활동	국제교류, 학생회연합, 중고등연합, 이슈에 대한 연합활동 등

3. 군포시 청소년인권과 자치활동의 역사

1) 청소년인권과 자치활동 기반 조성기

군포는 1980년대 말부터 수도권 5개 신도시 신설의 일환으로 산본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면서 인구 5만 돌파와 함께 1989년 시로 승격되었다. 이후 토지 수용과 주민 이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한 1990년을 제외하고는 신도시 입주가 완료된 1995년까지 매년 1만여 명, 최대 4만~5만여 명씩 증가해 현재 인구 28만 이상의 중소도시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도시와 농촌,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도시로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민층과 젊은층의 유입이 급격히 늘어났고 아동·청소년 비율도 함께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새 학교가 문을 열기 시작했고, 교육에 대한 욕구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만 해도 군포시에서 청소년은 단지 학생이었고,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만 구분될 정도로 인근 도시에 비해 모든 상황과 여건이 열악하였다. 중학생 때부터 ‘대포(대학 포기)’, ‘영포(영어 포기)’, ‘수포(수학 포기)’ 등이 유행어가 되었을 정도로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다.

지역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은 1997년 이후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관련 조사조차 전무한 상태였으나 전국적으로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면서, 1997년에 군포시민의모임이 군포지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 무렵 군포시민의모임을 중심으로 ‘청소년 성문화 인식조사(1997)’,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1차 조사(1997)’,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개최(1997)’, ‘청소년문화의집 개설에 관한 조사사업(1999)’,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2차 조사(1999)’ 등이 실시되었다.

또한 1998년 군포, 의왕, 안양, 부천, 고양, 성남, 과천 등 7개 신도시 지역 학부모가 연대하여 시작한 ‘고교입시평준화 운동’과 김윤주 제2기 민선시장의 ‘청소년 육성 제일 원칙’은 지역차원의 청소년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1998년 9월에 군포시민의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군포지회가 주축이 되어 군포 지역의 제 시민단체에 ‘군포시 새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시민 간담회’를 제안하면서 고교입시평준화를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연대단체인 ‘새교육공동체 군포시민연대’가 1999년 2월 창립하였고, 산본청년회, 군포JC, 군포시 문인협회,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합류하면서 연대를 확장해 나갔고, 군포시민의모임과 함께 학교, 놀이터, 공원,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안전도를 조사하는 지역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달라진 교육제도를 현직교사가 학부모에게 순회하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강좌’ 등의 활동도 펼쳐졌다. 2000년 10월 고교입시평준화 방침이 확정되면서 2002학년도 고교입시생부터 평준화 적용과 함께 발전적 해체가 이루어졌다.

한편, 1999년 3~4월에 시범 운영된 ‘청소년 차 없는 거리’는 시청 앞 8차선 대로 이마트 앞에서 원광대병원 앞까지의 도로를 막아 운영되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자동전화응답시스템을 활용해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85명 가운데 57.8%가 계속 운영을 희망했고, 24.3%는 장소 변경을 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했다. 군포시민의모임에서도 초·중·고등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6.8%의 학생들이 찬성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한 호응은 높았다. 그러나 교통통제로 인한 민원, 주말마다 많은 인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 한 달간 운영에 투입된 1억 700만 원이라는 예산 문제 등 만만치 않은 문제점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이런 문제들 때문이었는지 시행 두 달을 넘기면서 시는 5월 한 달 동안 8차선 도로를 빼고 시청 앞 진입도로와 시청 주차장을 개방하는 축소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차 없는 거리라는 개념이 무

색해지는 계획이었다. 이후 5월 26일 군포시민의모임 주최로 ‘군포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관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면서 시의 일방적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 개선을 위한 민관 운영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열띤 찬반토론회가 펼쳐졌으나, 결국 축소 운영되던 ‘차 없는 거리’는 확장되지 못하고 이마트가 입점하면서 사라져 버린 사업이 되었다.

1998년 말에는 전교조 군포지회와 군포시민의모임, 청소년동아리 대표들이 모여 청소년동아리 연합회를 결성하기도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해체되었다. 2002학년도 고교입시생부터 적용된 평준화가 군포 지역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예고했고, 평준화로 인해 모든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동아리연합회는 사라지게 되었다. 물론 청소년동아리연합회가 사라지게 된 원인이 야간자율학습의 전면 실시에만 있지는 않다. 당시 청소년동아리연합회는 군포시의 재정적인 지원과 통제를 동시에 받고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시와 시민단체 간 청소년동아리연합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 시민단체가 빠지면서 결성된 지 3년여 만에 자연스럽게 해산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전반적으로 청소년 관련 단체가 증가하고 시설도 대폭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을위한군포내일여성센터(1999년 1월 창립), 군포YMCA(2000년 6월 창립) 등 청소년 관련 단체가 창립하였고, 군포시청소년지원센터(1997년 3월 개설, 2006년 7월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자원봉사센터(1998년 8월), 청소년상담지원센터(1998년), 하나로 군포시청소년쉼터(2002년 11월 개원),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2000년 9월 개관, 청소년을위한군포내일여성센터 위탁 운영, 2008년 사단법인 좋은친구들로 위탁 변경)과 당동청소년문화의집(2000년 9월 개관, 교육자치를위한군포시민의모임 위탁 운영) 등 청소년 관련 시설도 하나둘씩 설립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에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건립시민대토론회’를 통해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를 제안받은 군포시는 토론회 이후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2회 정도의 회의만 진행되고, 이후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를 두고 청소년수련관보다는 벤처타운 건립을 해야 한다는 부지 선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장기간 지속되기도 했다. 결국 4년여 시간이 지난 2004년 6월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하고, 같은 해 8월 군포시청소년수련원이 개원하면서 청소년 문화도 자율성과 다양성을 가진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2) 청소년인권과 자치활동의 다양성 확장기

(1)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한계

군포 지역이 청소년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컸

다고 볼 수 있다. 김윤주 제2기 민선시장은 제1시책으로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이라는 모토 아래 2002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청소년 전담부서인 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청소년 관련 사업 및 학교 지원사업을 타시와 차별화해 추진했다. 이 시기에 청소년 관련 예산도 전체예산의 2%에 가깝게 지원이 확대되면서 2005년에는 ‘청소년교육특구’ 지정을 받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군포시는 2005년에는 청소년시책으로 ‘21세기형 우수인재양성 100대 프로젝트’를, 2006년에는 ‘청소년 허브(Hub) 도시 300대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인 청소년정책을 펴 왔다.

〈표 2〉 연도별 시 예산 대비 교육보조금 예산비율 및 예산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004	2005	2006	2007
교육지원예산	2,207	4,935	5,766	6,150
최종예산	278,453	293,674	340,808	338,858
비율	0.8	1.7	1.7	1.8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39·380~381쪽.

그 이후 노재영 제4기 민선시장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공교육 기능 확대’라는 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군포국제교육센터 건립 착공(2008년 8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사용 지원(100개교), 군포사랑장학회 설립 등을 통해 2008년 청소년교육특구 우수기관으로 선정(지식경제부)되는 등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다.

현재 군포시는 청소년 관련 조례를 7건 정도 제정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 ② 군포시 지방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 ③ 군포시 청소년 보호법과징금 감경에 관한 조례
- ④ 군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⑤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⑥ 군포시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⑦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군포시는 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참여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5월 29일 ‘청소년자치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위원회와 관련한 운영조례가

없어 청소년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활동자체가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표 3〉 군포시 청소년시책

연도	프로젝트 구성		프로그램 개수
2005	지식강국을 이끌어갈 우수인재 양성		16
	소질과 능력을 갖춘 창의적 청소년 육성		52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한 청소년 육성		32
2006	글로벌 인재양성	대회·공모코너	32
		영어코너	7
		과학코너	21
		리더쉽코너	3
	문화·체험프로그램	문화·여가코너	26
		체험·동아리코너	60
		독서코너	5
	성장프로그램	청소년복지코너	42
		진로·적성코너	6
		방과후활동코너	9
		청소년인권코너	9
		자원봉사코너	16
	지역사회네트워크	청소년지원망코너	14
		청소년참여코너	7
		성인교육코너	11
		기반구축 및 제도개선코너	29

(2) 관내 청소년 현황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군포시 청소년 인구를 2001년부터 연도별로 정리해 본 결과, 연령별 인구의 변동은 약간씩 있으나 전체적인 인구는 4만 명 정도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한다면 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표 4〉 연도별 청소년 인구

(단위: 명)

연도	구분	초등 3~6학년	중등	일반고	전문고	계
2001		17,756	11,801	7,646	2,654	39,857
2002		17,350	11,624	7,410	2,581	38,965
2003		17,212	11,504	7,364	2,652	38,732
2004		16,916	11,698	7,387	2,787	38,788

연도 \ 구분	초등 3~6학년	중등	일반고	전문고	계
2005	16,454	12,178	7,573	2,839	39,044
2006	16,275	12,356	7,688	2,912	39,231
2007	15,494	12,106	7,902	2,998	38,500
2008	15,099	11,846	8,128	2,879	37,952

출처 :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비고 : 초등학교 내 특수학급의 학생수는 제외되었다.

군포시 관내 학교의 청소년 동아리수는 비평준화 시기였던 2001년까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별로 다양하게 분포하여 200여 개가 넘었다. 2002년 고교입시평준화 실시 이후에는 고등학교에서 그 수의 변화가 커서 절반 정도가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서 중학교에서는 전통분야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학교별로 품물동아리가 구성되고, 2004년부터는 군포시가 청소년동아리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동아리가 학교별로 구성되기 시작했다.

〈표 5〉 청소년동아리 현황

(2006년 4월 현재, 단위 : 개)

계	고등학교	중학교	청소년시설
203	138	44	21

출처 : 군포청소년 허브(교육)도시(<http://www.gunpoyouth.net>).

절대적으로 청소년 활동시간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청소년동아리가 자생력을 잃지 않았던 저변에는 그들 스스로의 자발성이 있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더불어 청소년동아리활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 다양한 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자치능력의 신장을 위해 소신껏 일해 온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자와 관련 단체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표 6〉 연도별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현황

(단위 : 개, 천원)

연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지원 동아리수	22	70	100	60
지원액	22,000	35,000	50,000	30,000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370쪽.

한편 군포시는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7개, 대학교 1개 총 41개의 관내 학교 6개소의 청소년시설 등 청소년들의 자치활동 공간들을 확보하고 있으나 청소년범죄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2007년 현재 495건으로 전체 범죄 발생건수와 비교했을 때 약 7%를 차지하고 있어 2004년에 비해 2%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표 7〉 연도별 청소년범죄 현황

(단위 : 건, %)

연도	구분	총범죄	계	청소년범죄 발생 현황					총범죄 대비 청소년범죄 비율
				폭력행위 등	절도	유해화확	성폭력	기타	
2004		8,667	413	148	132	-	7	126	4.8
2005		7,750	350	122	110	-	8	110	4.5
2006		7,859	478	164	181	-	6	127	6.1
2007		7,168	495	196	125	-	11	163	6.9

출처 : 군포시, 2008, 『시정백서』, 658~659쪽.

또한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도 증가하고 있다. 과반수 이상이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여가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15~19세 연령층의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도 조사

(단위 : %)

연도	구분	불만족	계	불만족할 경우 그 이유					
				경제적 부담	시간부족	교통 혼잡, 이용 교통 수단 불편	여가시설 부족	여가정보 부족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2003		44.7	100	44.4	26.4	1.4	15.3	1.4	9.7
2004		58.0	100	48.3	25.9	1.7	10.3	1.7	10.3

출처 : 『군포통계정보』, 군포시청(<http://www.gunpo21.net>).

〈표 9〉 청소년 사망자수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중등	일반고	전문고	연도	구분	계	중등	일반고	전문고
1999		2	-	-	2	2004		1	1	-	-
2000		4	1	3	-	2005		8	4	4	-
2001		3	1	-	2	2006		6	3	3	-
2002		3	-	1	2	2007		3	1	1	1
2003		1	1	-	-	2008		6	2	1	3

출처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청소년 사망자수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청소년 면접

이나 지역신문의 보도를 통해 볼 때 청소년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고 추정된다.

(3)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도

그간 군포 지역의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운동이 지역의 교육문제로 접근하면서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문제 해결은 시도되지 못했다. 그러한 청소년인권운동 상황은 2002년에 전환점을 맞는데, 당시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가 청소년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지역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던 청소년인권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의제 발굴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2년 9월 1차 청소년인권학교를 시작으로 모인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통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2003년 4월 12일 '청소년 권리 찾기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과 반향을 지역사회에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으며, 2003년 8월 관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교사인권학교'를 개최했다.

또한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는 2003년 10월 25일 군포역을 중심으로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청소년 등 인권 소외계층이 함께하는 '2003 어울마당-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개최하면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청소년 인권도시 선언'을 선포했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며, 이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하나의 인간으로 어른과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를 시작으로 10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0개 항에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군포시와 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선언은 일회적으로 발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과 어른들이 모두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군포시 청소년들의 인권이 전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때까지 선언은 계속될 것이며, 청소년들과 청소년의 인권을 지키려는 어른들의 제안에 의해 계속 수정·보완되어 나갈 것"임을 명시하였다. 그 이후 '군포시 청소년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장님께 엽서보내기운동' 등을 전개했으며, 2004년 의제 내에 특별위원회로 청소년위원회를 발족하고, 2006년 제2차 청소년인권실태조사, 군포시 중·고등학교 급식실태조사, 청소년 인권 및 교육의 지역 시스템과 법제도 연구,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해외연수, 청소년 인권도시 다시보기 워크숍 및 캠페인 활동, 청소년이 만드는 인권 워크북과 리플릿 제작 및 배포, 청소년행복지수실태조사 등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자치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 외에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도 청소년인권과 자치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군포탁틴내일'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및 교육,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금연교육, 청소년성보호와 관련된 활동과 조사 등 청소년 관련 법률과 활동들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0년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 이후 군포시 관내 청소년 및 성인 인권감수성 조사 '우리의 인권 지수는?', 1318 권리 찾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군

포시 중·고등학생 인권실태조사',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활동, 학생인권 토론회, 청소년 유해 음반 모니터링프로젝트 '청소년 Music 수사대' 등 관련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교육자치를위한군포시민의모임'은 1997년부터 군포시 청소년유해환경조사, 군포지역 청소년 성문화인식도 조사, 군포시 청소년 쉼터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 군포시 청소년 차 없는 거리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청소년 문화의 집 개설에 관한 조사사업, 지역 안전 실태조사 등 청소년환경과 관련된 조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00년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 이후 군포시 PC방 시설환경 및 이용실태조사, 군포시 청소년 문화욕구조사, 청소년인권릴레이투어 등 청소년 문화와 관련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군포 지역의 대표적 청소년 시설인 군포시청소년수련관도 2004년 6월 개관 이후 청소년인권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숨은 권리도 찾고 봉사도 하고 다르게 함께하는 인권축제 '찾자! 깨자! 변하자!', 청소년인권학교 '아이 엠 유', 청소년 카페 청소년이 접수한다, 청소년자치학교, 청소년 사회참여 고속철을 타다, 청소년밥상토론회, 청소년자치학교 '청소년자치활동의 상상력 인문학 이야기', 제1회 청소년 포럼 '지속가능한 청소년 사회참여를 위한 청소년 포럼', 지역 사회 변화프로젝트 '패스트푸드점에는 왜 물이 없을까?', 청소년자치활동 3년 그 이후 '무한◎리필'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한편, 군포YMCA에서는 2002년부터 아동인권센터 개소 이후 일하는 청소년인권센터를 개소해 운영했으나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3) 청소년 관련 단체의 활동 연표

(1)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일정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2002년 10월 26일~11월 9일 (매주 토요일 14:00~17:00)	제1회 청소년인권학교 "청소년에게도 인권이 있을까?"	• 인권이 뭐야? • 내게도 인권이 있을까? • 난 무얼 할 수 있지?
2002년 11월 말~ 2003년 2월 말	2002년 군포시 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설문조사(735명) - 간담회를 통한 면접조사 - 길거리현황을 통한 인터뷰조사 • 조사보고서 발간

일정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2003년 4월 12일 (15:00)	청소년권리 찾기 토론회 청소년권리 내꺼야! 사랑해!	· 발제(군포시 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요약) · 지정토론 - 청소년에게 왜 인권이 필요한가?(전문가) - 법이 보장하는 청소년인권(변호사) - 청소년인권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제안(청소년) - 학생인권 실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교사) -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차원 방안(시의원) - 놀이권과 청소년문화(지역 청소년활동가) · 자유토론 - 청소년인권 침해의 핵심적 제도·관행에 대한 수집과 정리(학교생활규정, 학칙, 나이제한 등) - 청소년인권을 위한 사회적 역할(사회적 지지망, 네트워크, 청소년자치조직 활성화 등) - 청소년참여를 위한 제도와 운영(청소년위원회 등의 자발적 참여 도모를 위한 방법 등) - 청소년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 방안
2003년 5월 31일~6월 14일 (매주 토요일 14:30)	제2회 청소년인권학교 "방가방가 내권리!"	· 놀아줘~ 인권애 · 권리 내꺼야! · 성차별 나가 있어!
2003년 8월 11~14일 (14:00~18:30)	제1회 올타리 교실 "선생님이 배우는 인권이야기"	· 인권이란 무엇인가? · 아동·청소년의 권리 · 인권과 성 · 청소년자치활동 ·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 · 서로가 존중받는 학급 만들기 · 지역의 인권현실과 과제 · 아이들과 함께 생각하는 우리들의 권리
2003년 8월 14~15일 (1박2일)	청소년인권워크숍 "함께 찾는 내 권리"	· 모둠 나누고 게임도 하고 · 인권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 의사결정과정 맛보기 · 차차차 춤 배우기 · 조례내용 짜보기 · 학교생활규정 만들기 · 인권지킴이 활동(종합토론)
2003년 10월 25일 (14:00~17:00)	2003 군포어울마당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	· 청소년인권도시선언 · 이주노동자 건강검진 · 이주노동자 놀이 한마당 · 남녀가 평등한 가정만들기 · 보행이 자유로운 도시 · 인권 골든벨
2003년 12월 27일~ 2004년 3월 말	청소년위원회 준비모임	· 청소년위원회 구성 목적 및 위원 구성 논의 · 청소년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한 논의
2004년 1월 14~16일 (14:00~18:00)	제2회 올타리 교실 "선생님이 배우는 인권이야기"	·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 양성평등 교육은 어떻게 하지? · 인권이 존중되는 학급 만들기 · 의사결정 맛보기 ·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지역차원의 청소년인권교육 · 인권교육의 수업모형
2004년 4~12월	청소년위원회 발족	· 월1회 정기회의 · 위원회 사업 관련 논의
2004년 11월 22일~ 12월 10일	군포시 중·고등학교 급식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 설문조사 및 보고서 발간

일정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2005년 6월 11일 (9:00~12:00)	제3회 청소년인권학교 "방가방가 내 권리"	· 청소년인권 자유롭게 만들기1 · 청소년인권 자유롭게 만들기2
2005년 8월 17~18일 (1박 2일)	청소년인권캠프 "난, 소중한니까"	· 서로 친해지기 '마인드 맵 만들기' · 기초교육 프로그램 : 모둠별 조항 찾기 (세계인권선언 현대판으로 바꾸기) · 민족의식 고취 프로그램 : 백두대간놀이 · 공동체놀이 : 퍼포먼스, 마임형식 · 다함께 춤을 : 레크댄스 배우기 · 자유토론, 종합토론 및 정리·발표
2005년 11월 13~17일 (4박 5일)	청소년인권 및 교육의 지역 시스템과 법제도 '일본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 해외연수'	· 가와사키 시청 시민국 아동청소년권리담당 미팅 · 요코하마 중앙YMCA, 가와사키 시 종합교육센터, 가와사키 지방자치연구센터, 가와사키 시 후레아이관, 아동 코리아무용클럽, CAP가와사키(권리 관련 시민단 체), 가와사키 시 아동·청소년 꿈파크(놀이공간), 프리스페이스 엔(미등교 어린이 거처) 방문 ·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 미팅
2006년 2월 27일 (18:00~20:00)	청소년인권조례제정사업을 위한 일본 가와사키 시 사례발표회	· 사례발표[오윤혜(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청소년위원회 위원), 황정구(군포시청소년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지수(군포시청소년수련관 수련팀장)] 및 자유토론
2006년 7월~	군포시 청소년인권 조례(안)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 조례(안) 상정 때까지 월1회 정기회의 · 조례(안) 작성 및 설명회 (확대회의에서 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가 결정, 작성) · 조례(안) 설명회(2006년 7월 12일(18:00), 청소년네트워크 참가자 대상)
2006년 8~12월	2006년 군포시 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설문조사(8~11월), 간담회를 통한 면접조사(12월 초)
2006년 9월 7~9일 (2박 3일)	군포 지역 청소년들의 힘찬 합성 '청소년 국토 자전거 투어'	· 제주도 자전거투어(제주~서귀포 구간 완주) · 중간 휴식 및 주요 지점 탐방 (곽지해수용장, 협재해수욕장, 수월봉, 송악산, 산방산, 제주월드컵경기장) · 공동체 프로그램 · 동영상 촬영
2006년 12월 26일 (17:00~19:00)	2006년 군포시 청소년인권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발표
2007년 10월 21일 (9:00~20:00)	청소년 인권도시 다시보기 워크숍	· 2006년 군포시 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03 군포시 청소년 인권도시 선언문 검토 및 평가 (선언문 내용 수정·보완) · 선언문 평가 결과 가장 취약한 부분 등 청소년인권 관련 실천활동 짜보기, 놀이를 통한 청소년 인권 체험, 공동체 놀이
2007년 11월 11일 (14:00~17:00)	청소년 인권도시 다시보기 캠페인 활동	· 청소년인권을 주제로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 UCC 대회, 노래가사 바꾸기, 4·5행시 쓰기, 거리투표
2007년 11~12월	청소년이 만드는 인권 워크북 및 리플릿 만들기	·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인권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성인과 학교 선생님, 청소년지도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워크북 및 리플릿 제작
2008년 9~12월	청소년인권지수실태조사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 군포탁틴내일

일정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2000년 8월 16~18일 (14:00~17:00)	봉사하며 배우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 자원봉사의 의미 · 성교육 · 청소년보호법 및 위반사항 고발장 작성하기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 및 인지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 청소년 흡연의 유해성 교육 및 거리 캠페인
2000년 11월 11일~12월 17일 (매주 토요일 14:00~18:00)	봉사하며 배우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 자원봉사의 의미 · 유해·유익환경 알기 · 광고 역할극 짜기 · 역할극 발표 · 기사내용 정리하기, 취재 요령 및 기사 작성법, 1인 1기사 취재 및 작성(조별 토론, 조별 기사 선정, 조별 대표기사 쓰기) · 청소년 기자단 설명 및 정리
2001년 12월 26~28일 (14:00~16:30)	봉사하며 배우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 어떤 것이 신문기사가 될까? · 청소년 금연교육 · 조별 기사작성 및 취재활동
2003년 12월 20, 27, 28일 (14:00~18:00)	봉사하며 배우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 오리엔테이션 · 자원봉사교육 · 청소년인권 교육, 청소년인권 토론, 청소년인권 알리기(캠페인) · 청소년인권에 관한 기사 이해하기, 청소년 기자단 교육, 기사 작성하기, 기사 발표하기
2006년 3~10월	군포시 관내 청소년 및 성인 인권감수성 조사 '우리의 인권 지수는?'	· 설문조사(200명)
2007년 3~10월	1318 권리 찾기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군포시 중·고등학생 인권실태조사'	· 설문조사(652명)
2007년 3~12월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활동	· 청소년 참여활동, 청소년 과제활동, 청소년 순찰활동
2007년 5월 29일	학생인권 토론회	· 두발자유, 체벌, 야간 자율학습, 사생활권 침해
2008년 11~12월	청소년 유해음반 모니터링프로젝트 '청소년 Music 수사대'	· 모니터링단 구성(청소년, 학부모) · 음반심의 및 대중음악 실태에 관한 교육 · 모니터링 대상 음악 선정, 가사&음악 모니터링 · 청소년과 학부모 토론회 · 자료집 제작 · 모니터링 결과 전달

(3) 교육자치를위한군포시민의모임

일정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1997년	군포시 청소년 유해환경조사	· 설문조사 및 보고서 발간
	군포지역 청소년 성문화인식도 조사	· 설문조사 및 보고서 발간 · 기자회견
1999년	군포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 설문조사 · 시민토론회(5월 26일)
	청소년 문화의 집 개설에 관한 조사사업 실시	· 타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탐방 · 설문조사 및 보고서 발간
	군포시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2차 조사 실시	· 설문조사 및 보고서 발간
1999년 1월 29일	군포시 청소년 쉼터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	· 실태조사 · 토론회
1999년 7~10월	지역안전실태조사	· 학교, 놀이터, 학교 주변, 공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조사 · 공청회 개최
2000년	군포시 PC방 시설환경 및 이용실태조사	· 현장조사 및 보고서 발간
2001년	군포시 청소년 문화육구조사	· 설문조사 및 보고서 발간
2005년 7~10월	청소년인권릴레이투어 (당동청소년문화의집)	· 인권교육&토론회(7월) · 인권영화제&인권체험마당(9월) · 인권전시마당&퍼포먼스(10월)

(4) 군포YMCA

일정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2002년 4월	일하는 청소년인권센터 개소	· 상담활동 · 조사사업 · 미래체험교육 · 일하는 청소년인권센터 간담회
2002년 4~12월	군포YMCA아동인권센터 운영	· 아동인권 정책개발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 학교 및 동네 순회 아동 인권교육 실시 · 부모 인권교육 실시 · 아동인권 향상을 위한 아동인권 문화제 및 아동인권 캠페인 실시
2002년 6월 1일~7월 31일	어린이 인권 향상을 위한 군포지역 시민의식조사	· 군포 지역 거주 학부모 231명에 대한 설문조사
2002년 11월 26일	군포YMCA아동인권센터 간담회 및 아동인권 정책제안	· 군포YMCA아동인권센터 운영 보고 · 어린이 인권향상을 위한 군포 지역 시민 의식조사 결과발표
2003년 연중	일하는 청소년인권 관련 상담 활동	·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면접상담 등
2003년 3~12월	일하는 청소년인권센터 홍보	· 일하는 청소년인권센터 상담 및 교육활동 스티커 1,000개, 홍보지 5,000부 제작 배포

일정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2003년 4~7월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침해사안 면접 설문조사	· 군포 지역 거주 또는 소재 학교 재학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 · 고등학생 설문조사(300명) · 식사시간에 대한 규정, 식단에 대한 배려, 휴일노동에 대한 청소년 동의 여부, 휴식시간의 확보여 부, 작업장 안전정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유, 급여 관련 부당대우, 인권침해 사례, 일하는청소년인권센터에 바라는 일 등
2003년 4~12월 (격월 1회)	일하는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 군포 지역 청소년활동 관련 전문가 10명 대상 · 군포 지역 일하는 청소년인권센터의 활동내용 구축 및 평가, 일하는 청소년 활동 관련 교육
2003년 7~8월 (6회)	청소년 미래체험교육	· 군포시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 15명 대상 · 진로적성검사, 나의 미래 들여다보기
2003년 12월	군포 지역 일하는 청소년인권보호 및 인권센터 발전방향에 관한 간담회 개최	· 2003년 활동보고, 설문조사 활동 결과발표,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례발표, 일하는 청소년인권센터의 발전방향 및 지역적 과제 등

(5)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일정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2004년 8월 16~18일	숨은 권리도 찾고 봉사도 하고	·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획, 홍보물 제작 등
2004년 10월 9~10일	청소년인권학교 "아이 엠 유"	· 1강 : 인권이 뭐야? · 2강 : 청소년 인권 찾기
2004년 10월 30일	다르게 함께하는 인권축제 "찾자! 깨자! 변화자!"	· 개막식 · 길거리특강 · 인권실태조사 · 인권골든벨, 인권사건전시회, 학교생활규정만들기, 인권도미노, 그래피티, 알바는 즐거워, 인권다트놀이 등
2005년 4월~2006년 12월	청소년 카페 청소년이 접수한다.	· 청소년 카페 운영 · 청소년 략프로젝트 운영 · 청소년 테마카페 운영
2005년 7월 25일~8월 13일	청소년자치학교	· 청소년인권신장을 위한 청소년자치활동은 뭘까? · 지역실태 조사 어떻게 하는 걸까? · 지방자치 뒤집어보기 · 지역이슈&현황 알아보기 · 지역살림살이 엿보기 · 시민의 참여는 어디까지
2006년 3~12월	청소년 사회참여 고속철을 타다.	· 지역을 바꾸는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사업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아이디어 선정 · 컨설팅단 구성 · 아이디어 사업 지원 · 아이디어 컨퍼런스 · 매뉴얼북 제작
2006년 5~12월(6회)	청소년밥상토론회	· 1회 : 청소년 봉사활동 이야기 · 2회 : 평택 미군기지 이전 찬반 토론 · 3회 : 청소년 참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4회 : 위탁급식 이대로 좋은가 · 5회 : 왜 두발자유를 말하니? · 6회 : 청소년 인권의 문제다!

일정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2006년 7월 26~28일	청소년자치학교 "청소년자치활동의 상상력 인문학 이야기"	• 1강 : 토론과 논리(모둠별 논리퀴즈 풀기) • 2강 : 철학사 강의1 (근대철학의 성립 : 데카르트부터 칸트까지) • 3강 : 철학사 강의2 (근대를 뛰어넘기 : 프로이트부터 니체까지)
2006년 11월 19일	제1회 청소년 포럼 "지속가능한 청소년 사회참여를 위한 청소년 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실태조사(9~10월 중 420명 조사) •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 내 청소년운영위원, 군포시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동아리, 청소년기자단 등 청소년 대상 • 퍼포먼스, 포럼, 즉석투표, 청소년 사회참여 사례전시, 놀이체험, 먹을거리 나눔 등 • 발제 - 청소년 사회참여 실태조사 분석 (김두민 / 랩인 소울 동아리) - 청소년들이 도시를 계획하고 예산을 정한다고? (하승우 / 한양대학교 제3센터연구소) • 지정토론 - 설문조사를 통해 본 사회참여의 필요성과 방법 (길은배 / 한국체대 스포츠청소년지도학 전공) - 청소년 사회참여의 사회적 인식 (우영욱 / 리플레이슬라럼 동아리) -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몸으로 하는 공부 (정안철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 (박근태 /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기자단 '청루') - 청소년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 (유단비 / 군포시청소년자치위원회) - 청소년 사회참여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김지수 / 군포시청소년수련관)
2007년	패스트푸드점에는 왜 물이 없을까?	• 패스트푸드점에 먹는 물 설치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공개토론회 개최 • 패스트푸드점 본사에 제안서 보내기 • 패스트푸드점 물 설치를 위한 캠페인 실시
2007년 6월 7일	청소년자치활동 3년 그 이후 "무한@리필"	• 청소년자치활동 거꾸로 보기 토론회 • 여론마당, 이야기가 있는 문화카페, 체험마당, 음식나눔, 길거리 특강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개관 5주년 기념 청소년 문화축제

4. 군포시 청소년인권과 사회참여의 현주소

1) 청소년인권의 현주소

군포시 청소년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변화되고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청소년의 인권과 자치활동의 역사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어떠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험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과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지, 이런 인권침해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인권이 포괄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푸른희망군포21 실천협의회가 2003년과 2006년에 실시한 ‘군포시 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비교 사례로 하였다. 2006년도 조사는 2003년 실시된 조사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3년 동안 달라진 청소년문화를 감안해 현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면서 불필요한 내용들은 삭제하고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할 내용들을 일부 포함시켰다.

(1) 가정에서의 청소년인권

가정에서의 청소년인권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을까? 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가정에서 청소년의 의사결정 권한은 2003년이나 2006년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조금 또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응답이 60%정도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서 ‘항상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응답은 2003년 29.7%에서 2006년 22.6%로 나타나서 7% 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이성교제에 대한 보호자의 간섭은 2003년 37.3%에서 2006년 42%로 5% 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응답도 2003년 29.4%에서 2006년 37%로 나타나서 7%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으며, 면접조사 결과, 핸드폰 문자나 통화 내역 등을 보호자가 몰래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정도는 2003년 80%, 2006년 38.5%로 나타났다. 두 결과를 보면 2006년 결과는 2003년에 비해서 40% 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인데, 이로 미루어 보면 가정폭력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6년에는 ‘다른 집의 자녀와 비교당하느냐’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청소년의 67.8%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형제, 자매와의 비교보다 18%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2)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

청소년 설문과 청소년 그룹 면담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을 분석한 결과, 2003년과 마찬가지로 2006년도 청소년 대부분이 학교라는 특수성에 따른 구조적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교사체벌 등에서 40~90%의 청소년이 정도는 다르지만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두발, 복장, 개성 등 표현의 자유는 2006년이 2003년에 비하여 3% 정도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이에 비해서 외모, 성격,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는 2003년 60.5%에서 2006년 68.7%로 8%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고, 청소년자치활동의 제약도 2003년 40.6%에서 2006년 46.3%로 6% 포인트 정도 상승하였다. 가장 큰 상승은 교사로부터의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이 2003년에 비해서 2006년에는 12% 포인트 정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면, 다른 학생으로부터 어떤 신체적 위협이나 학대, 폭행, 폭언을 당한 적이 있는 정도는 2003년 31.6%에 비해 2006년 20.3%로 11% 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혀 없다'는 응답은 54.2%에서 67.1%로 13% 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타 학생으로부터의 학교폭력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권 침해에 해당하는 일기·소지품·가방 검사 등은 2003년 56.2%에서 2006년 45.6%로 10% 포인트 정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

2006년 조사에서는 변화된 청소년문화를 반영하여 휴대폰과 액세서리 관련 조사도 실시되었다. 그 결과, 55%의 청소년이 휴대폰이나 액세서리를 일주일에서 한 달간 선생님께 강제적으로 압수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3.1%는 아예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은 핸드폰과 액세서리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이 없어 교사의 재량으로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 피해 유형은 다양했으며, 청소년이 받아들이는 데에서도 많은 반감을 가진 것으로 면접조사 결과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참여를 묻는 질문에 응답 청소년의 46%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한 반면, 31.7%는 '학교의 동의에 따라 협의하여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해 상당수 청소년이 자발적인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참여하지 않거나 관심 없다'는 응답도 21.3%를 차지했는데, 면접조사 결과 "자신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른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자치활동의 꽃인 '총학생회'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학교 학생의 대변자'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0.2%, '청소년의 권익을 위한 일' 19.6%, '학교와 학생 간의 중개자' 또는 '교사의 전달사항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7.4%를 차지하였다. 조사 결과, 상당수 청소년이 자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생회에 대한 관심 또한 학급 반장에 대한 관심보다 적었고, 학생회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

인은 학생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인해 암묵적인 특혜를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되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점수, 장학금, 대학입학 시 가산점 등 다양한 특혜가 학생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2003년과 2006년 조사를 비교하면, 3년의 시간차가 있음에도 그 결과에서 여전히 학생인권 문제가 교문밖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주된 원인은 입시 위주의 사회풍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인권을 담보로 한 기성세대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면 “대학 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유보된 권리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를 오래도록 지배하고 있는 입시 위주의 교육시스템이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학교 안의 학생인권은 늘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고, 제로섬 싸움으로 치닫는 입시전쟁 속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이 늘 제자리걸음 할 수밖에 없다.

(3)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인권

군포시 ‘청소년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중복응답을 허용한 결과, 응답 청소년의 3분의 1 가량은 어떤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여 체크조차 못했으며, 3분의 2 가량은 ‘청소년교육특구’, ‘청소년전용공간 확충’ 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군포시 청소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52.2%로 과반수를 넘었으나 ‘관심 없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48%나 되었다. 또한 참여하겠다는 응답 가운데 47.3%는 ‘참여해 보고 싶다’고 소극적 응답이었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더라도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결과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을 청소년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청소년이 청소년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인권침해 시 보호받을 곳’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06년 조사에서는 ‘인권침해 시 보호받을 곳이 지역에 있다’는 응답이 30%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3년 조사의 28%와 비슷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시설이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지역 안전망의 조성이 필요함을 알려 준다.

일할 권리에 대한 질문에는 80% 이상이 청소년에게 일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이 차별’이라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상정보 침해는 학교, 인터넷, 학원, 가정에서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2003년에 비해서 2006년 조사결과에서 3% 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03년 면접조사를 수렴하여 2006년에 학원에서의 청소년인권 침해 정도를 조사했는데, 학원에서도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

두 조사의 결과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청소년인권 지수가 50점 이하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2003년 53.8%이었던 데 비해서 2006년 60.8%로 나타나서 7% 포인트 정도 증가한 점이다. 이는 청소년인권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2) 청소년 사회참여의 현주소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바라보는 관점은 ‘청소년을 사회참여의 발전적 주체인 동반자적 관계로 보는 관점’과 ‘청소년을 희생자적 관점으로 보는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종속적 존재 또는 미래를 위하여 현재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유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일 수 있다.

2006년에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포시 청소년 사회참여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사회참여가 세상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48.4%, ‘청소년도 시민이기 때문에’ 31.6%라고 응답하여 청소년기에 사회참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포시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주로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영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면, ‘동아리 활동’ 35.3%, ‘종교활동’ 12.5%, ‘참여활동 없음’ 20.8%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성세대가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참여활동에 편중되어 있고,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 부재 청소년이 다수 존재(20.8%)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2.3%)이 미흡한 데 따른 결과다.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은 자발성을 바탕으로 할 때 그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데, 청소년의 사회참여 부진의 문제는 기성세대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그 운영과정의 부족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는 청소년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그들의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50.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정작 본인의 사회참여에 대해 28.1%만이 그 대상자라고 응답해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결과가 상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소년 사회참여 보장 시 참여의사에 대한 질문에 ‘생각해 보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두 번째로 많은 30.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그들의 자발적 참여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현재 청소년

들이 사회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사회참여가 청소년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자기결정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거나 타인의 문제로 넘기려는 인식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준다.

청소년이 사회참여를 못 하는 주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야간 자율학습, 학원 등)’ 55.2%,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의지 부족’ 19.4%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야간 자율학습 폐지’ 25.9%, ‘입시제도 개선’ 20.3%,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개발’ 19.4%,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7.0%로 나타났다.

기성세대가 현재 청소년의 사회참여 권리를 강제적으로 유도시키는 이유가 입시와 관련된 문제라면 청소년 역시 사회참여의 저해 요인으로 입시 관련 문제를 들고 있다. 양자 모두 사회참여를 유도시키거나 어려움을 겪는 공통분모로 동일한 대상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입시제도가 전향적으로 수정되어 청소년들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청소년층의 사회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기초로 할 때,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참여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 참여를 선택하는 자기결정 의지도 중요하다. 이러한 결정은 청소년 스스로가 체득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동의하는 기성세대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참여 문제를 거대 담론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일상 담론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문제를 사회적 이슈화하는 것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회참여는 거대 담론으로 정형화된 부분도 있다. 사회참여를 실천하는 청소년은 기성세대에 대항하는, 또는 학업을 등한시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청소년으로 치부하는 편견이 개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회참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견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용기와, 주변인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쟁점화 과정이 오히려 청소년층의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는 거대 담론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사회참여는 반드시 특정한 기구나 조직, 그리고 정치 문제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 성격의 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참여의 출발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 백

제6장 청소년과 함께 쓴 청소년 이야기

권나현 | 전 군포신문 기자 외

이 글은 군포시의 새싹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글 속에 담아 보자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각종 통계자료나 전문적인 글에서는 다루지 못할 소소한 이야기들, 즉 청소년들이 느끼고 바라는 바와 꿈,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글 속에 담아 보자는 의도였다. 우리 청소년들을 빗갈로 표현하자면, 일곱 빗갈 무지개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가지 색깔로 비유해도 모자랄 만큼 그들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런 다양한 빗갈만큼 그들의 이야기도 너무도 다양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두 다 다룰 수 없기에 그중 몇몇 사례에 한정하여 소개할까 한다. 한편, 이 글은 『군포시사』 편찬작업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소 거칠고 체계가 잡히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이 글의 완성을 위해 직접 참여토록 하였다.¹⁾

1) 이 글의 전반부에 실린 내용들은 『군포신문』의 「군포인재를 만나다」를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군포신문 학생기자단 소속 초·중등학생들의 글을 실었으며, 각 글에는 글을 쓴 학생들의 이름을 명기해 두었다.

1. 다양한 색깔로 군포를 빛낼 새싹들

1) 얼음과 눈 위에서 펼쳐는 꿈

빙상의 불모지이던 군포에 그 꽃을 피운 사람은 다름 아닌 피겨요정 김연아 선수다. 김연아 선수가 도장중학교를 졸업하고 수리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세계적인 피겨 선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자 수리고등학교는 2006년에 빙상팀을 창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후 군포시와 빙상연맹, 기업체의 후원도 이어졌다. 이렇게 되자 대관료 등 개인 훈련비용에 부담을 느낀 타 지역 피겨 선수들뿐 아니라 스노보드 선수들도 수리고등학교를 찾기 시작했다. 수리고등학교 현종민 교장은 타 지역에서까지 찾아오는 것에 대해 “선수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들을 배려하고 훈련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점과 김연아 효과”를 그 이유로 들었다. 이에 힘입어 수리고등학교는 2008년에 스노보드팀까지 창설했다.

현재 수리고 피겨스케이팅팀에는 김연아 선수와 함께 4대륙피겨선수권대회에 출전해 14위를 기록했던 김현정(18) 선수와 국가대표 박민정(17) 선수를 비롯해 장혜승(17) 선수 등이 소속돼 있다. 그중 김연아 선수를 가장 닮고 싶다는 김현정 선수를 먼저 만나보기로 하자.

김현정 선수는 서울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수리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안짱다리를 교정하기 위해 피겨를 시작했는데, 꾸준한 노력으로 2006년부터 국가대표로 발탁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간 2003년 전국피겨스케이팅대회 금메달, 전국동계체육대회 제85회부터 제88회까지 금메달, 2009년 전국종합선수권대회 2위와 전국동계체육대회 여고부 조 1위 등 다양한 대회에 출전해 실력을 쌓았고, 2009년 4월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트리글라브대회에서도 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얻었다. 김현정 선수는 “공항에 도착해 스케이트가 든 가방을 잃어버려서 대회 출전을 포기하고 있다가, 경기 시작 바로 전에 짐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연습도 없이 대회에 나갔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어 더 기뻐다.”며 소감을 말했다. 또한 “진담나는 에피소드는 있었지만 국제대회에 나가 받은 첫 메달이어서 더 값지게 느껴진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도 꼭 출전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유연한 스핀, 스피드, 깔끔한 점프가 특기인 박민정 선수는 2006년부터 국가대표로 선발돼 활동 중이다. “피겨가 좋아 평생 그만두지 못할 것 같다.”는 박민정 선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스케이트를 탔다고 하며, 2009년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주니어 1위, 2008년 ISU 주니어 그랑프리 제3차 멕시코컵 3위, 홍콩 아시안 트로피 주니어 2위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박민정 선수는 “항상 손과 발이 돼 주시는 어머니를 비롯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학



수리고등학교 빙상팀

교에 감사 드린다. 앞으로 김연아 선배의 점프력과 표현력을 더 배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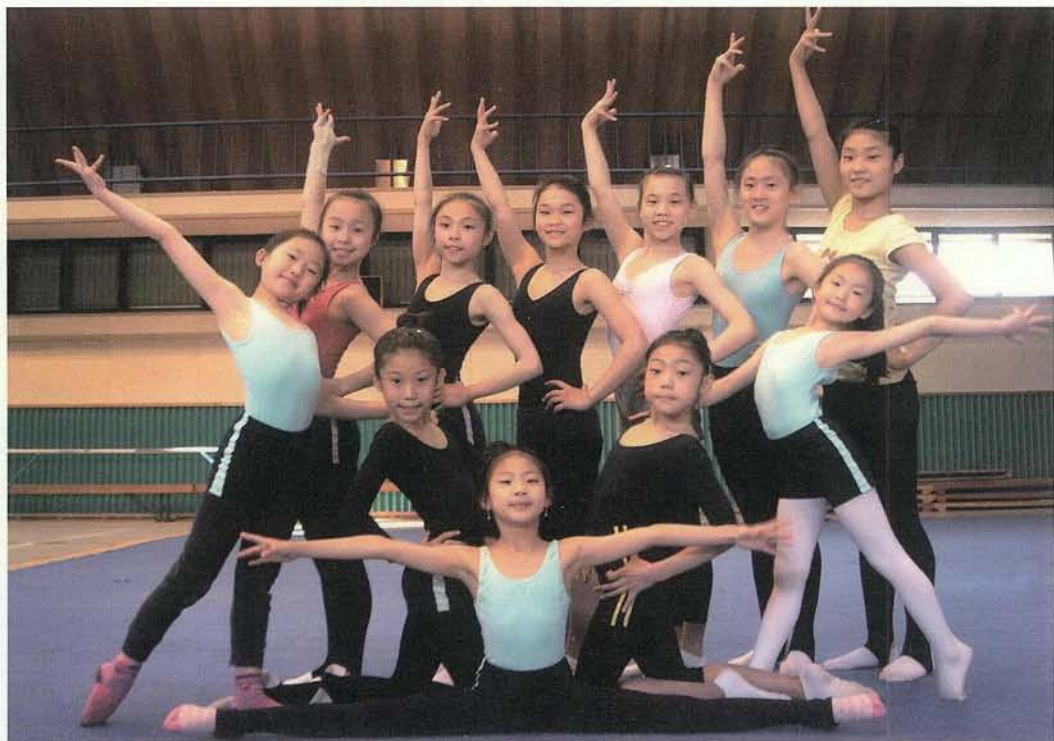
세 선수 중 가장 늦게 피겨를 시작한 장혜승 선수 역시 피겨 때문에 수리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다. 피겨를 시작한 지 이제 4년차 새내기라서 아직 배우고 다듬어야 할 기술이 더 많다는 장 선수는 좀 더 힘있게 스케이트를 타고 싶단다. 그리고 “아직 화려한 수상 경력과 대회 출전 경험은 많지 않다. 하지만 차근

히 준비하고 열심히 배워 꼭 태극마크를 달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한편, 이 학교에는 우리나라 스노보드계를 이끌어 갈 선수진도 포진해 있다. 신봉식 선수와 이재정 선수가 그들이다.

현 국가대표 신봉식 선수는 운동 마니아였던 아버지를 따라 여섯 살 때 처음 스노보드를 신었다. 그 매력에 빠져 중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진로를 정하고 스노보드에 ‘올인’ 했다. 가장 추운 겨울 딱딱한 보드를 신고 찬바람을 맞으며 하는 운동이기에 비염, 목감기를 달고 살기 일쑤지만, 신 선수는 눈 위에서 짜릿한 속도감을 즐길 수 있어 스노보드가 좋으며 “1년 중 대부분 시간을 집 떠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외롭고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없어 아쉬움도 있지만, 이 분야에서 꼭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 더욱이 얼짱 스노보더로 유명한 신지혜(연세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선수가 누나여서 더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는데, “평소 누나와 경기 분석도 하고 부족한 점은 조언을 듣기도 한다.”며 우애를 과시했다.

한국의 그라브너(Siegfried Grabner, 오스트리아 국가대표)를 꿈꾸는 이재정 선수는 중학교 1학년 겨울에 1주일간 스노보드캠프를 참여하면서 이 운동과 인연을 맺었다. 그 후 재미삼아 첫 출전한 대구시교육감배대회서 3위를 차지했다고 하니 보통 인연은 아니었던 듯하다. 이재정 선수는 “스피드의 짜릿함, 경쟁할 때의 승부욕, 승리 후 성취감이 보드의 매력이다.”라며 꼭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해 본인을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한다.



군포초 · 용호중 · 흥진고의 리듬체조부 선수들

2) 매트 위에서 아름다움을 만드는 요정들

리듬체조는 줄, 리본, 공, 후프, 곤봉 등의 기구를 들고 음악에 몸을 맡기는 여자체조 종목이다. 군포시에서는 10년 전 군포초등학교에 처음 리듬체조부가 생긴 이래, 2009년 현재 군포초등학교 · 용호중학교 · 흥진고등학교에 다니는 12명 정도의 학생들이 리듬체조부에 소속되어 매트 위의 요정을 꿈꾸며 땀 흘리고 있다. 현 국가대표 신언진 선수를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흥진고등학교 최현희와 박애정, 용호중학교 장혜연, 군포초등학교 양현진 선수 등이 대형 선수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매트 위의 요정을 꿈꾸는 새싹들 중 한두 명의 사례만 살펴보자.

만연닌인 최현희 선수는 국가대표로 올해 9월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에 출전한 바 있다.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출전한 최현희 선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조미자 코치의 권유로 리듬체조를 시작해 지금까지 한길만을 걷고 있다. 2006년 중고연맹 · KBS배 · 소년체전 종합 3위, 2007년 제22회 경기도협회장기체조대회 여중부 줄 · 후프 · 볼 · 리본 · 개인종합전 부문서 금메달, 2008년 단체전 국가대표 선발 등이 최근 최 선수의 이력이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국가대표 안나 베소노바처럼 무대에서 관중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학교공부

와 훈련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부모님께서도 저를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였다.

현 흥진고등학교 리듬체조부 정성화 코치는 “현희는 굉장히 착하지만 욕심이 많은 아이예요. 또 양손잡이여서 하나를 가르치면 다른 선수들보다 빨리 익혀요. 선천적으로 몸이 조금 뻣뻣해 처음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최선을 다해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어요.”라고 말했다. 욕심이 많다는 표현은 그만큼 의욕이 크고 그것을 위해 성실히 임한다는 의미다. 그래서인지 최 선수의 가장 큰 장점도 ‘근면함’이라고 한다. 군포의 연습실이 협소해 매일 5~6시간의 훈련을 위해 서울세종고등학교 체육관을 찾는다는 최현희 선수는 지각 한 번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한편, 초등학생 중에서는 양현진 선수가 다른 선두들에 빨리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양현진 선수는 2009년 4월 치러진 소년체전 리듬체조 경기도 대표 최종선발전에서 박애정 선수와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 도 대표로 선발된 바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리듬체조를 배우기 위해 당정초등학교에서 군포초등학교로 전학했다는데, 리듬체조를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된 초보지만 매년 각종 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다. 양현진 선수는 “다양한 부문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손연재 선수 같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3) 우리의 꿈은 프로바둑기사

최근 바둑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동아리활동으로 바둑반이 설치된 학교도 적지 않다. 흥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바둑축제를 열고 있다. 축제 기간에는 학생들이 수준별로 나눠 개인전을 벌이고, 학급 대항으로 줄바둑, 흑백 이용 무늬 꾸미기, 알까기, 오델로 등 재미를 더하는 행사를 연다. 2009년에는 40여 가족이 참여한, 온가족이 함께 하는 알까기대회도 진행하였다.

흥진초등학교가 이처럼 바둑에 관심을 갖는 배경에는 바둑영재반이 있다. 바둑영재반에서는 1학년 때부터 남다르게 바둑에 재능과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해 집중·육성하는데, 30여 명의 학생들이 정홍균, 박문홍 지도사범으로부터 수준 높은 바둑교육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면 곧장 영재반에 모여, 개인별로 바둑판 앞에 앉아 사범의 지도에 따라 문제를 풀고 서로 대국을 하며 실력을 쌓아간다. 지도사범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활용한다.

정홍균 지도사범은 “흥진초 바둑영재반 학생들의 바둑 실력은 모두 도장급 수준이다.”고 평했다. 프로기사를 꿈꾸며 하루 종일 바둑교육만 받는 학생들 실력과 맞먹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

학생들은 정규수업까지 다 받고 난 후 오후 시간에만 바둑을 집중적으로 배우는데도 실력들이 아주 우수하다.”며 “앞으로도 이렇게만 학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배운다면 훌륭한 프로기사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둑영재반 학생들의 열의와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5학년 김민식 학생은 “바둑을 배우면서 집중력도 좋아졌고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또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습관도 생겨서 바둑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라며 만족해 했다. 1학년이지만 그 실력은 전국에서 열손가락 안에 든다는 정민규 학생은 “4살 때부터 바둑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냥 바둑이 좋아서 영재반 수업 끝나고도 집에 가면 두 시간씩 꼭 바둑을 뒀요. 게임보다 훨씬 재밌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3학년 김병현 학생은 “바둑 배우면서 머리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바둑을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바둑에 대한 예찬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바둑영재반 학생들은 2009년 5월 30일~6월 2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중국 청소년 바둑대회에 출전해 1·3·5위를 휩쓸며, 이 학교의 수준 높은 바둑 실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대회에서 우승한 5학년 김동현 학생은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전술을 구사했는데, 그것이 적중해 일등을 할 수 있었다. 아주 재미있는 대회였다.”며 “학교에서 마음껏 바둑을 두고 배울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 공격 잘하는 프로기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4) 탁구신동, 세계를 안을 날을 꿈꾸며

세계적 스타가 된 김연아 선수를 이을 기대주가 있다. 누가 보아도 탁구신동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홍진고등학교 1학년 양하은 선수다. 양하은 선수는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태극마크를 달고 2009 요코하마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복식 부문에 출전하기도 했다. 탁구채를 잡은 지 10년 만의 쾌거인데, 출전에 앞서 “아직도 얼떨떨해요. 훌륭한 감독님과 기량이 좋은 선배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라며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양하은 선수는 대회 출전에 앞서 태릉선수촌에서 맹훈련을 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훈련에 쏟았는데, 훈련이



홍진초등학교의 '신나는 바둑축제'



어렵고 팀에서 막내라 힘든 점도 있지만 오히려 동료 선수들을 보며 많이 배운다고 하였다. 특히 혼합복식 파트너인 김동현 선수에 대해서 “파트너 김동현 선수가 정말 잘해요. 제가 힘이 부족한데, 훈련기간 동안 많이 보완할 생각이예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의 꿈을 이룬 양하은 선수는 수비 능력과 볼 감각 및 백핸드 스피드가 탁월하다고 평가받는다. 여자대표팀의 현정화 감독도 “여러 면에서 탁월한 친구다. 중국선수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파워와 포어핸드 드라이브 특점력을

강화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선수죠.”라며 호평한 바 있다. 그리고 국제탁구연맹은 대회에 앞서 “현재까지 세계선수권 여자단식에서 중국 선수가 아닌 선수가 우승한 경우는 현정화밖에 없었다. 그 다음으로 이 위업을 달성할 선수는 한국의 양하은”이라는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향후 양하은 선수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양하은 선수의 이력은 나이에 비해서 매우 화려하다. 2009년만 하더라도 도하 주니어 오픈 탁구대회 단체전·개인단식·개인복식·카펫 개인단식 우승, 대한탁구협회 신인상 수상에 빛나고, 2008년에는 중국 타이유안 주니어 오픈 탁구대회 단체전 2위·개인단식 3위, 제14회 아시아 주니어 탁구 선수권대회 여자 카펫 개인단식 준우승, 스웨덴 주니어 오픈 탁구대회 개인복식 우승, 2007년에는 제13회 아시아주니어 탁구선수권대회 파견 최종 선발전 1위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이처럼 화려한 수상 경력이 개인의 능력만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주위의 관심과 지원, 특히 부모의 적극적인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양하은 선수가 처음 탁구채를 잡은 건 여섯 살 무렵, 그녀의 어머니가 장난삼아 쥐어 준 탁구채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계기였다. 양하은 선수의 어머니 김인순 씨는 대우증권 여자탁구 창단 멤버였기에 딸의 재능을 일찌감치 발견하였고, 그 후 물심양면으로 딸을 뒷바라지했다. 어머니는 “최고가 되려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훈련이 필요하면 체력 보강을 위해 함께 산행도 하고, 중국으로 단기 연수를 보내며 온가족이 열심히 딸아이를 지원했어요.”라고 말한다. 아버지도 회사를 그만두고 딸을 뒷바라지할 정도로 헌신했다. 양하은 선수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며 “가족들에게 늘 감사해요.”라고 말했다.

양하은 선수는 세계선수권 출전을 경험삼아 201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회 유스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응원만큼 힘을 내 열심히 땀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5) 역기에 실어 꿈을 들어 올린다

매일 꿈을 들어 올리는 학생이 있다. 2003년 창단돼 올해로 6년째 운영 중인 도장중학교 역도부의 이덕성 선수다. 이덕성 선수는 2007년 처음으로 역도 봉을 잡았음에도, 2008년 10월 역도 경기도 대표 1차 평가전 남자 중등부 77kg에서 인상 90kg 용상 110kg 합계 200kg으로 금메달 3개를 획득, 2009년 4월 제34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기도 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해 수원에서 열린 제4회 경기도지사배역도경기 대회에서 인상 100kg 용상 125kg 합계 225kg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등 화려한 성과를 거뒀다.

이덕성 학생이 처음 역도 선수가 되었을 때에 20kg의 봉을 잡는 것도 버거워 했다. 하지만 정진영 감독과 원진희 코치의 지도와 본인의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은 자신의 몸무게 81kg보다 20~54kg가 많은 100~136kg을 들어 올릴 만큼 성장했다. 원진희 코치는 “덕성이는 자신감이 충분하고 근력이 좋은 선수다.”라며 그 장점을 설명했다.

최근 이덕성 선수는 2009년 4월에 전라북도 순창에서 열린 전국춘계역도경기대회 85kg급 용상에서 136kg을 들어 올리며 종전 대회 신기록 130kg을 깨는 진가를 발휘했다. 하지만, 함께 출전한 대구 성광중학교의 지민호 선수가 137kg을 들어 올리는 바람에 아쉽게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장 감독은 “비록 금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대회 신기록도 깼고 덕성이의 잠재력도 확인할 수 있는 멋진 대회였다. 항상 ‘아니오’란 말 보다 ‘네’, ‘할 수 있어요’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긍정적인 아이인 만큼 앞으로 경기에서는 분명히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했다.

6) 하키와 사랑에 빠진 형제



하키와 사랑에 빠진 형제가 있다. 오승환·오승진 형제다. 형제가 처음 아이스하키 스틱을 잡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형 오승환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동생 오승진 학생이 겨우 다섯 살 때다. 형제가 여느 또래 친구들과 달리 다소 특이한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을 택한 것은 어머니의 권유가 큰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 문경희 씨는 “하키는 팀플레이로 하는 경기잖아요. 운동하면서 건강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했어요. 또 아이들 작은아버지가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이어서 영향을 받기도 했구요.”라며 하키

와의 인연을 설명했다.

이들 형제가 보여 주는 하키에 대한 열정은 남다른데, 재질 면에서는 서로 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지도해 온 감독들은 하나같이 “승환이는 스피드는 좀 부족하지만 경기 전체 흐름을 보는 눈이 좋고, 승진이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대담하고 경기를 풀어 나가는 센스 및 스피드와 골 결정력이 좋다.”고 평한다.

TV를 보는 것보다 하키 운동을 할 때가 더 즐겁다는 이들의 집안에는 트로피와 메달이 수두룩하다. 각종 대회에 나가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같은 팀에 소속된 형제는 올해 2월에 있었던 전국대회에서도 훌륭한 팀플레이를 선보여 각각 베스트플레이어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오승환 학생은 “그동안 게임에 출전할 수 있는 여러 클럽을 옮겨 다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지금 팀으로 이적했어요. 하키를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경기도 전역에서 모였기 때문에 팀이 꼭 우승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경기에 임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 기뻐다.”며 소감을 말했다. 형과 같이 하키를 시작한 동생 오승진 학생 역시 “얼음 위가 너무 좋아요. 주말마다 훈련 받는 것도 힘들지 않고 정말 재밌어요. 슛 잘 쏜다고 코치 선생님께서 칭찬도 해 주시고 그 어떤 놀이보다 하키가 제일 좋아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형제가 이렇게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부모의 헌신이 컸다. 아이들이 어리고 장비도 무거워 연습이 있는 날은 늘 훈련장까지 동행해야 한다는 문경희 씨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링

크장이 흔하지 않고, 거리도 멀어서 늘 아이들 매니저 역할을 해야 해요. 개인생활이 없어 힘든 점도 있지만, 늘 가족이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해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이 정말 자신이 원하고 잘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지금처럼 서로 부대끼고 땀 흘리며 몸도 맘도 건강한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라며 바람을 전했다. 오승환·오승진 형제는 올해 여름 더 전문적인 환경에서 하키를 배우기 위해 가족과 미국에 갈 예정이다.

7) 무대 위를 놀이터라고 생각하며

“예술고 학생들이 많이 참가한 큰 대회라 참가한 것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금상에 제 이름이 호명돼 너무 놀랐고 정말 기뻐요.”

섬세한 손동작과 노련한 춤사위, 탄탄한 작품 구성력으로 2009년 4월 24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주최로 열린 전국무용경연대회에서 고등학교 고학년 여자부문 금상을 수상한 산본고등학교 3학년 이



성희 학생의 수줍은 수상 소감이다. 이번 대회에서 이성희 학생은 ‘녹두 ... 파랑새야’라는 작품을 선보이며, 녹두꽃을 사랑하게 된 파랑새가 땅 위에 뿌리를 내린 녹두꽃과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늘로 비상하며 이별의 슬픔을 담은 내용을 애절하고 섬세하게 표현했다. 본인보다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많이 참가한 큰 대회였기 때문에 실수 없이 무대 위에 선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며, “그날따라 핀으로 고정된 머리 뒷부분이 공연 중에 풀어져서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실수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큰 상을 받아 기뻐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신 김은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그날의 에피소드를 말했다.

이성희 학생은 ‘그냥 춤이 좋아’ 무용을 시작해서 11년째 무용과 사랑에 빠져 ‘무용인’의 삶을 꿈꾸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께서 남들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보내는 것처럼 무용 학원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배우다 보니 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재능도 있다고 하셔서 자연스럽게 진로도 이쪽으로 정하게 됐고요.”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는 일반계와 예술계 고등학교 중 어디를 선택할지 많이 고민했지만, 일반계에서 무용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

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한 후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

‘무대 위를 놀이터’라고 생각한다는 이성희 학생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무용단에 들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며, “저는 평생 춤추는 사람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춤만 잘 추는 사람 말고, 이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춤꾼이 되고 싶어요.”라며 앞으로의 꿈을 말했다.

8) 열심히 공부하는 멋진 배우를 꿈꾸며



양정초등학교 4학년에 가면 어디션가 본 듯한 낮익은 한 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역탤런트 조수민 학생이다. 작은 몸짓과 양중맞은 외모,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TV 드라마를 통해 보던 딱 그대로다. 조수민 학생은 2006년에 「서울 1945」라는 드라마로 데뷔했다. 당시 어머니가 인터넷을 뒤지며 가르쳐 준 함정도 사투리를 밤샘 연습 후

구성지게 소화해서 제작진으로부터 “재, 누구냐?”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그 후 몇몇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서서히 얼굴을 알렸다.

조수민 학생이 대중에게 각인된 것은 2008년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에서 성인연기자 못지않은 농익은 연기실력을 보여 주면서부터다. 극중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한차례 내면의 아픔을 겪은 후 새엄마에게 서서히 마음을 여는 소라 역을 멋지게 소화하면서 감독으로부터 “천재다.”라는 호평을 듣기도 했다. 어머니 신정혜 씨는 “사실 처음에 수민이가 엄뽕 감독님이 무섭다고 출연을 안 하려고 했는데, 대본을 보니 비중도 작고 주말극이라 학교수업도 방해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겠다 싶어 출연을 결정했는데, 첫 촬영 후 수민이 연기가 마음에 드셨는지 비중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덕분에 드라마 후반으로 갈수록 수민이가 고생을 많이 했죠.”라며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조수민 학생은 7살 때, 평소 다재다능한 손녀의 끼를 본 외할머니의 권유로 연기를 시작했다. 그 후 1년 남짓 연기학원을 다닌 후로는 엄마와 연기 연습을 하고 있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연기는 다 똑같아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후로는 엄마와 연습하거나 드라마 보며 다른

연기자들의 연기도 평가하고 따라 해 보기도 해요.”라며 아무지게 말했다.

현재 조수민 학생은 학교생활에만 집중하고 있다. 반장을 맡을 정도로 리더십도 뛰어나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이가 연기를 하지만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경험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다른 일정들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쓰고 있고요.”라고 말하며, “앞으로 수민이 본인이 가장 행복한 일을 하며 살길 원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조수민 학생은 자신이 맡았던 역할 중에서 「엄마가 뿔났다」의 소라 역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또 연기력도 뛰어나고 후배 연기자를 따뜻하게 잘 챙기는 연기자 고두심 씨가 ‘롤 모델’이라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배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멋진 배우다. 닮고 싶다.’는 평을 듣는 그런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 청소년이 만난 청소년과 학교 이야기

1) 청소년들과의 인터뷰

(1) 군포초등학교 리듬체조부 장혜연 선수를 만나고 _ 김누리 | 학생기자(군포초등학교)

군포초등학교 리듬체조부는 1995년 창단된 이래 현재까지 다섯 명의 국가대표 상비군을 배출했다. 2006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 리듬체조 국가대표로 출전한 신언진 선수,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국가대표 정수현 선수, 또 국가대표 상비군인 최현희·최연두·장혜연 선수가 그들이다. 그중 요즘 가장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장혜연 선수를 만나 보자.

“열심히 노력해서 김연아 언니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어요.” 군포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용호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장혜연 선수는 항상 리듬체조계의 김연아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장혜연 선수는 어머니 덕분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김연아 선수처럼 그녀의 재능을 발견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리듬체조를 시작했다. 리듬체조와의 인연은 더 깊은데, 장혜연 선수의 생일이 1995년 4월 바로 군포초 리듬체조부가 결성된 달이기 때문이다.

장혜연 선수의 수상 이력은 화려하다. 2003년 제28회 KBS배 전국체조대회 개인 장려상, 2004년과 2005년 세종대학교 총장배 전국리듬체조대회 개인종합 1위를 비롯해 2007년 5월에는 경상남도 김천에서 개최된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리듬체조 부문에서 라이벌인 이수린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까지 획득했다. 이는 장혜연 선수의 선배 김유미 선수가 1997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성, 힘, 균형 감각이 탁월한데다 고된 연습도 마다않는 열성파다.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 피겨스케이터 이준형 선수와의 인터뷰 _ 유혜정 | 학생기자(능내초등학교)



2위를 차지했다.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평을 들으며 남자피겨의 유망주로 손꼽히는 이준형 선수를 만나 인터뷰해 보았다.

문) 언제부터 스케이트를 타게 되었나요?

답) 5살 때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탔고, 전문적으로 배워 봐야겠다고 결심하고 운동을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메달을 획득한 이후 줄곧 1위를 독차지한 세종초등학교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10년 만의 쾌거다.

자그마한 체격이라 커다란 후프를 다루는 데 나름대로 애를 먹는다고 한다. 이것을 훈련으로 극복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혜연 선수의 노력이 정말 값지다. 장혜연 선수와 선후배 사이인 유영란 선수는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늘 묵묵히 연습에 임하는 혜연 언니를 보면 같은 리듬체조 부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 조미자 코치와 한유석 감독은 “혜연이는 유연

김연아 선수로 인해 피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남자 피겨에서도 기대주로 꼽히는 선수가 나타났다. 2009년 능내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장중학교에 입학한 이준형 선수이다. 이준형 선수는 2008년 제62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의 남자싱글 노비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2009년 제63회 대회에서는 남자 주니어부

예요.

문) 스케이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답) 지금 저를 지도해 주고 계신 오지연 코치님이 저희 어머니세요. 지금은 세계적인 선수로 우뚝 선 김연아 선수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분이시기도 하구요. 어머니는 20년 가까운 코치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다니며 스케이트란 종목에 자연스레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선수들의 은퇴 후 삶을 장담할 수 없고 훈련 환경이 열악하다고 이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많이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처음 스케이트를 신던 순간 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운동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재능이 있다고 해 주시고 또 스케이트 타는 것이 즐거워서 이 길로 꼭 나갈 생각이예요.

문) 스케이팅을 하면서 힘들었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답) 4학년 때 1달 동안 스케이팅을 쉰 적이 있어요. 왜 내가 스케이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죠. 어머니께서 제가 당시 때문에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어요. 몇 달 동안 연습을 쉬게 되자 얼음판이 몹시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솔직히 이야기했죠. 다시 스케이트가 타고 싶다고, 간절하다고. 그후 진지하게 어머니와 대화를 나눈 후 다시 빙판 위에 설 수 있었어요. 더 열심히 노력했구요.

문) 이준형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거나 자랑하고 싶은 수상 경력은 무엇인가요?

답) 2008년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받은 것이요. 그동안 노력한 것에 대해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기뻐합니다.

문) 앞으로의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답) 스케이팅 선수예요. 무대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스케이트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문) 이준형 선수가 생각하는 스케이팅의 정의는?

답) 스케이팅은 저의 생명이예요. 뛰어난 스케이팅 기술과 탄탄한 기본기, 트리플 점프까지 모두 꼼꼼하게 익혀 국제대회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또 옆에서 든든하게 지도해 주시는 조력자인 어머니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선배 학생기자인 조창희 학생을 만나고 _ 송원희 | 학생기자(당동초등학교)

본 기자는 2008년에 학생기자단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엔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고 힘들기도 했다. 하지만 선배 학생기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여 뜻 깊은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

학생기자로 활동했던 조창희 학생은 “기자활동을 하면서 처음엔 인터뷰하기도 어색하고 기사주제를 정하고 취재하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며 “지난 봄 군포시장 기체육대회 때 시민체육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재밌었

다.”고 말했다. 본 기자 또한 학생기자활동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건과 사물을 대하는 시각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다. 좀 더 주의 있게 다른 면을 보려고 노력하게 된 것이다.

2009년에도 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생각이다. 또 학생들이 바라보는 군포의 모습은, 또 군포에서의 학생들 생활은 어떤지 많은 기사를 쓰도록 노력할 것이다.

(4) 능내초등학교 합창부 유혜정 학생과의 인터뷰 _ 유수정 | 학생기자(수리중학교)

각 학교마다 적지 않은 동아리가 있는데, 그중 초등학교들이 선망하는 것에는 합창부가 있다. 능내초등학교 합창부의 유혜정(6학년) 학생을 만나서 인터뷰하며 초등학교 내 동아리활동과 그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문) 합창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답) 능내초등학교 합창부는 다른 활동부서와는 다르게 4·5·6학년이 다함께 모인 동아리예요. 이곳에서 선배나 후배, 또 다른 반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어서 좋아요. 연습은 보통 오전 8시 20분부터 수업이 시작하는 9시까지 하구요, 점심시간 이후에도 15분 정도 함께 모여 연습을 해요. 또 토요일에도 연습이 있고요, 대회 일정이 잡히면 매일 모임을 가지고 연습에 매진해요.

문) 합창부에서 자신이 맡았던 파트와 역할을 말씀해 주세요.

답) 여태까지 세 곡을 배웠는데요, '상주아리랑'이라는 곡에서는 소프라노·메조·알토 중에서 알토 부분을 맡았고, '야곱의 열두 아들'이라는 곡에서는 소프라노1·소프라노2·소프라노3·알토1·알토2 중에서 알토를,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서는 소프라노·메조·알토 중에서 알토 부분을 담당했어요.

문) 합창부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답) 정기 연습 때문에 아침에 학교를 빨리 가야 하고 점심시간에 놀지 못하는 것이 조금 어렵구요. 다른 점은 다 좋아요.

문) 합창부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답) 합창부원들과 노래 한 곡을 완전히 익혀서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 낼 때 희열 같은 것을 느끼고요. 2008년에는 청주에서 열린 전국합창대회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또 합창부 김현욱 담당선생님께서 매일 재밌게 지도해 주시고 부원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던 것이 좋았어요.

문) 합창부 하면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답) 합창부 활동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고 좋은 추억이에요.

문) 합창부는 어떤 수상 경력이 있나요?

답) 제가 활동하면서 작년에 군포의왕학생예능경연대회에서 금상과 청주시에서 주최한 청주 전국어린이합창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 있어요.

문) 합창부만의 장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답) 부원 간에 사이가 너무 좋고 협동이 잘되는 것이 장점 같고요. 선생님께서 지도를 잘해주시는데 부원 모두 선생님을 믿고 잘 따르는 것이 저희 능내초 합창부만의 자랑이에요.

문) 합창부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요?

답) 6학년이라 합창부에서 활동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아쉬운 맘이 커요. 남은 기간 동안 선생님 과 부원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고, 또 좋은 대회가 있으면 열심히 연습해 출전하고 싶어요.

2) 학교와 청소년 시설 방문기

(1) 군포중학교,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보고 _ 조창희 | 학생기자(군포중학교)

군포중학교는 2009년 2월 12일 졸업식에서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졸업한 262명의 학생은 본인이 입었던 교복을 신입생들과 여분의 옷이 필요한 후배들에게 내 놓았다. 교복 물려주기 행사는 군포중학교를 비롯한 지역의 다른 학교에서도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지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군포중학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2월 19일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신입생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해 새 교복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다. 또 2월 26일에는 옷이 헐거워져서 못 입게 되었거나 몸이 많이 자라 옷이 맞지 않는 재학생이 돈을 들여 교복을 고치거나 다시 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교복을 바꾸어 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행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절약하는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 계획되었다. 그리고 교복을 바꾸어 가게 함으로써 용의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군포중학교 최춘배 교장은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교복을 물려주면, 후배들이 선배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고 성장하면서 교복이 작아진 학생은 다시 사야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1학년 문희영 학생은 “추억이 담긴 교복을 기꺼이 내준 선배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며 “남은 학업기간 동안 깨끗하게 교복을 입어 후배들에게 물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1학년 조현진 학생은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더 이상 교복이 불필요한 선배들이 후배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도와줘 고맙다.”며 “이런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졸업하는 홍다운 학생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에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2) 당동초등학교 급식센터를 취재하고 _ 신유정 | 학생기자(당동초등학교)



우리는 매일 학교에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한다. 본 학생기자가 속한 당동초등학교 학생들 역시 학교로부터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당동초 급식센터는 성장기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가 높은 식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위생관리는 학교급식 HACCP시스템을 가동해 조리장이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는다. 급식소의 청결과 위생을 위해 식재료와 음식기구는 철저히 소독한다. 또 정기적으로 조리원들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전염병을 예방하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급식을 실시함에도 급식을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한다. 당동초 급식 영양사는 “저학년은 편식이 심해서 처음 먹어 보는 음식이나 본인의 입에 맞지 않는 요리는 먹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주로 잡곡류가 섞이지 않은 흰쌀밥과 고기류를 선호하는데, 당동초 급식실에서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발육과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편식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 습관 기르기, 급식실에서 질서를 지켜 서로에게 불편함 없는 쾌적한 식사시간 만들기,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조리원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기를 당동초의 급식 에티켓으로 정해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통해 올바른 급식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조리원들은 잔반을 남기는 학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대부분의 조리원들은 “학생들이 본인의 입에 맞지 않은 음식이 나오더라도 한 번 먹어 보려는 노력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며 “정성들여 만든 음식을 학생들이 맛있게 잘 먹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급식을 이용하는 당동초 학생들은 ‘좋아하는 음식이 자주 나오면 좋겠다. 전교생이 이용하는 급식실 식탁이 더러워지면 빨리빨리 닦아 줬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잔반을 남겼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외에 학생들은 ‘영양소가 표시된 한 주간의 식단표가 미리 제공되고 음식을 만드는 조리실의 내부가 흔히 보여 믿을 만하다. 소독된 컵을 사용할 수 있어 좋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보였다.

이번에 급식실을 취재하면서 조리원들이 학생들에게 질 높은 식사를 매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정성을 들여 요리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 제한된 급식비로 최고의 식단을 만들고 위생과 청결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3)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 가다 _ 조민식 | 학생기자(둔전초등학교)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가슴에 품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을 만들며, 열정을 가지고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청소년 활동의 중심센터이다. 2004년 8월 개원해 군포 지역의 대표적인 청소년활동 지원기관이 된 청소년수련관 내에는 수영장, 체육 활동장, 청소년 문화광장, 청소년 극장, 문화 감상실, 전통문화 교육관 등의 활동 시설이 마련돼 있다. 이들 시설은 지역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청소년수련관은 시민벼룩시장 등을 열어 지역민과도 함께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청소년 활동팀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현우 아저씨는 다양한 청소년 모임과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청소년의 모임은 크게 운영위원회·기자단·동아리·봉사단이 있는데, 활동이 매우 다양하고 우수해 타 지역 수련관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특히 이곳에는 청소년 문화전용 카페인 기씨(GISS)와 풍물, 댄스, 자원봉사, 밴드 등 30여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동아리는 연말에 동아리 잔치인 종합발표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하고 있다. 댄스 동아리 회원인 최지혜 학생은 “댄스 동아리를 통해 같은 취미나 소질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기쁘다.”며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 유익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는 다른 단체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해외 브로드웨이뮤지컬이다. 뮤지컬은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공연을 하지만,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영어수업과 뮤지컬수업을 접목시켜 영어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뮤지컬을 통해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해외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2008년에는 사이판 Dandan초등학교를 방문해 뮤지컬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하는 동안 만난 청소년들은 모두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만족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은 학생들과 지역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숨 쉬고 있다.